

Histoires Naturelles

# 박물관지

쥘 르나르 저 | 손석린 역 “나비— 돌로 짠 이 편지 폭지는 꽃에게 보내는 연애편지.” “벼룩— 용수철 장치가 있는 담뱃가루.”  
《홍당무》로 잘 알려져 있는 19세기 프랑스 작가 쥘 르나르가 동식물을 관찰하며 쓴 산문집. 일상 속에서 자연과 함께하며 얻은 풍부한 영감을 십분 발휘한 르나르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작가가 직접 그린 스케치와 간결하면서도 아름다운 문장이 독자들을 대자연의 품속으로 안내한다.



# 박물관

\*본 문서에 대한 저작권은 사단법인 올제에 있으며, 이 문서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2012 Olje All Rights Reserved

## 올재의 꿈

올재는 지혜 나눔을 위해 2011년 9월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예술과 문화 속에 담긴 지식과 교양을 널리 소개하고 향유함으로써, 격변하는 세상의 지향점을 찾고, 올바르게 창의적인 교육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올재의 꿈입니다. 특히 올재는 인문 고전이나 문화 예술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소외 계층과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지혜 나눔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올재의 첫 번째 지혜 나눔은 인문 고전입니다. <올재 클래식스>는 최고 수준의 번역본을 부담 없는 가격에 보급합니다. 각 종당 5천 권을 발행하며 4천 권은 교보문고에서 6개월간 한정 판매합니다. 미판매된 도서와 발행 부수의 20%는 복지시설, 교정 기관, 저소득층 등에 무료 기증합니다. 출간한 번역본은 일정 기간 후 올재 인터넷 홈페이지([www.olje.or.kr](http://www.olje.or.kr))에 게시합니다.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 올재의 벗

〈올재 클래식스〉《박물지》의 발행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상당액은 〈올재 클래식스〉의 지혜 나눔 취지에 적극 공감한 SK의 도움으로 마련됐습니다. 국내 최대의 서점 교보문고는 〈올재 클래식스〉의 유통 지원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표지 제호를 재능 기부해 주신 강병인 캘리그래피연구소 숭통 대표 강병인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귀한 번역본을 남겨 주신 고 손석린님께 감사를 전하며, 아울러 선친의 글을 올재에서 펴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손창호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재 클래식스〉 출간이 전국 곳곳에 인문 고전 나눔으로 뜨겁게 이어지길 바랍니다. 올재의 첫 번째 지혜 나눔 〈올재 클래식스〉 출간에 많은 격려와 박수를 보내 주신 벗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합니다.

정기 후원과 일반 후원으로 올재의 지혜 나눔에 참여하세요.

올재의 벗들이 심은 작은 흙씨가 전국 곳곳에 인문 고전의 꽃으로 피어납니다.

올재 후원함 | 예금주 사단법인 올재

국민은행 023501-04-184681

농협은행 301-0100-8607-71

신한은행 100-027-966986

우리은행 1005-401-996902

하나은행 162-910013-46904

후원 문의처 | 올재 사무국

☎ 02)720-8278 ⓘ www.olje.or.kr ⓧ olje.classics@olje.or.kr

📧 @olje.classics 📘 www.facebook.com/olje.classics

## 지혜 나눔을 함께한 벗들



## 차례

역자 서문.....	7	피고리.....	36
그의 생애와 주요작품.....	9	백조.....	37
		물총새.....	39
박물지(博物誌).....	10	모래무지.....	40
영상(影像)의 사냥꾼.....	11	고래.....	41
수탉.....	13	개.....	42
오리.....	16	고양이.....	43
암탉.....	17	벼룩.....	44
바퀴.....	18	다람쥐.....	45
거위.....	18	소.....	46
칠면조.....	20	물의 말파리.....	47
방울새의 집.....	21	암소.....	49
새가 없는 새장.....	23	말.....	50
빨닭.....	24	브뤼네트의 죽음.....	52
카나리아.....	25	황소.....	55
제비.....	27	개미.....	57
비둘기.....	29	개미와 자고새 새끼.....	57
박쥐.....	30	당나귀.....	58
할미새.....	31	지렁이.....	60
까치.....	31	뱀.....	61
공작새.....	33	살무사.....	61
티티새.....	34	돼지.....	62
종달새.....	35	돼지와 진주.....	62

죽제비 .....	64	자고새 .....	89
도마뱀 .....	64	사슴 .....	96
양 .....	65	새매 .....	97
말벌 .....	67	개양귀비 .....	98
잠자리 .....	68	나무들의 한 가족 .....	99
수염소 .....	69		
귀뚜라미 .....	70	르나르의 일기(日記) .....	101
메뚜기 .....	71		
개똥벌레 .....	73		
토끼 .....	73		
뜰에서 .....	74		
포도밭 .....	76		
새앙쥐 .....	76		
원숭이 .....	78		
납엽기(納獵期) .....	79		
달팽이 .....	80		
송충이 .....	82		
나비 .....	83		
두꺼비 .....	84		
개구리 .....	85		
도요새 .....	87		
거미 .....	88		
까마귀 .....	89		

## 역자 서문

### 《박물지(博物誌)》

원제(原題) 《Histoires naturelles》는 ‘자연사(自然史)’ 또는 ‘자연의 이야기’라고 옮기는 것이 보다 원어(原語)의 뜻에 충실하겠지만 작품의 내용이 동·식물을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감히 《박물지(博物誌)》라 표제(標題)해 보았다.

쥘 르나르가 전원(田園)에서 또는 파리의 동물원에서 수많은 동식물을 관찰하고 그 짧은 글을 모아 놓은 것이 이 작품이다. 1896년에 간행된 초판은 45편으로 되어 있었으나 그 후 1904년에 몇 번 첨가되어 플라마리옹 사(社)에서 70편의 결정판을 내놓았다.

르나르는 스스로를 영상(影像)의 사냥꾼이라 부르고 있다. 눈(眼)을 그물 삼아 삼라만상(森羅萬象)의 모습을 잡는다. 그리고 그 잡은 모습을 비유와 시정(詩情)을 곁들여 간결한 문장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 《박물지》이다.

르나르의 작품으로 이 《박물지》가 그의 필생의 걸작 《홍당무》에 이어 많은 사람들에게 애독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즉 그가 말하는 소위 영상(影像)의 사냥꾼 속에서 우리는 그의 에스프리(esprit)가 넘쳐흐르는 독특한 재능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라.

그가 자연을 사랑하고 초목금수(草木禽獸)의 생활을 예리하게 포착·관찰한 그 유례 없는 형식은 필연적으로 그의 존재를 뚜렷하게 했으며 대중의 흥미를 올리게 한 것이다.

그는 확실히 발자크나 졸라처럼 거창한 작품을 쓰지도 못했으며, 또한 그만한 명성도 얻지 못했다.

그는 조그마한 것 속에서 조그마한 것을 묘사하면서 살아갔다. 그러나 그의 특질은 반드시 그 조그마한 세미화(細微畫)를 그리는 것만은 아니다. 《박물지》가 그것을 증명하고도 남는다. 그 폭넓은 정의감, 무한한 진실에의 탐구, 순수한 생활의 찬미, 그 엄격한 금욕주의, 그 고고하고도 한없이 고독한 영혼의 표정이 이 작품

속에 깃들어 있지 아니한가?

《홍당무》가 그의 소년 시절의 쓰디쓴 회고의 심회를 기술한 것이라면, 《박물지》는 보다 더 고차원(高次元)의 심경에서 인생과 자연을 겸허한 마음으로 관조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일기(日記)》

《르나르의 일기》(전5권)는 그가 죽은 뒤 15년이 지난 1915년에 출판되었다. 르나르가 이 《일기》를 쓰기 시작한 것은 1887년 13세 때부터이며,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23년간 계속되었다. 그의 《일기》에는, 물론 그의 모든 작품의 싹이 깃들어 있다.

일상생활의 자질구레한 것, 가족관계의 일, 순간순간 머리에 떠오르는 일을 그대로 적어둔 것이다. 예리한 눈으로 자연을 관찰하고 예술을 논하고 비평한다. 때로는 정치를 논하고 인류의 무한한 사랑을 꿈꾼다.

우리는 이 《일기》를 읽어 나가면서 점차 그의 문학 세계에 도취되어간다. 그 짙막 짙막한 글귀 속에서 그의 풍부한 풍자 어린 인간애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의 지극히 다듬어진 문체는 조각과도 같다. 그것은 그가 “나의 문체는 나의 목을 졸라맨다”라고 털어 놓았듯이 얼마나 글다듬기에 고심했는가를 엿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일기》는 르나르가 가장 문학적으로 성숙했던 시기, 1901년의 1월부터 6월까지의 것을 수록한 것이다. 이 줄역(拙譯)을 내놓게 도와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표하는 바이다.

1972년 7월 역자



## 그의 생애와 주요작품

쥘 르나르는 1864년 2월 22일, 파리 남서쪽 아르장트레 지방 샬롱 뒤르 마옌에서 프랑수아 르나르를 아버지로, 안나 로즈 콜랭을 어머니로 하여 태어났다. 일찍이 에콜 노르말 쉬페리외르(高等師範)를 지망하여 열심히 공부하였으나 성적이 좋지 못해 단념하고 말았다. 이즈음 그는 문학에 크게 관심을 갖게 되어 시작(詩作)·소설(小說)에 손대어 《쥐머느리》-사후(死後) 출판-를 집필하기 시작하였다. 이어 1885년에는 단편집 《마을의 죄악(罪惡)》을 출판하려 했으나 거절당하고 겨우 〈프레스〉 지(紙)에 시인(詩人)으로서 소개될 정도였다. 그해 본연히 지원병(志願兵)으로 입대, 1년간 군대 생활을 하는 한편, 그동안의 시작(詩作)을 모아 시집 《장미》를 자비 출판하였다. 제대 후 파리에 돌아와 몇 차례 직(職)을 전전하다가 1888년 마리 모르노와 결혼, 다음 해 11월, 〈메르퀴르 드 프랑스〉 지(紙) 창간에 참가, 본격적인 문학 생활로 들어갔다.

문단의 친교로 특히 알퐁스 도데, 뤼시앙 기트리, 에드몽 로스탕 등과 밀접했으며, 주요 작품을 살펴보면

1894년 《홍당무》

동년 《포도밭의 포도재배인》

1896년 《박물지(博物誌)》

1900년 희곡 〈홍당무〉

1925~1927년 《르나르 전집》(이 중에는 1887년~1910년 그가 죽는 날까지의 일기가 포함되어 있다) 등을 들 수 있으며, 기타 많은 단문(短文), 시, 희곡이 있다.

1900년 이후 그의 작가 생활은 잠시 공백기(空白期)를 두는 듯한 감이 있으며, 그 해 5월에는 이색적으로 쇼모의 면회의원(面會議員)으로 피선되어 정치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그 뒤 그는 지방신문에 정치 기사를 정기적으로 발표하여 점차 공화 사회주의적(共和社會主義的)인 경향을 보이고도 있다. 말년에는 고혈압으로 신음, 1910년 5월 22일, 4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박물관(博物館)

## 영상(影像)의 사냥꾼

아침 일찍 잠자리에서 뛰어나와, 머리가 맑고 상쾌한 마음으로 여름옷처럼 가벼운 몸일 때만 그는 떠난다. 먹을 것이라고는 가지고 가지 않고, 가다가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향기로운 냄새를 담뱃 말는다. 총기(銃器)는 집에 놓아두고 눈만 크게 뜨면 되는 것이다. 그 눈이 그물 노릇을 하는 것이며 그것에 여러 영상이 스스로 걸려드는 것이다.

맨 먼저 걸려든 것은 길의 영상이다. 인목(鱗木)과 오디나무의 풍성한 생나무 울타리 사이에 끼여 있는 그 길은 반들반들한 조약돌이 빠져처럼 노출되어, 터진 혈관처럼 수레바퀴 자국이 나 있다.

다음에는 시냇물의 영상(影像)이 잡힌다. 시냇물은 굽이치다 흰 물거품을 내면서 버들의 애무를 받아 졸고 있다. 물고기 한 마리가 배를 뒤집으면 은전(銀錢)을 던진 것처럼 번쩍인다. 가랑비가 내리면 시냇물은 소름이 끼친다.

그는 움직이는 밀밭의 영상을 잡는다. 식욕을 돋우는 개자리풀이랑 시냇가로 경계지어진 목장의 영상을 잡는다. 지나는 길에 한 마리의 종달새가, 아니면 방울새가 나는 것을 잡는다.

그리고 그는 숲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그렇게도 섬세한 감각이 있었던가 싶어진다. 향긋한 향기가 재빨리 몸에 스며들어 아무리 둔한 웅성거리는 소리도 놓치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나무들과 상통하기 때문에 그의 신경은 나무의 엽맥(葉脈)과 맺어진다.

오래지 않아 너무나 흥분하여 마음이 이상해진다. 모든 것이 뚜렷해지며 몸이 발효(發酵)하는 것 같다. 두려운 마음에 숲을 나와 주물(鑄物)을 만드는 직공의 뒤를 저 멀리 뒤따라 마을로 돌아간다. 숲 밖에서 마침 저물어가는 해가 그 찬란한 구름 옷을 지평선상에 벗어 던지고, 그것이 온통 뒤범벅이 되어 흩어져 있는 것을 잠시 뚫어지게 바라본다.

마침내 복잡한 머리로 집에 돌아와 불을 끄고 잠자기 전에 오랫동안 그러한 영상들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며 즐겨본다.

그 영상들은 순순히 생각하는 대로 다시 눈앞에 떠오른다. 그 하나하나가 다른 하나하나를 불러일으키며, 그 인광(磷光)의 무리는 끊임없이 새 무리가 또 첨가되어 늘어난다. 마치 온종일 쫓겨 발기발기 흩어진 자고새들이 저녁에 이미 위험도 사라져 밧고랑 우묵한 곳에서 서로 부르며 지저귀듯.



Illustration : Jules Renard

수탉



1

그는 한 번도 운 적이 없고, 하룻밤도 닭장에서 자본 적도 없다. 그야말로 한 마리의 암탉도 알지 못한다.

그의 몸통이는 나무이며 배 한복판에 쇠다리가 하나 있다. 그리고 여러 해 전부터 낡은 교회당 위에서 살고 있지만, 이 집은 지금은 도저히 지을 수 없는 건물이다. 이 교회당은 헛간처럼 보이는 건물로 그 용마루는 황소의 등만큼이나 쪽 곱다.

그런데 지금 그 교회당 저 끝에 석공(石工)들이 나타났다.

나무 수탉이 그들을 바라보자니 돌풍이 불어 강제로 등을 돌리게 한다.

그리고 그가 몸을 돌릴 때마다 새로운 돌이 쌓여 눈앞의 지평선이 차츰차츰 가려진다.

끝머리를 쭉 쳐들어 보니 방금 다 만들어 놓은 종루(鐘樓) 꼭대기에 아침까지는 없었던 젊은 수탉이 한 마리 보인다. 이 이방인은 꼬리를 바짝 쳐들고 한바탕 울어댈 듯이 입을 벌리고 한쪽 날개를 허리에 붙인 채 번들번들하게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다.

우선 두 마리의 수탉은 뱅뱅 도는 경쟁을 한다. 그러나 낡은 나무 수탉은 바로 기진맥진하여 손을 들고 만다. 하나밖에 없는 다리 아랫도리가 무너질 것 같다. 그는 거의 넘어질 것처럼 몸을 앞으로 버틴다. 그는 빼걱거리며 멈춘다.

이번엔 목수들이 나타난다.

그들은 교회당의 이 낡은 모퉁이를 부숴버리고, 그 수탉을 떼어 내려 그것을 가지고 온통 마을을 돌아다닌다. 누구나 화대(花代)만 내면 만져볼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달걀을 하나, 또 다른 사람들은 동전을 한 닢 내놓는다. 롤리오 부인은 은전을 하나 내놓는다.

목수들은 흠뻑 마시고 그 수탉을 갖겠다고 다툼 뒤에 마침내 그것을 태워버리기로 결정한다.

그들은 우선 밀짚과 나무 다발을 쌓아올려 그것에 불을 지른다.

나무 수탉은 화닥화닥 타올라 그 불꽃은 하늘로 치솟고 천국에 이른다.

## 2

아침마다 햇대에서 뛰어내려 그 수탉은 상대방이 여전히 그곳에 있는지 어떤지 바라본다. 상대방은 여전히 그곳에 있다.

이 수탉은 이 땅 위의 모든 경쟁자들을 때려 눕혔다고 자랑할 수 있다—그러나 그 상대방은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으니 어쩔 수 없는 경쟁자다.

수탉은 계속 외친다. 불러보기도 하고 도전도 하고 위협도 해본다—그러나 상대방은 시간이 되지 않으면 대답이 없다. 게다가 우선적으로 대답하는 것도 아니다.

수탉은 점잔을 빼고 날개를 부풀게 한다. 그런데 그 날개는 꽤 볼품이 있어, 푸른 곳도 있으며 은빛인 곳도 있다—그러나 상대방은 창공에 눈부실 정도로 찬란한 황금색이다.

수탉은 그의 암탉들을 모아놓고 선두에 서서 걸어간다. 보라, 그녀들은 모두 그의

것이다. 모두 그를 사랑하고 그를 두려워한다. 그러나 상대방은 제비들이 좋아하는 대상이다.

수탉은 낭비가(浪費家)이다. 그는 여기저기서 사랑의 구점(句點)을 찍고 돌아다니며 대수롭지 않은 일에도 날카로운 소리를 내면서 개선을 구가한다—하지만 상대방은 바로 그때 새색시를 맞이하여 하늘 높이 마을에 혼례를 알린다.

수탉은 샘을 내어 머느리발톱 위에 몸을 세우고 최후의 결전을 시도하려 한다. 그의 꼬리는 마치 망토 자락을 갈로 추켜올리는 것 같다. 그는 벼를 피로 물들이고, 하늘의 수탉들은 모두 덤비라는 듯 도전한다. 하지만 상대방은 폭풍에 맞서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은 그저 산들바람과 놀아나면서 획 등을 돌린다.

그래서 수탉은 해가 질 때까지 화가 난다.

그의 암탉들이 하나씩 돌아온다. 그는 목이 쉬고 지친 채 벌써 어두워진 마당에 홀로 남아 있다—하지만 상대방은 마지막 저가는 햇빛에 아직도 빛나고 있다. 그리고 그 맑은 목소리로 저녁의 평화로운 종소리를 노래한다.



## 오리



암오리가 먼저 앞서서 두 다리를 절며 언제나 잘 가는 구덩이로 질벽거리러 간다. 수오리가 그 뒤를 따른다. 날개 끝을 등위에 엇갈려 놓고 이놈도 역시 두 다리를 절며 간다.

수오리와 암오리는 무슨 불일이라도 있는 것처럼 묵묵히 걸어간다.

암놈이 먼저 새털이랑, 새똥이랑, 포도잎이랑, 지푸라기 따위가 떠 있는 진창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간다.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이다.

그녀는 기다리고 있다. 준비는 다 되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수놈이 들어간다. 그의 화사한 빛깔이 가라앉는다. 이제 녹색의 머리와 궁둥이의 애교머리밖에 보이지 않는다. 두 놈 다 기분 좋은 듯 가만히 있다. 물이 몸을 녹여준다. 아무도 그 물을 퍼내는 일이 없으니, 소낙비가 내리기 전에는 교체될 수는 없다.

수놈은 그 납작한 주둥이로 암놈의 목을 가볍게 짚으면서 죄어간다. 잠시 그는 몸을 심하게 흔들여 보지만 물은 너무도 흠탕이라 잔물결조차 일지 않는다. 그래서 바로 잔잔해지면 매끈한 수면에 맑은 하늘의 한 모퉁이가 검게 비친다.



암오리와 수오리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태양이 그들을 녹여 잠들게 한다. 옆을 지나가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이다. 이따금 잠든 물위에 불쑥 솟아오르는 물거품으로 그들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암탉



닭장의 문을 여니 다리를 모으고 암탉이 훌쩍 뛰어내린다.

이놈은 수수한 옷차림의 평범한 암탉으로 결코 금달걀을 낳지는 않는다. 밖의 밝은 빛 때문에 눈이 부시어, 자신 없는 걸음걸이로 몇 발자국 뜰 안을 걸어간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젓터미이다. 그녀는 아침마다 거기서 뛰어노는 습관이 있다. 그녀는 젓터미에서 뒹굴기도 하고 그 속에 파고들어 가서 날개를 부풀게 하여 한 바탕 날개를 쳐서 밤사이에 달라붙은 벼룩을 떼어 치운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간밤에 소나기로 빗물이 가득 찬 움푹한 접시로 가서 물을 마신다.

그녀가 마시는 것은 물뿐이다. 그녀는 접시 가장자리에서 목을 잘 가누어 한 모금



꿀꺽 마시고는 목을 쭉 뻗는다.

그리고 난 후 언저리에 어수선하게 널려 있는 벌레도, 흩린 알곡도 그녀의 것이다.

그녀는 먹이를 지칠 줄 모르고 쪼아 먹는다.

가끔 우뚝 멈춘다.

붉은 프리지아 모자(프랑스 혁명당원이 쓰던 붉은 모자)를 쓰고 몸을 킁킁이 세우고 예리한 눈초리에 어울리는 가슴패기로, 그녀는 두 귀를 번갈아 세워 무엇인가를 듣는다.

그래 별다른 일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면 다시 먹이를 찾기 시작한다.

그녀는 신경통에 걸린 사람처럼 뻣뻣한 다리를 쳐든다. 그리고 발가락을 벌려 그대로 소리 내지 않고 살짝이 바닥에 내려놓는다.

마치 맨발로 걸어가는 듯하다.

## 바퀴

자물쇠 구멍처럼 짐고 납작하다.

## 거위

티에네트는 마을의 판 처녀들처럼 파리에 가고 싶다. 하지만 그녀가 거위를 지킬 수 있을지는 모를 일이다.

사실을 말하자면, 그녀는 거위를 몬다기보다 그 뒤를 따라간다는 것이 더 적절하다. 뜨개질을 하면서 기계적으로 그 거위 무리의 뒤를 걸어갈 뿐이며 다음은 어른

처럼分別력이 있는 툴루즈의 거위에게 맡겨버리는 것이다. 툴루즈의 거위는 길도, 좋은 풀도 또한 집에 돌아갈 시간도 잘 알고 있다.

용감한 점에서는 수거위도 못 당할 정도로, 짓궂은 개가 와도 훌륭히 형제자매들을 보호해 준다. 그녀의 목은 부르르 떨며 땅바닥에 닿을락 말락 뺨처럼 꾸불거리고 그리고 나서 다시 모피를 바로 세운다. 이처럼 그녀는 티에네트를 지배하며 또한 당황하게 한다. 그래서 만사가 다 잘 되어가면 거위는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무사하게 된 것이 누구의 덕택이나 라는 듯이 콧소리 내어 노래한다.

그녀는 또한 그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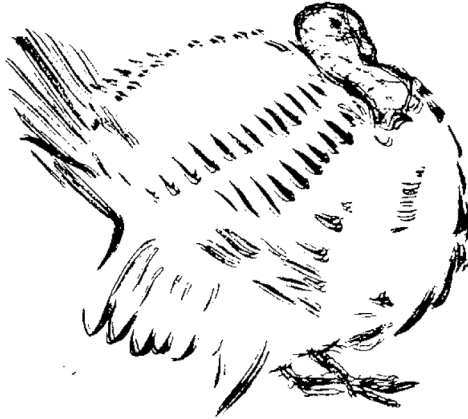
그리고 어느 날 저녁 마침내 그녀는 마을을 떠난다.

그녀는 부리에 바람을 받으며 날개를 찰싹 붙이고 길을 걸어간다. 아낙네들은 스쳐 지나가지만 감히 그것을 멈추게 할 용기가 없다. 겁이 날 정도로 빨리 걸어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티에네트가 거기서 완전히 인간의 힘을 잃고 거위처럼分別력 없이 멍청히 남아 있는 동안, 툴루즈의 거위는 그대로 파리를 향하여 가는 것이다.



## 칠면조



### 1

그녀는 마당 한복판을 으스대며 걸어간다. 마치 프랑스 제정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다.

만 닭들은 아무거나 가리지 않고 마구 먹기만 한다. 그런데 규칙적인 식사를 한다는 것 이외에는 멋 부리는 것이 전부이다. 깃털은 전부 풀을 먹여 뿔뿔하다. 그리고 뾰족한 날개 끝으로 땅바닥에 선을 긋는다. 자기가 지나가는 길을 그려 놓으려는 듯하다. 그녀는 그 길만을 걸어 나가며 결코 한눈을 팔지 않는다.

그녀는 너무나 거드름을 피우느라고 머리를 뒤로 젖히고 걷기 때문에 자기 발을 본 적이 없다.

그녀는 사람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다가가면, 자기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온 것이라 생각한다.

별써 그녀는 거만을 떨며 꾸루루 꾸루루 거린다.

—거룩하신 칠면조님, 하고 나는 그녀에게 말한다. 만일 당신이 거위라면, 나도 뉘퐁이 한 것처럼 당신에 대한 찬사를 써 볼 텐데, 당신의 깃털을 하나 뽑아서 말

이오. 그러나 당신은 그저 한 마리의 칠면조에 불과하단 말이지요.  
필경 그녀의 기분을 상하게 했나보다. 그녀의 머리에 피가 오르니 말이다. 부리에  
화가 난 주름이 늘어진다. 그녀는 금시라도 새빨갛게 성낼 것 같다. 그래서 그 꼬  
리날개의 부채를 한번 푸드득거리고 이 까다로운 노파는 빙글 등을 돌린다.

2

길거리에 또 칠면조 학교의 기숙생들이 있다.  
날씨가 어땠든 그녀들은 날마다 산책을 한다.  
그녀들은 비를 겁내지 않는다. 어떤 여자도 칠면조만큼 잘 치맛자락을 걷어 올리  
지 못한다. 또한 칠면조는 햇빛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녀는 양산을 갖지 않고 나  
가는 일이 없다.

방울새의 집

우리 집 벚나무 가지 갈래에 방울새 집이 하나 있었다. 보기에다 예쁘고 둥근 집으  
로, 외부는 온통 거친 털로 덮여 있고 내부 또한 솜털로 잘 싸여 있다. 그 속에 새  
끼 네 마리가 방금 알을 까고 나왔다. 나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것을 잡아서 키워보고 싶어요. 아버지는 흔히, 새를 장속에 가두어 두는 것은  
죄악이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마도 같은 말을 되풀이하기가  
싫어서인지 별 다른 대꾸가 없었다. 며칠 뒤에 나는 그에게 말했다.

—하려고 들면 문제 없어요. 우선 새집을 새장 속에 넣고, 그 새장을 벚나무에 달  
아매두지요. 그러면 어미 새가 창살사이로 먹이를 날라다 주겠지요. 그러는 동안  
어미 새가 필요없게 될 테이니깐요.

아버지는 이러한 방법에 대하여 말씀이 없었다.

그리하여 나는 새장 속에 새집을 넣고 그것을 벚나무에 달아놓았다. 일은 내가 예  
측한 대로였다. 어미 방울새는 거침없이 애벌레를 부리에 가득 물고와서 새에게

먹었다. 나의 아버지는 멀리서 나처럼 재미있게 그들의 화사한 왕래를 지켜보았다. 피처럼 붉고 유황처럼 노란색의 비상(飛翔)을 지켜보았다.

어느 날 저녁, 나는 말했다.

—새끼들이 어지간히 성장했어요. 놓아주면 날아가 버릴 거예요. 그들이 가족적으로 보낼 수 있는 것도 오늘밤이 마지막이지요. 내일 저는 그것을 집에 가지고 와서 제방 창가에 매달아 두겠습니다. 세상에서 이 이상 더 소중히 다루어질 방울새는 없을 테니까 안심하세요.

아버지는 반대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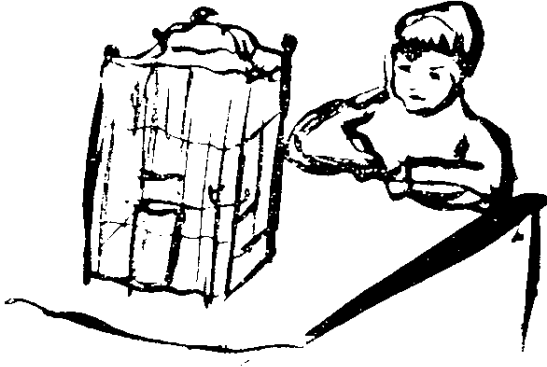
그 다음날, 나는 새장이 텅 빈 것을 발견했다. 아버지도 내가 놀란 것을 보고 있었다.

—호기심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나는 말했다. 어떤 열간이가 이 새장의 문을 열었는지 알고 싶군요!



## 새가 없는 새장



펠렉스는, 사람들이 새를 새장 속에 넣어두는 일 따위를 이해하지 못한다.

—역시 꽃을 판다는 것은 최악이야, 하고 그가 말한다. 나로 말하면, 즐기게 있는 꽃이 아니면 냄새 맡을 생각도 없지. 마찬가지로 새란 날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지. 그런 말을 하면서도 그는 새장을 하나 산다. 그는 그것을 창가에 걸어둔다. 새장 속에는 숨이랑 알곡이 들어 있는 접시랑 맑고 항상 갈아주는 물이 들어 있는 컵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 그에게 물어보면,

—나는 이 새장을 볼 때마다 자신의 관대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고 그는 말한다. 나는 이 새장 속에 새를 둘 수도 있지만 이렇게 비워둡니다. 내가 생각만 있다면, 말하자면 갈색의 지빠귀라든가, 팔짝팔짝 뛰는 맵시있는 파리새라든가, 기타 우리 고장의 여러가지 판 새를 잡아넣을 수 있지요. 그러나 내 덕택으로 적어도 그 중의 한 마리는 자유로운 몸일 수 있는 겹니다. 말하자면 그런 것이지요.

## 불닭



이것은 우리 마당에 사는 곱사등이 여자이다. 그녀는 자기가 곱사등이이기 때문에 재앙만 생각한다.

암탉들은 그녀에게 별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녀는 불안간 덤벼들어 암탉들을 귀찮게 한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머리를 숙이고 몸을 앞으로 내밀고서 그 말라빠진 두 다리로 맹렬하게 달려가 그 억센 부리로 둥글게 날개를 펼치고 있는 칠면조를 찍어댄다.

이 태깅스러운 칠면조가 그녀의 신경을 거스르는 것이다.

이처럼 머리를 파랑게 물들이고 콧수염을 꿈틀거리며 군인처럼 휘장을 날리고 아침부터 밤까지 노발대발하고 있다. 그녀는 까닭도 없이 싸움을 거는데, 아마도 항상 남이 자기의 몸매랑 대머리랑 밑에 달린 꼬리에 대하여 비웃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리고 그녀는 끊임없이 칼끝처럼 공기를 찌르는, 귀에 거슬리는 울음소리를 터뜨린다. 때로는 마당을 나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다. 덕분에 가금(家禽)들은 잠시나마 평화를 누리는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다시 돌아온다. 전보다 더 난폭하고 더 소란스럽다. 그리고 미친 듯이 땅바닥을 텅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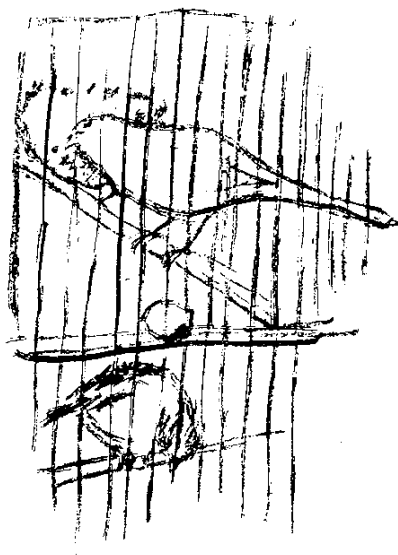
도대체 어쨌단 말인가?

이 엉큼한 친구가 연극을 꾸미는 것이다.



그녀는 들판에 나가서 알을 낳고 온 것이다.  
그것이 재미있다면 나는 가서 찾아올 수도 있다.  
그녀는 곱사등이처럼 먼지 속을 텅굴고 있다.

### 카나리아



무슨 생각으로 나는 이 새를 사 가지고 왔는가?  
새장수가 나에게 말했다. “이것은 수놈입니다. 한 주일만 기다리시면 길이 들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는 끝끝내 입을 열지 않고, 하는 짓마다 엉망이다.  
모이 그릇에 먹이를 넣어주면 부리로 찍어 사방으로 흐트러뜨리기만 한다. 비스킷  
을 새 창살에 끈으로 비끄러매어둔다. 그런데 이 녀석은 끈만 쪼아 먹는다. 그는  
마치 망치로 때리듯 비스킷을 밀고 찢고 한다. 그래서 그 비스킷은 떨어진다.

맑은 음료수 속에서 목욕을 하고, 목욕할 목욕탕에서 물을 마신다. 그리고 그때그때 편리한대로 그 두 곳 어디서나 똥을 쏜다.

비스킷 가루로 만든 반죽모이를 주면, 자기와 같은 종류의 새들이 집을 만드는 안성맞춤의 진흙으로 생각하고 본능적으로 그곳에 몸을 웅크린다.

그는 아직도 샐러드 잎의 효능(效能)을 모르고 있다. 그래서 장난삼아 발기발기 찢어놓기만 한다.

그가 진정으로 모이를 쪼아 삼키려 할 때면 정말 측은해진다. 그는 그 모이를 부리로 이리저리 굴리고, 밀어보고, 으깨보고, 마치 이빨이 없는 할아버지처럼 고개를 들어보기도 한다. 사탕조각을 넣어줘도 아무 소용없다. 튀어나온 것이 돌인가? 발코니인가? 그렇지 않으면 쓸모없는 테이블이란 말인가?

그는 그것보다도 나뭇조각이 더 좋다. 나뭇조각이 두 개 있어 서로 상하로 겹쳐있다. 그가 팔딱팔딱 뛰는 것을 보니 진저리가 난다. 그저 아무것도 필요 없는 패종시계의 추같이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어리석음일 뿐이다. 무엇이 재미나서 저렇게 나대고, 무슨 욕망으로 저렇게 강충강충 뛰는 것일까?

그 음울한 체조가 끝나서 쉴 때에도, 한쪽 다리로 앞을 막대기를 꼭 쥐고 다른 쪽 다리로는 바로 같은 막대기를 기계적으로 찾고 있다.

겨울이 되자 난로를 피우면 그는 봄의 털같이 시기가 온 줄 알고 성급하게 깃털을 벗기 시작한다.

나의 남폿불이 밤마다 그를 괴롭히고 그의 수면시간을 혼란케 한다. 그는 해 저물 무렵에 잠자리에 든다.

나는 그의 주위에 어둠이 점점 짙어져가게 버려둔다. 아마도 그가 꿈이라도 꾸는 것일까? 별안간 나는 남포를 새장에 가져간다. 그는 다시 눈을 뜬다. 아니! 벌써 해가 떴나? 그래서 그는 또 잼싸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춤추고, 채소 잎을 쪼아서 뚫어놓고 꼬리를 부채꼴로 펼치고 날개를 젓는다.

그러나 나는 남폿불을 흑 불어서 꺼버린다. 그래서 그가 어리둥절 하는 꼴을 볼 수 없어 유감스럽다.

머지않아 나는 항상 엉터리 짓만 하는 이 병어리 새에 정나미가 떨어져 창밖으로

놓아준다……그런데 그는 이미 새장 속에서의 자유밖에는 누릴 줄 모른다. 바로 누군가의 손에 잡히고 말 것이다.

그 누구도 그것을 나에게 되돌려 줄 생각은 마시도록.

나는 그 어떠한 보상도 지불할 용의가 없을 뿐더러 그 새를 전혀 모른다고 주장할 게다.

## 제비

그녀들은 나에게 하루하루의 일과를 준다.

그녀들은 지지배배 소리를 내며 공중에 점선을 그린다.

그녀들은 하나의 직선을 긋고, 그 마지막에 십표를 찍었나 하면, 별안간 줄을 바꾸어 긋는다.

터무니없이 큰 팔호를 그리어 내가 살고 있는 집을 그 속에 집어넣는다.

마당의 샘물도 그 나는 모습을 잡아서 비추지 못할 정도로 재빨라 그야말로 지하 창고에서 다락방까지 단숨에 올라간다.

날개의 깃털도 가볍게 그녀들은 빙글빙글 그 누구도 흉내 내지 못할 싸인을 후려 갈긴다.

그리고 나서 두 마리씩 얼싸안고 모두 한 데 모여 뒤섞여서 파란 하늘 위에 잉크의 얼룩이 지게 한다.

그러나 오직 한 친구의 눈만이 그녀들의 행방을 추적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희랍어랑 라틴어를 알고 있다면, 나는 굴뚝의 제비들이 공중에 그리는 히브리어를 읽어낼 수 있다 하겠다.

방울새—참, 제비란 바보란 말이야, 굴뚝을 나무로 알고 있으니 말이지.

박쥐—사람들이 뭐라 해도 그놈과 나는, 그놈쪽이 나보다 서투르게 날지. 대낮에도 항상 길을 잃으니 말이야. 나처럼 밤에라도 날아본다면 한시인들 죽고 못살지.



## 비둘기



그들이 집 위에서 분명치 않은 북소리를 내도,  
그들에서 나와 곤두박질을 하고 햇빛에 반짝이고 다시 그들로 돌아가도, 그들의  
차분하지 못한 목(首)이 손가락에 끼어 오팔(蛋白石)처럼 살았다 죽었다 해도,  
그들이 저녁에 숲 속에서 잠들어 떡갈나무 꼭대기 가지가 그 물든 열매의 무게로  
금시라도 부러질 것 같아도, 그 두 마리가 정신없이 서로 인사를 교환하고, 그리고  
별안간 서로 얽혀 경련을 일으킨다 해도,  
이쪽 한 마리가 타향 하늘에서 한 통의 편지를 가지고 와 마치 멀리 떨어져 있는  
여자 친구를 생각하는 것처럼 날아온다 해도 (아아, 이것이야말로 하나의 증거!),  
그 모든 비둘기들은 처음에는 재미있지만 마침내는 싫증이 난다.  
그들은 제자리에 가만히 있지 못할 것이며 아무리 타향살이를 해도 좀체로 구실을  
하지 못한다.  
그들은 평생 멍청함을 면치 못한다.  
그들은 주둥이로 새끼를 만든다고 끝끝내 믿고 있다.  
그리고 마침내 참을 수 없게 된다. 항상 목구멍에 무엇인지 걸린 듯한 조상 전래의  
괴벽을.

## 박쥐



밤(夜)도 사용하다 보면 낡아진다.

위쪽 별이 반짝이는 언저리는 낡지 않는다. 그 밤은 마치 땅바닥에 질질 끌리는 옷 자락처럼 조약돌과 나무 사이에서 위험한 터널이나 질퍽질퍽한 지하창고 속에서 까지 낡아진다.

밤의 옷자락이 기어들지 않는 곳이라고는 없다. 짙레나무 가시에 긁혀 찢어지고 추위를 만나 살이 트고 진흙이 튀어 더럽혀진다. 그래서 아침마다 밤의 장막이 걷히면 누더기가 너털너털 떨어져 여기저기 되는 대로 걸린다.

이리하여 박쥐가 태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태생이 그렇기 때문에 박쥐들은 낮의 햇빛에는 견디지 못한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 우리들이 시원한 바람을 쐬러 나갈 때면 그녀들은 혼수상태로 한쪽 발톱 끝으로 매달려 있던 낡은 대들보에서 떨어져 나간다. 그녀들이 서투르게 나는 것을 보면 아슬아슬하게 느껴진다. 그래 뼈가 들어 있는 털 없는 날개로 우리들 주위를 파닥거린다. 그녀들은 쓸모없는 상처 난 눈보다 차라리 귀를 가지고 나는 것이다.

나의 여자친구는 얼굴을 가린다. 나도 또한 나대로 불결한 것에 부딪칠까봐 고개

를 돌린다.

사람들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그녀들은 우리 인간의 사랑보다 더 열렬하게 우리들의 피를 빨아 마침내는 죽게 한다는 것이다.

터무니없는 말이다!

그녀들은 고약하지 않다. 우리들 몸에는 결코 닿지 않는다.

밤의 딸인 그녀들은 빛만을 싫어할 뿐이다. 그리고 그 자그마한 장례식용의 솔로슬쩍 스치면서 촛불을 찾아내어 불어 꺼버리는 것이다.

### 할미새

잘도 날지만 잘도 달린다. 언제나 우리들 다리 사이에서 친근하게 굴지만 여간해서 잡히지 않는다. 낮은 소리로 울면서 자기 꼬리를 밟으려면 밟아 보라는 듯하다.

### 까치



그녀의 날개에는 언제나 지난해의 잔설(殘雪)이 남아 있다.

그녀는 두 다리를 모아 땅바닥을 짹짹뛰어다니다가는 곧고 기계적인 비상으

로 나무를 향하여 날아간다.

가끔 그 나무에 앉지 못하고 옆 나무에 가서 멈춘다.

범속하고 알아보기 때문에 불사조(不死鳥) 같기도 한 그녀는 아침부터 야회복을 입고 저녁때까지 수다를 떨며, 그 연미복을 입고서 참지 못하는 이 새는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프랑스적인 새이다.

까치 —까까까까까.

개구리 —무어라 조잘대지? 저 계집이.

까치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하고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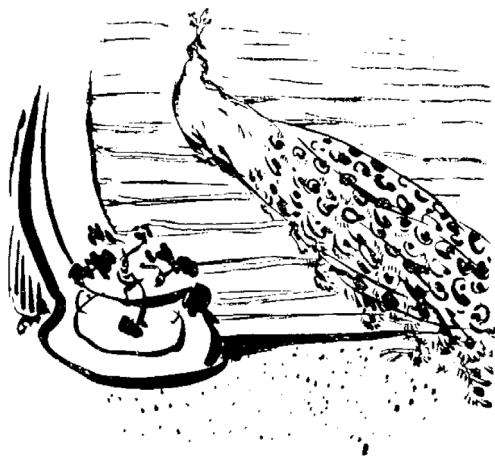
개꾸리 —꾸악(헛!!)

두더지 —입 다물어, 저 위에 있는 녀석. 일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나!





## 공작새



오늘이야말로 틀림없이 결혼하게 될 거다.

사실인즉 어제 했어야 했지만, 그는 정장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신부만 오면 됐었다. 그러나 신부는 오지 않았다. 곧 올 게다.

의기양양하게 인도의 왕자 같은 걸음걸이로 그는 언저리를 산책한다. 신부에게 줄 선물들은 몸에 꼭 지니고 있다. 사랑하는 마음이 그의 색채를 활활 타오르게 하고 몸의 깃 장식은 칠현금(七絃琴)처럼 떨린다.

신부가 오지 않는다.

그는 지붕 꼭대기에 올라 해가 있는 쪽을 바라본다.

그는 악마의 외침을 던진다.

레옹! 레옹!

이처럼 신부를 부른다. 아무것도 오지 않으며 그 누구도 대답이 없다. 마당의 닭들도 이제 익숙해져서 머리조차 들지 않는다. 그렇게 언제까지 공작새를 보고 감탄만하고 있을 수는 없다. 그는 마당으로 내려온다. 그 누구도 원망할 수 없다. 그만 큼 그는 자신의 아름다움에 자신이 있다.

결혼식은 내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몰라 그저 층계를 향하여 걸어간다. 큰 사원의 계단을 오르듯, 한 단 한 단 공식적인 걸음걸이로 올라간다.

그는 긴 옷자락을 걷어 올린다. 그 옷자락은 많은 눈초리가 뚫어지게 바라보기 때문에 아주 무겁기만 하다.

그는 다시 한 번 결혼식의 예행연습을 한다.

### 티티새

나의 뜰에 거의 다 죽어가는 한 그루의 오래된 호두나무가 있는데, 작은 새들은 두려운 생각이 드는지 가까이 하지 않는다. 다만 검은 새 한 마리가 그 마지막 나뭇잎 사이에 살고 있다. 그러나 그 뜰의 나머지 부분은 꽃이 핀 나무들로 가득 차 있어서 쾌활하고 생기 있는 가지각색의 새들이 집을 짓고 있다.

그리고 이 어린 나무들은 그 해묵은 호두나무를 비웃고 있는 것 같다. 언제나 그들은 해묵은 호두나무에게 마치 짓궂은 말을 퍼붓는 수다쟁이처럼 새 떼들을 쏘아 던진다. 참새, 찌르레기, 깨새, 방울새, 차례차례 그를 귀찮게 군다. 그들은 날개로 그의 가지 끝을 쫓는다. 언저리 공기는 그들의 간드러진 재잘거리는 소리로 콩 볶는 것 같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퇴각한다. 그러면 또 다른 집단이 어린 나무에서 나와 그를 괴롭히는 것이다.

이 집단은 말할 수 없이 업신여기고 재잘거리고 울어대고 목청을 높인다.

이처럼 새벽부터 해가 질 무렵까지 놀려대는 양 방울새랑, 깨새랑, 찌르레기랑, 참새 등이 그 해묵은 호두나무를 향하여 어린 나무에서 튀어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가끔 호두나무도 참을 수가 없어 그의 마지막 나뭇잎을 흔들어 그 검은 새들을 쫓아버리고 이렇게 대꾸한다.

티티새 놈!

어치새 —항상 검은 옷차림의 야비한 티티새 놈!

티티새 — 군수(郡守)님 입을 옷이 이것밖에 없어요.



### 종달새

나는 한 번도 종달새를 본 일이 없다. 날이 새자마자 일어나도 허사이다. 종달새는 지상의 새가 아니다.

아침부터 나는 흙덩어리랑 마른 풀을 짓밟고 돌아다니고 있다.

회색의 참새랑 생생한 빛깔을 칠한 듯한 방울새들이 떼를 지어 가시덤불 울타리에 서 물결치고 있다.

어치새는 정복 차림으로 나무에서 나무로 열병(閱兵)을 하고 있다.

매추라기가 한 마리 개자리(식물이름) 받을 살살 스쳐 먹줄을 굿듯 직선을 그리며 날아간다.

여자보다도 뜨개질을 더 잘하는 목동 뒤에는 양 떼가 뒤따르고 있는데, 어느 것을 보아도 그놈이 그놈이다.

그리고 좋은 징조라고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는 까마귀조차 미소를 짓게 할 정도로 모든 것이 신선한 광채 속에 젖어 있다.

나처럼 귀를 기울여 잘 들어 보시오. 저기 들리지 않소? 어딘지 저 높이 금잔 속에서 수정 조각을 뿜는 소리가? 종달새가 어디서 지저귀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이 그 누구란 말인가?

허공을 바라볼라치면 햇빛이 눈을 태운다.

종달새 찾기를 단념해야겠다.

종달새는 하늘에서 산다. 그리고 하늘에 사는 새 중에서 이 새만이 우리 귀에까지 들리는 소리로 노래하는 것이다.

### 피꼬리

나는 그에게 말한다.

—자 그 버찌를 돌려다오 지금 당장에.

—좋아, 하고 피꼬리가 대답한다.

그는 버찌를 돌려준다. 그런데 그 버찌와 더불어 그가 1년간 삼킨 3만 마리 해충의 애벌레도 함께 돌려주는 것이다.

백조



그는 연못 위를 구름에서 구름으로 가는 흰 썰매처럼 미끄러져 간다. 왜냐하면, 그는 물속에서 생기고 움직이고 사라지는 솜털 구름에만 식욕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가 원하는 것은 그 구름 한 조각이다. 그는 부리로 겨냥하여 눈의 옷을 입은 그 목을 갑자기 물에 담근다.

그리고 나서 여자의 팔이 소맷자락에서 나오듯 그는 목을 다시 쑥 내민다.

아무 것도 잡지 못한다.

그는 바라본다. 구름은 놀라서 사라졌다.

미몽(迷夢)은 단숨에 깨어난다. 왜냐하면, 구름은 지체 없이 되살아나 저 멀리 수면의 물결이 사라져가는 언저리에서 또 하나의 구름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가벼운 털방석을 타고 백조는 조용히 노를 저어 다간다…….

그는 물에 비치는 허무한 그림자를 쫓다 지쳐, 구름 한쪽을 잡기도 전에 아마도 그 망상의 희생물이 되어 죽어버릴 것이다.

하지만 내 무슨 말을 하고 있지?

그는 잠수할 때마다 부리 끝으로 양분이 있는 진창 밑바닥을 쑤서 벌레 한 마리를 물어낸다.

그는 거위처럼 살찐다.



## 물총새



오늘 저녁에는 고기가 잡히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희귀한 흥분(興奮)을 잡아가지고 왔다.

내가 낚싯대를 드리우고 있자니까 물총새 한 마리가 그 위에 와서 앉았다.

이처럼 화사한 새도 없다.

그것은 마치 파란색의 큰 꽃이 긴 줄기 끝에 피어있는 것 같았다. 낚싯대는 그 무게로 축 늘어졌다. 나는 물총새가 나무로 알고 와서 앉았다는 것이 아주 자랑스러워서 숨을 죽였다. 그놈이 겁이 나서 날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장담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나뭇가지에서 탄 가지로 날아갈 셈이었음에 틀림없다.

## 모래무지

그는 빠른 물살을 거슬러 올라 조약돌 길을 따라간다. 그는 진흙도 수초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시냇물 밑 모래 바닥 위에 뒹굴고 있는 병 하나를 본다. 그 속에는 물만 가득 들어 있을 뿐이다. 나는 일부러 그 속에 미끼를 넣어두지 않았던 것이다. 모래무지는 그 돌레를 뱅뱅 돌면서 들어갈 구멍을 찾더니 드디어 걸려들었다.

나는 병을 꺼내어 그놈을 다시 놓아준다.

시냇물을 더 거슬러 올라가니 무슨 소리가 들린다. 그는 도망치기는커녕 호기심에 서 다가온다. 내가 재미로 걸어 다니면서 그물을 친 언저리의 물속을 장대로 휘젓기 때문이다.

모래무지는 고집불통으로 끝끝내 그물눈을 뚫고 나가려 든다. 그래서 걸리고 만다.

나는 그물을 올려 모래무지를 다시 놓아준다.

하류에서 갑자기 내 낚싯줄을 팽팽히 당기더니 두 가지 색의 찌가 수면을 달린다. 끌어당겨 보니 역시 그놈이다.

나는 낚시 바늘에서 그놈을 때어내어 다시 놓아준다.

이제 그놈은 걸리지 않겠지!

그는 바로 내 발밑 맑은 물속에 꼼짝않고 있다. 그 납작한 대머리랑 우둔하고 큰 눈이랑 두 개의 수염이 흰히 보인다.

그는 찢어진 아가리로 하품을 한다. 그리고 방금 전의 심한 흥분으로 아직 숨결이 거세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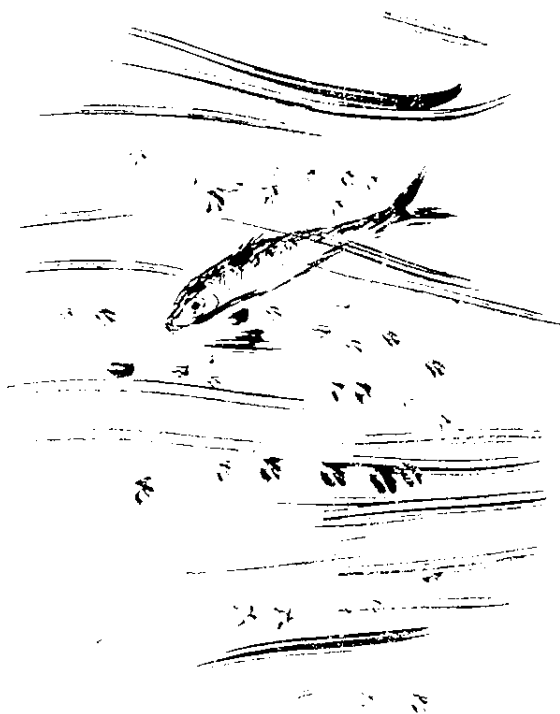
나는 끼여 있던 지렁이를 그대로 달아둔 채 또다시 낚싯줄을 담근다.

금세 모래무지가 달라붙는다.

우리들 중에서 누가 먼저 손을 들 것인가?



이제 그들은 결정적으로 먹을 생각이 없다. 오늘이 고기잡이 해금일(解禁日)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모양이다.



고래

코르셋을 만들 만한 것은 입에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허리둘레로서는…….

## 개



이런 날씨라면 프앵튀를 밖에 내놓을 수는 없다. 문 밑에서 날카로운 바람소리가 들려오니 그는 현관 신발이 있는 곳에서도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더 좋은 자리를 찾아 의자 사이에 그 머리를 비비고 들어온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팔꿈치를 맞대고 착 붙어서 불 위에 몸을 구부리고 있다. 그리고 나는 프앵튀를 한 번 찰싹 때려준다. 아버지는 발로 그놈을 밀어낸다. 어머니는 야단을 치고, 누나는 빈 컵을 그의 코에 내민다.

프앵튀는 재채기를 하고 나서 부엌에 누가 있나 가본다.

그러더니 되돌아와서 무릎 사이에 목이 졸려 죽을 각오를 하고 굳이 뺨 둘러앉은 우리들을 파헤치고 기어이 벽로 한 모퉁이에 도달한다.

그곳에서 한참 꾸물거리더니 마침내 장작 받침쇠 옆에 앉아 꼼짝 않는다. 그는 주인들의 얼굴을 바라본다. 그 눈초리가 어찌나 상냥한지 이쪽도 별수 없게 된다. 다만 거의 빨강게 달아오른 장작 받침쇠와 곱어 모아놓은 재가 그 꼬리를 눈게 한다.

그래도 그는 그대로 있다.

모두들 그에게 길을 내준다.

—자, 가라! 에이 바보야!

그러나 그는 완강하다. 들개들이 추워서 이를 덜덜 떨 때 프앵튀는 따뜻한 곳에서 털을 논게 하고 궁둥이를 지지면서, 한바탕 짖어대고 싶은 것을 참고 눈에는 눈물을 가득히 머금고 억지웃음을 꾸미는 것이다.

### 고양이



내 고양이는 쥐를 먹지 않는다. 그는 그런 짓을 좋아하지 않는다. 잡아도 가지고 놀 뿐이다.

실컷 놀고 나면 목숨만은 살려준다. 그리고 그는 어딘가 가서 둥글게 틀은 꼬리 위에 앉아 주먹처럼 뾰족한 머리로 몽상에 잠긴다.

그러나 손톱에 핏줄이 들어 있어 쥐는 죽어버린다.

벼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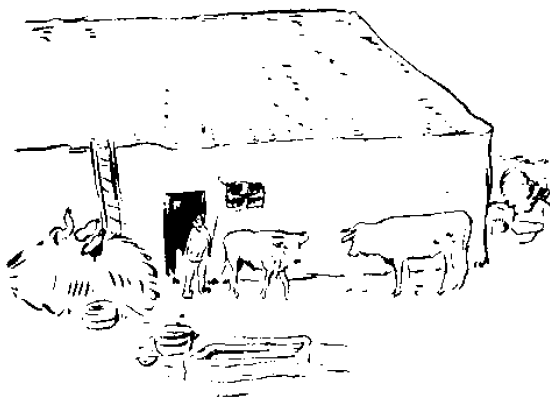
용수철 장치가 있는 담뱃가루.

## 다람쥐



깃털장식! 깃털장식! 그렇다, 틀림없이 그거다. 그러나 여보게, 그것은 그런 곳에  
다는 게 아니야.

## 소



오늘 아침에도 여느 때처럼 문이 열리자 카스토르는 별로 비틀거리지도 않고 외양간을 나간다. 그는 물통 바닥에 남아 있는 자기 몫의 물을 꿀꺽꿀꺽 마신 뒤, 나중에 오는 폴릭스의 것은 남겨둔다. 그러고 나서 소나기 온 뒤의 나무처럼, 콧물을 줄줄 흘리면서 질서정연하게 느릿느릿 자진하여 여느 때의 자리로 가서 마차 멍에 밑으로 몸을 집어넣는다.

빨은 묶인 채 머리는 움직이지도 않고, 그는 뺏가죽에 주름을 잡고 꼬리로 힘없이 검은 파리를 쫓으면서, 식모가 빗자루를 든 채로 졸고 있는 것처럼, 폴릭스가 올 때까지 되새김질을 한다.

그런데 뜰에서는 하인들이 분주하게 소리치고 욕설을 퍼붓는데, 개는 또한 낯선 사람이라도 온 것처럼 짖어댄다.

오늘은 처음으로 소몰이 막대에 거역하여 어정대며 카스토르의 옆구리에 부딪치기도 하고, 마차에 매이기는 했지만 열심히 그들 공동의 멍에를 흔들어 댄다. 이것이 그 암전한 폴릭스란 말인가?

아니다. 확실히 판 놈이다.

카스토르는 짹을 잃고 턱 움직이기를 멈춘다. 그러면 그때 자기의 눈언저리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소의 흐린 눈이 보이는 것이다.

저물어가는 햇빛을 받아 소 떼는 목장 안을, 느릿느릿 그들의 그림자의 가벼운 쇠스랑을 끌고 간다.

## 물의 말파리

목장 한복판엔 떡갈나무가 한 그루 밖에 없다. 소 떼들이 그 나무 그늘을 몽땅 차지하고 있다.

머리를 숙이고 그들은 해를 향하여 뿔을 내밀고 있다.

말파리만 없다면 기분이 좋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은 정말 말파리들이 극성스럽게 물어뜯는다. 탐욕스럽게 무수히 떼지어 이 검은 놈들은 그을음판(墨板)처럼 눈에, 콧구멍에, 입술가에 달라붙고, 파란 놈들은 최근에 다친 찰과상을 즐겨 빨아먹는다.

한 마리의 소가 가죽 흠 받이를 흔들든가, 마른 땅을 발굽으로 차거나 하면, 말파리들이 구름같이 떼를 지어 웅웅 거리며 자리를 바꾼다. 말파리들이 술렁이는 것 같다.

어찌나 무더운지 할머니들이 문턱에서 비바람의 냄새를 맡으면서 걱정스레 농담을 한다.

—우르릉 씨(천둥)를 조심해! 하고 그녀들이 말한다.

저쪽에서 최초의 번갯불이 소리도 없이 하늘을 찌른다. 빗방울 하나가 떨어진다.

소들도 그것을 알고, 머리를 쳐들고 떡갈나무 기슭까지 이동하여 참을성 있게 숨을 내뿜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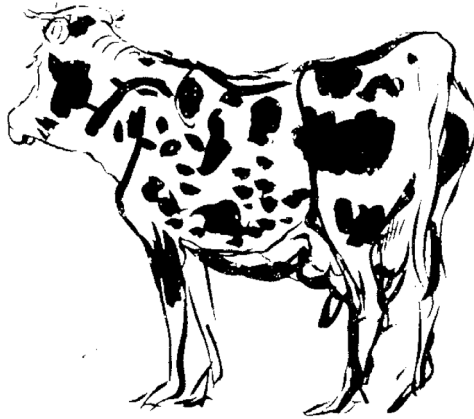
그들은 알고 있다. 즉 이제 착한 말파리들이 와서 고약한 말파리들을 쫓아 줄게다. 처음에는 사이를 두고 한 마리씩, 다음에는 뺨뺨이 전부 한 덩어리가 되어 들쭉날쭉한 하늘에서 한쪽이 무너지면 적(敵)은 차츰 멈칫거리다가 흩어져 사라져 버린다.

머지않아 그 납작코에서 해질 줄 모르는 꼬리에 이르기까지, 소들은 물의 말파리 떼들의 의기양양한 무리 밑에서 온통 물에 젖어 어쩔 줄 모르고 몸을 꿈틀거린다.





## 암소



이름을 찾기에 지쳐 마침내 그녀에게 아무런 이름도 지어주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암소라고만 한다. 그리고 이 이름이 그녀에게는 가장 어울리는 것이다. 게다가 먹기만 하면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그런데 싱싱한 풀이건 마른 풀이건 야채건 곡식이건, 빵이나 소금에 이르기까지, 그 무엇이건 마음대로 먹는다. 더웁이 언제나 두 번씩 먹으니 말이다.  
그녀가 나를 보자 가벼운 중중걸음으로 짜개진 나막신을 끌고 흰 양말을 신은 것 같은 발의 피부를 하고, 내가 먹을 것을 가지고 온 줄 알고 틀림없이 다가온다. 그래서 그때마다 나는 그녀에게 감탄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자, 먹어라!”  
그러나 그녀가 먹는 것은, 기쁨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모두 우유가 되는 것이다. 정한 시각에, 그녀의 젖통이 가득 차서, 네모꼴이 된다. 그녀는 젖을 아까워 하지 않는다 — 때로는 젖을 아까워 하는 암소도 있다. 고무처럼 탄력있는 네 개의 젖꼭지에서 조금만 눌러도 젖이 쏟아져 나온다. 그녀는 발도 꼬리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 거창하고 보드라운 혀로 즐겁게 하녀의 등을 핥는다.  
홀어미 살림이기는 하지만, 그녀는 식욕이 왕성하여 쓸쓸하지는 않다. 얼마 전에 해산한 새끼 송아지를 막연히 생각하고 자식 그리움에 우는 일도 드물다. 그녀는

사람이 찾아주는 것을 기뻐한다. 이마 위에 뺨을 볼썽 चु켜들고 입술에는 한 줄기 침과 풀 한 오라기를 늘어뜨리고 입맛을 다시며 상냥스럽게 누구든지 맞아준다. 남자들은 무서울 것이 없으니, 터질 듯 한 그녀의 배를 어루만진다. 여자들은 이렇게 큰 짐승이 너무도 순한 데에 놀라면서 이제 두려울 것 없이 다만 그녀가 활을까 봐 비키면서 행복한 꿈을 그리는 것이다.

그녀는 내가 두 개의 뺨 사이를 긁어주면 좋아한다. 내가 좀 뒷걸음질을 치는 것은, 그녀가 기분이 좋아 자꾸만 달려들기 때문이다. 이 덩저리 크고 순한 짐승은 내가 쇠뿔을 뺨을 때까지 내가 하는 대로 몸을 내맡기는 것이다.

## 말

나의 말은 결코 아름답지 못하다. 그는 너무도 흑 같은 것이 많으며, 눈 위가 폭 파이고 늑골이 납작하며 쥐 같은 꼬리에 영국 여자 같은 송곳니를 하고 있다. 하지만 그를 보면 측은한 마음이 든다. 언제까지나 나를 섬기면서 전혀 반항하지 않으며 묵묵히 끌려 다니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알 수 없다.

그에게 수레를 달 때마다 나는 금세라도 그가 몸을 내저으며 싫어하고 도망칠 것만 같다.

그러나 천만의 말이다. 그는 납덩어리 모자라도 쓰는 것처럼, 그 커다란 머리를 내렸다 올렸다 하면서 온순하게 뒷걸음질을 쳐 채 사이로 들어간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연맥이건 옥수수건 아끼지 않고 준다. 나는 그의 털이 버찌처럼 반짝반짝 할 때까지 술질을 해 준다. 갈기도 빗겨주고 가느다란 꼬리를 뺏아 준다. 나는 또한 손으로 목소리도 그를 귀여워해 준다. 눈을 해면으로 닦아주고 발에 초칠을 해 준다.

그가 기뻐할까?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는 방귀를 뀜다.

내가 그에게 탄복하는 것은 특히 마차를 타고 산책할 때이다. 내가 채찍질을 하면 그는 발걸음을 재촉한다. 내가 그를 멈추게 하면 지체 없이 멈춘다. 내가 왼쪽 고삐를 당기면 왼쪽으로 돈다. 일부러 오른쪽으로 도는 일은 없다. 또한 나를 발굽으로 차서 어딘가 구렁에 빠지게 하는 일도 없다.

나는 그가 두렵기도 하고, 내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고, 또 그가 불쌍해지기도 한다.

그가 미구에 반수상태(半睡狀態)에서 깨어나지나 않을까? 그리고는 제멋대로 나의 지위를 약탈하여, 나를 거꾸로 자기 위치로 떨어뜨리지나 않을까?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는 방귀를 뀜다. 방귀를 뀜다. 방귀를 뀜다.



## 브뤼네트의 죽음

나를 깨우러 온 필립이 말하기를, 밤중에 일어나서 귀를 기울이니 그녀의 숨결이 조용하더라는 것이다.

하지만 아침부터 그녀가 걱정이 된다. 그는 건초를 주어도 먹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에는 싱싱한 목초를 좀 주어보았지만, 브뤼네트가 평상시에는 무척이나 좋아하는 것인데 바라보지도 않는다. 그녀는 새끼 송아지도 돌보지 않는다. 그리고 송아지가 젖을 빨려고 뺨뺨한 다리로 일어설 때 그 콧잔등이에 밀려 비틀거린다.

필립은 그들을 따로 떼어내서 송아지를 어미에게서 멀리 매달아 둔다. 브뤼네트는 그것조차 깨닫지 못하는 모양이다.

필립의 걱정은 우리 전체에까지 미쳐서 아이들까지도 일어나려 한다.

수의사가 와서 브뤼네트를 진찰하고는 외양간에서 끌어낸다. 그녀는 벽에 부딪쳐 문턱에서 비틀거린다. 넘어질 것만 같아 외양간에 다시 집어넣어야 한다.

—몹시 중태인데요. 하고 수의사가 말한다.

우리는 무슨 병인가 물어볼 용기가 없다.

수의사는 산욕열(産褥熱)일까봐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이 병은 흔히 목숨을 앗아가는 병으로 특히 젖소일 경우 그러하다. 그리고 이미 죽으리라고 단념했던 암소들을 자기가 살려낸 기억을 더듬어 말하면서, 그는 병 속의 액체를 브뤼네트의 허리 언저리에 붓으로 발라 준다.

—이것은 발포약(發泡藥) 같은 작용을 합니다. 하고 그는 말한다. 이 약의 정확한 배합은 모르지만 파리에서 가져옵니다. 이 병이, 뇌만 다치지 않는다면 저절로 나을 것입니다. 만일 좋지 못할 것 같으면 냉수요법을 써보겠습니다. 이런 것을 하면 순박한 시골 사람들은 놀라겠지만, 당신이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해보세요, 선생님.

브뤼네트는 밀짚 위에 누워서 그래도 아직 머리의 무게만은 버티고 있다. 그는 새 김질하기를 멈춘다. 숨을 죽이고 자신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다 더 잘 판별하려는 듯하다.

모포로 몸을 싸준다. 뿔과 귀가 점점 식어가기 때문이다.

—귀가 늘어질 때까지는 아직 희망이 있으니까 하고 필립이 말한다.

두 번이나 그녀는 일어서 보려고 했지만 허사이다. 숨결이 거칠어지고 점점 그 간격이 벌어진다.

마침내 왼쪽 허리에 목이 툭 떨어진다.

—난처해진걸, 하고 필립이 웅크린 채 말하면서 조용히 중얼거린다.

머리를 다시 한 번 일으키더니 또 다시 구유통 가에 늘어뜨린다. 그것이 너무나 철썩 떨어져서 둔하게 부딪치는 소리에 나는 “아!” 하고 소리친다.

우리는 브뤼네트가 늘어지지 않도록 그 주위에 밀짚을 쌓아올린다.

그녀는 목과 다리를 쭉 뻗고 있다. 그녀는 목장에서 폭풍우가 몰아칠 때처럼 넓죽 늘어져 있다.

수의사는 마침내 피를 뽑아내기로 작정한다. 그가 되도록 접근하지 않는 것은, 숨 쉴 수 없는 남 못지 않지만 좀 겁쟁이이기 때문이다.

처음에 나무망치로 툭툭 치고 나니 평침(平針)이 혈관 위에서 미끌어진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찌르니 피가 즉석 물통 속에 용솟음쳐 흘러 들어간다. 이 물통은 어느 때 같으면 우유로 가득 차 있다.

피를 멈추게 하기 위하여 수의사는 혈관에 강철 바늘을 집어넣는다.

그리고 나서 좀 가벼워진 듯 한 브뤼네트의 이마에서 꼬리까지 우물물로 적신 수건을 대고 그것을 계속 바꾸어 준다. 바로 더워지기 때문이다. 그녀는 떨지도 않는다. 필립은 뿔을 꼭 쥐고 머리가 왼쪽 허리에 부딪치지 않도록 해 준다.

브뤼네트는 몸을 내맡긴 듯 이제 꼼짝 않는다. 좀 좋아졌는지, 아니면 더 나빠졌는지조차 알 길이 없다.

우리는 서글퍼진다. 그러나 필립의 슬픔은 동료 한 마리가 괴로워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동물의 그것처럼 침통하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아침 수프를 가지고 온다. 그는 의자에 앉은 채 별로 식욕도 없이 먹어보지만 다 먹지는 못한다.

—다 됐군, 하고 그가 말한다. 브뤼네트의 몸이 부어오르니 말이야!

처음에 우리는 설마 했으나 그러나 필립이 말한 것은 참말이었다. 그녀의 몸은 눈에 띄게 부풀어 올라 좀체 가라앉지 않아서, 마치 속에 들어간 공기가 그대로 빠지지 않는 것 같다.

필립의 아내가 물어본다.

—죽었나요?

—보지 마오! 하고 필립이 거칠게 말한다.

필립의 부인이 뜰로 나간다.

—그렇게 바로 탄 놈을 구하러 가지는 않겠어, 하고 필립이 말한다.

—탄 놈이라뇨?

—브뤼네트의 대신 말이야.

—내가 가라고 할 때 가오, 하고 나는 내가 생각해도 놀랄 정도로 주인다운 목소리로 말한다.

우리는 이 사건이 서글프다기보다 화가 난다고 애써 생각해 본다. 그리고 이미 브뤼네트가 죽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저녁때 나는 교회의 종 치는 사람을 만났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그에게 말하는 것을 어찌서 그만두었는지 알지 못한다.

—자, 100수우를 드리지. 조종(弔鐘)을 쳐 주시오. 우리 집에 초상이 났다고 말이오.



## 황소

낙시꾼이 발걸음도 가볍게 온 강가를 걸어가면서 똥파리를 물 위에 핑핑 뛰게 한다. 또 파리는 포플러나무에서 잡는데, 이 나무는 매놓은 가축들이 하도 비벼대서 반들반들하다.

그는 덤덤하게 낙시줄을 던졌다가 다시 천천히 잡아끈다.

그는 자리를 옮길 때마다 그곳이 제일 좋은 자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곧 그곳을 떠나 울타리를 넘어, 이 목장에서 저 목장으로 자리를 바꾼다.

그는 태양이 뜨겁게 타오르는 넓은 목장을 질러가다가 느닷없이 걸음을 멈춘다.

저기 암소들이 평화롭게 누워 있는 한복판에서 황소가 느릿느릿 일어선다.

이 황소는 유명한 놈으로 그 엄청난 몸집에 길 가는 사람들도 놀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저 멀리서 그놈에게 감탄할 뿐이다. 그리고 이제껏 그런 일은 없었지만 그럴 생각만 있다면, 목동쯤이야 그 활 같은 뿔로 화살이라도 날리듯 공중에 붕 날려 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어느 때는 그야말로 양 새끼처럼 순하지만, 어쩌다가 별안간 날뛰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를 일이다.

낙시꾼은 겹눈질로 그를 관찰한다. 도망친다 해도 목장 밖에 나가기도 전에 그 황소는 나를 앞지를 게다, 하고 그는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헤엄칠 줄도 모르면서 강물 속에 뛰어들면 빠져 죽을 것이고 땅바닥에 누워 죽은 채하면 황소가 냄새만 맡아보고 건드리지 않을지도 모른다. 정말 그럴까? 혹 그놈이 언제까지나 떠나지 않는다면 그 얼마나 괴로울까! 그것보다는 모르는 채하고 지나치는 것이 더 나을 게다.

그래서 낙시꾼은 황소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낙시줄을 계속한다. 이처럼 해서 그는 모면하려는 속셈이다.

밀짚모자를 쓰고 있는 그는 목이 타는 듯하다.

그는 달리고 싶은 다리를 꼭 억누르고 있다. 그리고 천천히 풀밭을 밟고 간다. 그는 의연히 똥파리를 물속에 던져 넣는다. 그는 숨으려야 포플러 그늘밖엔 아무것도 없다. 그는 천천히 울타리에 걸어 놓은 사다리에 다다른다. 여기까지 오면 숨쳐

럼 기진맥진한 사지에 최후의 힘을 내어 무사하게 목장을 빠져나간다.

게다가 뭐 급할 게 있나?

황소는 그에게는 관심도 없다. 암소 곁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가 일어난 것은 기지개를 켜느라고 그저 움직여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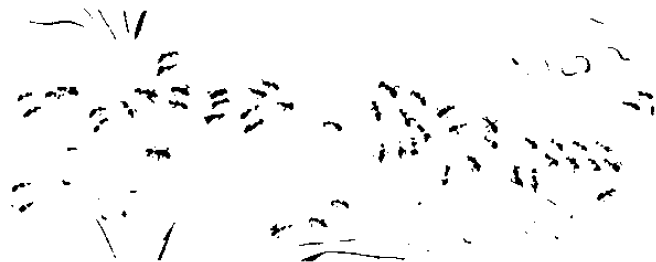
그는 곱슬머리를 저녁 바람에 돌린다. 눈을 반쯤 감고 때때로 머엉 하고 운다. 그는 무기력하게 한 번 울고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여자들은 이마 위의 곱슬털로 그것이 황소라는 것을 알아본다.





## 개미



그 한 마리 한 마리가 3자를 담았다.

그리고 많기도! 많기도!

끝없이 333333333333……이다.

## 개미와 자고새 새끼

한 마리의 개미가 비온 뒤의 바퀴 자국에 빠져 죽으려고 한다. 그때 자고새 새끼 한 마리가 물을 마시다가 부리로 그것을 쪼아 살려낸다.

—은혜는 꼭 갚겠어요, 하고 개미가 말한다.

—우리는 라 폰테느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하고 회의주의자인 자고새 새끼가 대답한다. 하지만 나를 쪼아 죽이려고 하는 사냥꾼의 발뒤꿈치를 어떻게 물어뜯겠다는 것이지! 요즘의 사냥꾼은 맨발로 다니지 않는데 말이오.

개미는 필요 없는 논쟁을 하지 않고, 같은 길을 가던 동료들에게 서둘러 뒤따라간다. 그런데 개미들은 검은 진주를 늘어놓은 것 같다.

사냥꾼은 멀리 있지 않다.

그는 마침 나무 그늘 아래 옆으로 누워 쉬고 있었다. 그는 자고새 새끼가, 그루터

기가 늘어서 있는 보리밭을 질러 기어 다니면서 난알을 찍어먹는 것을 본다. 그는 벌떡 일어서서 그것을 쏘려 한다. 그러나 오른팔이 개미가 물어뜯어 저려서 팔을 올릴 수 없다. 팔이 축 늘어진다. 개미는 저런 것이 풀릴 때까지 기다리지는 않는다.

## 당나귀

어떤 일에도 그는 상관없이 없다. 아침마다 그는 하급 공무원의 종종걸음으로 편지 배달부 자코를 태우고 간다. 이 자코는 도회지에서 부탁받은 심부름이랑, 향료랑, 빵이랑, 푸줏간의 고기랑 몇몇 신문, 편지 한 통을 마을에 배달해 준다.

그런 하루가 끝나면 자코와 당나귀는 자신의 일을 한다. 마차는 짐수레 대신도 된다. 그들은 함께 포도밭이랑, 숲이랑, 감자밭에 나간다. 때로는 채소를, 때로는 파란 발레(채소의 일종)등 그날에 따라 이것저것을 싣고 돌아온다.

자코는 쉴 새 없이 이렇게 말한다. “이랴! 이랴!” 마치 코를 고는 것 같다. 가끔 당나귀는 엉덩귀 냄새를 맡느라고 또는 무슨 생각이 나면 꼼짝 않고 걸으려 들지 않는다. 자코는 그의 목을 잡고 앞으로 밀어젖힌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자코는 그의 귀를 물어뜯는다.

그들은 도랑 속에서 밥을 먹는다. 주인은 빵 껍질과 양파를 먹고 당나귀는 마음 내키는 대로 아무거나 먹는다.

그들은 밤이 되어야만 돌아간다. 그들의 그림자가 나무에서 나무로 느릿느릿 지나간다.

별안간 모든 것이 그 밑에 가라앉아 잠든 적막한 호수가 화닥닥 무너진다.

도대체 어느 주부가 이 시각에 녹이 난 권양기(捲揚機)를 드르려거리며 소란스럽게 우물물을 길어 올리는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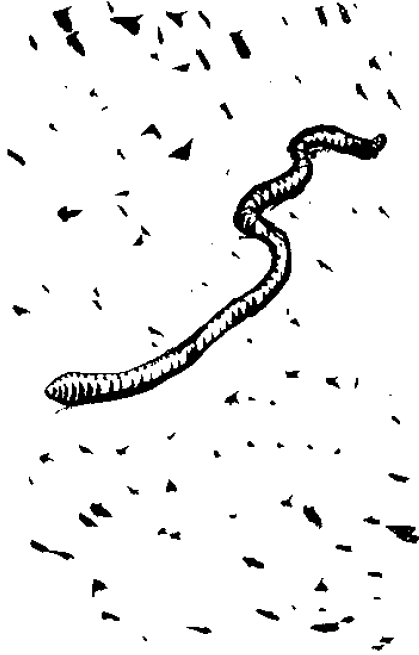
그것은 당나귀가 돌아오면서 가진 목청을 다 하여 될 대로 되라, 될 대로 되라, 하며 울어대는 것이다.

당나귀

어른이 된 토끼이다.



## 지렁이



그놈이 늘어져서 길게 뻗쳐 있다. 마치 먹음직한 국수 가락처럼.

뱀



너무나 길구나.

살무사

누구의 배(腹)에서 떨어졌나, 이 복통(腹痛)은?

## 돼지

꿀꿀 투덜대면서, 하지만 우리 모두 함께 너를 보살펴 준 양, 너는 아무 데나 코를  
쑤서 넣고 밭과 함께 코로 걸어간다. 무우 잎사귀 모양의 귀 밑에 까막까치밥 같은  
작은 눈을 감추고 있다.

너는 구즈베리 같이 배똥똥이다.

너는 구즈베리같이 긴 털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구즈베리 같이 투명한 살갗에 꼬  
불꼬불하고 짧은 꼬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짓궂은 친구들은 너를 불러 “더러운 돼지!”라고 한다.

그들은 말하기를, 너는 싫어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누구나 너를 싫어하고, 게다가  
네가 기름때가 묻은 그릇의 물만 즐겨 마신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너를 비방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너를 씻겨보게 하면 너의 얼굴이 얼마나 좋은가 알게 될 것이다.

네가 게으르게 보이는 것은 그들의 잘못이다.

잠자리는 꾸미기에 따라 잠자는 방법도 달라진다. 불결은 너의 제2의 천성에 불과  
하다.

## 돼지와 진주

풀밭에 풀어놓자마자 돼지는 먹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흥한 코는 결코 땅바닥을  
떠나지 않는다.

그는 부드러운 풀을 고르지도 않는다. 먼저 부딪치는 것부터 먹어 치우고, 보습의  
날처럼, 또한 눈먼 두더지처럼 닳치는 대로 그 지칠 줄 모르는 코를 앞으로 밀어  
젖힌다.

이미 항아리 같은 모양의 배를 더 둥글게 할 생각뿐이다. 날씨가 어떻게 전혀 관심  
이 없다. 조금 전 오정의 태양이 그의 뺏뺏한 털을 태울 듯이 뜨거웠어도 아랑곳없

으며, 또한 지금 이 무거운 구름이 우박을 머금고 풀밭 위를 휩쓸어 덮치려 해도 오불관언(吾不關焉)이다.

정말 까치가 기계적으로 날아서 도망친다. 칠면조는 울타리 밑에 숨고, 순박한 망아지는 떡갈나무 아래로 몸을 피한다.

그러나 돼지는 제자리에 멈춰서 여전히 먹고 있다.

그는 한 입의 먹을 것도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

그는 마음이 잡히지 않아서 움직이지 않는다.

우박이 몸에 우닥닥 떨어져야 겨우 꿀꿀 불평한다.

—또 빌어먹을 더러운 진주가 쏟아지는군!



### 족제비

가난한 그러나 깔끔하고 품위 있는 그녀는 깡충깡충 길 위를 왔다 갔다 한다. 그리고 이 시궁창에서 저 시궁창으로 돌아다니며, 또한 이 구멍에서 저 구멍으로 출장 교수(敎授)를 한다.

### 도마뱀



내가 기대고 있는 금이 간 돌담 틈바귀에서 스스로 태어난 자식, 그가 내 어깨 위에 기어오른다. 내가 돌담의 연장물인 줄 아는 모양이다. 하기가 내가 꼼짝 않고 있으니까. 게다가 내가 담벼락과 같은 색의 외투를 입고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기분 나쁘지는 않다.

벽—왜 이렇게 등이 근질근질한지 모르겠는 걸.

도마뱀—나다.



## 양

그는 자운영(紫雲英) 밭에서 돌아온다. 아침부터 그들은 거기서 자기 몸뚱이 그늘에 코를 쭈서 박고 풀을 먹고 있었다.

게으름뱅이 목동의 신호에 없어서는 안 될 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쪽에서 양 떼를 몰아낸다.

양 떼는 온통 길을 점유하고 도랑에서 도랑으로 물결쳐 넘쳐흐른다. 때로는 밀집하여 몽실하게 한 덩어리가 되고, 노파처럼 종종걸음으로 땅바닥을 밟아 다진다. 그녀들이 달리기 시작하면 그 무수한 발들이 바람에 나부끼는 갈대 소리를 내며, 길가의 먼지는 별통을 쭈신 것처럼 자욱하다.

이쪽 고수머리가 다복한 양은 작은 붓집 덩어리를 공중으로 던져 올린 것처럼 뛰어들어오른다. 그러면 아이스크림의 원뿔꼴 그릇 모양의 귀에서 드로프스가 굴러 떨어진다.

저쪽 탄 높은 현기증을 일으켜 제대로 고정되지 못한 머리에 무릎을 부딪는다. 그들은 마을로 침입한다. 마치 오늘은 그들의 잔칫날 같다. 그래서 떠들썩하게 기쁜 듯이 거리를 울며 돌아다니는 것 같다.

그러나 그들이 마을에서 멈추는 것은 아니다. 보고 있으니, 저 멀리 그들의 모습이 나타난다. 언덕을 지나 가볍게 태양을 바라보며 올라간다. 그들은 태양에 다가가서 좀 거리를 두고 눕는다.

뒤처진 놈들은 하늘에 뜻밖의 마지막 모습을 그리며 둥글둥글 뭉쳐있는 양 떼 속에 끼어들다.

한 뭉치의 양모가 또 다시 떨어졌나 했더니, 흰 거품이 났다가 연기가 되고 증기가 되어 필경에는 아주 사라진다.

이제는 발 하나가 밖에 남아 있을 뿐이다.

그 발은 길게 늘어져 토릿대의 실처럼 끝없이 풀리어간다.

추위를 타는 양들은 태양 둘레에서 잠잔다. 태양은 맥 빠진 듯 관을 벗어던지고 내일까지 그의 광선을 그들의 양모 속에 꽂아두는 것이다.

양들—하지만(메에)……하지만(메에)……하지만(메에)…….

양 지키는 개—하지만(메에)이고 뭐고 그만둬!



말벌



그렇지만 마침내는 허리가 엉망이 될 걸.

## 잠자리



그녀는 안질을 치료하고 있다. 강가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부어오른 눈을 찬물에 찜질만 한다.

그리고 부르륵부르륵 소리를 내며 마치 전기장치로 나는 것 같다.

## 수염소



그 냄새가 그보다 앞서 간다. 그는 보이지 않는데 그 냄새는 벌써 와 있다.  
그는 그 무리의 선두에 서서 나가며, 암염소들은 뒤죽박죽으로 구름 같은 먼지를  
피우면서 그를 따라간다.  
그의 털은 길고 꺼칠꺼칠하며 등에 짝 갈려져 있다.  
그는 자기 턱수염보다 오히려 그 당당한 체구를 자랑하고 있다. 그 까닭인즉, 암염  
소도 역시 턱 밑에 수염을 달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지날라치면 어떤 사람들은 코를 움켜 쥔다. 또 만 사람들은 그 풍취를 좋아한  
다.  
그는 오른쪽도 왼쪽도 바라보지 않는다. 뾰족한 귀와 짧은 꼬리를 하고 깨끗하게  
걸어간다. 사람들이 그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도 그는 아랑곳없다. 그는 근엄한 얼

굴로 염주 같은 방울 톱을 툇툇 떨어뜨린다.

알렉산드로라는 것이 그의 이름이다. 그리고 그의 명성은 개들에게까지도 떨치고 있다. 하루가 끝나고 해가 숨어버리면 그는 추수하는 사람들과 함께 마을로 돌아온다. 그리고 그의 뿔은 길어가는 연륜과 더불어 반달 모양으로 점점 꾸부러져 간다.

### 귀뚜라미



이 시각이 되면 돌아다니다가 지쳐 검둥이 벌레는 산책에서 돌아온다. 그리고 자기 집의 흩어져 있는 것들을 정성껏 정돈한다.

그는 우선 좁은 모래의 길을 깨끗이 고르게 한다.  
툼밥을 만들어 그것을 자기 은거 문턱에 헤쳐 놓는다.  
아무래도 방해가 되는 큰 풀뿌리를 줄질을 하여 깎아낸다.  
그는 휴식을 취한다.  
그리고 나서 아주 작은 시계에 밥을 준다.  
다 마쳤는가? 시계가 망가졌는가? 그는 또다시 잠시 쉰다.  
그는 집에 돌아와 문을 닫는다.  
오랫동안 까다로운 자물쇠에 열쇠를 넣어 돌려본다.  
그는 귀를 기울인다.  
밖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없다.  
그러나 그는 마음이 놓이지 않는 모양이다.  
그리고 도르래의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는 사슬을 타고 땅속으로 내려간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정적 속의 들판에는 포플러나무들이 손가락처럼 하늘에 우뚝 솟아 달을 가리고  
있는 것 같다.

## 메뚜기

이놈은 벌레들의 현병이라고나 할 수 있을까?  
은 종일 뛰어다니며 보이지 않는 밀렵자(密獵者)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결코  
잡지는 못한다.  
아무리 키가 큰 풀도 그를 막지는 못한다.  
그에게는 겁나는 것이 없다. 70리를 단번에 뛰는 장화가 있고, 황소 같은 목에 천  
재 같은 이마가 있으며, 배의 용골(龍骨) 같은 복부와 셀룰로이드의 날개 아귀 같  
은 뿔, 그리고 뒤에는 커다란 칼을 차고 있기 때문이다.  
현병에는 반드시 직업적인 악벽(惡癖)이 있는 법인데, 솔직히 말해서 메뚜기는 씹

는담배를 애용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내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하면, 그를 손가락으로 쫓아봐라. 그놈과 숨바꼭질을 하고 그리고 그놈이 튀는 사이에 개자리 앞에서 요행히 잡는다 해도 그의 입을 잘 들여다봐라. 꼼찍하게 생긴 입에서 담배를 씹고 난 즈(汁) 같은 검은 거품을 분비해낸다.

그러나 이미 그대는 그것을 잡고 있지 못하게 된다. 그 녹색의 괴물은 별안간 심하게 몸부림 쳐서 그대의 손을 빠져나와,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몸이 조그만 넓적다리 하나를 그대의 손에 남기고 달아난다.





## 개똥벌레

무슨 일이 일어났나? 밤 9시인데 아직 그 집에 불빛이 보이네.

## 토끼



반으로 자른 술통 속에서 르노아르와 르그리는 모피로 따뜻하게 감고 암소처럼 먹고 있다. 그들은 단 한 번 식사하지만, 그 식사는 종일 걸려서 하는 것이다.

새 풀 주는 것이 늦기라도 하면, 그들은 먹다 남은 헛 것을 뿌리까지 쓸고 씹는다. 그러자 방금 한 폭의 샐러드 상추가 그들 앞에 떨어졌다. 르노아르와 르그리는 함께 당장 먹기 시작한다.

코를 마주 대고 열심히 먹으면서 머리를 꼬덕이고 귀는 종종걸음을 한다.

마침내 잎이 하나만 남게 되자, 그들은 서로 한쪽씩 물고 경쟁을 하면서 먹어 들어간다.

그들은 비록 웃고 있지는 않지만 장난치고 있는 것 같고, 잎사귀를 다 삼키고 나면 우애로운 애무로 서로 입술을 모으는 것 같다.

그러나 르그리의 기분이 좋지 않다. 어제부터 배가 팽창하여 위(胃) 주머니가 부글 거린다. 진정 너무 먹은 것이다. 샬러드 상추 한 뿔쯤은 배불러도 먹을 수 있지만, 그는 도무지 이제 먹을 수 없다. 그는 그 잎사귀를 놓고 자기가 배설한 똥 위에 넓죽 옆으로 눕고 부르르 경련을 일으킨다.

순식간에 그의 몸이 굳어지고 발을 양쪽으로 쭉 벌려 마치 총포상의 광고간판 같다.

“백발백중, 원거리에서도!”

한동안 르노아르는 놀라서 먹기를 멈춘다. 축대 모양으로 앉아 조용히 숨을 쉬면서 입술을 꼭 다물고 장미색 눈을 하고 그는 바라본다.

그는 마치 마법사가 신비한 세계로 들어가는 듯한 모습이다.

곧게 선 그의 두 귀가 임종을 고한다.

그리고 나서 그 귀가 늘어진다.

그리고 르노아르는 샬러드 상추를 해치운다.

## 뜰에서

가래 : 팍 에 스페라(부지런한 가난뱅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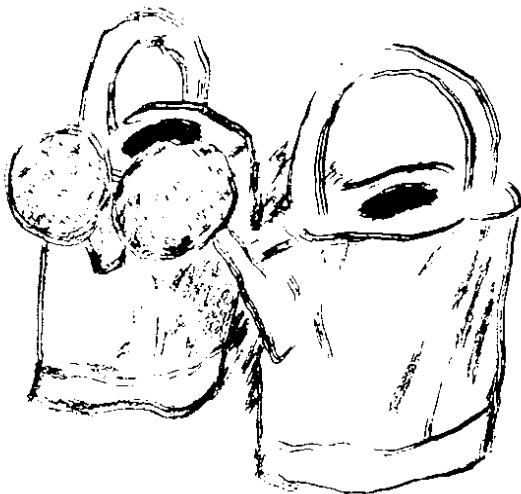
곡괭이 : 동감이요!

꽃들 : 오늘은 날씨가 맑을까?

해바라기 : 그래 내가 원한다면.

물뿌리개 : 뭐라고, 내가 생각만 있으면 비는 오지. 게다가 꼭지라도 빼보면 그야말로 억수같이 쏟아지지.

장미나무 : 오오, 바람도 미쳤지!



버팀막대 : 내가 옆에 있잖아.

나무딸기 : 왜 장미나무는 가시가 있지? 그걸 먹을 수도 없지, 장미는 말이야.

양어장의 잉어 : 말 잘 했어! 그러니 사람이 날 먹을 때 나는 가시를 곤두세워 찌르게 하지.

영경귀 : 그래, 하지만 그러면 너무 늦지.

장미꽃 : 나를 예쁘다고 생각해요?

무늬말벌 : 아래를 좀 봐야지.

장미꽃 : 들어오세요.

꿀벌 : 자아 용기를 냅시다. 모두들 제가 부지런하다 하지요. 이 달 말에는 매장(賣場)의 상무가 됐으면.

오랑캐꽃 : 우리는 모두 일등 교육공로훈장 수여자이지요.

흰 오랑캐꽃 : 그러니 더욱 자중해야 하지요, 여러분.

파 : 내가 잘난 체합디까?

시금치 : 수영이라는 것은 바로 나지요.

수영 : 아니에요, 그건 나지요.

염교 : 아아! 냄새도 지겹다!

마늘 : 틀림없이 또 패랭이 꽃일 게야.

아스파라가스 : 내 새끼손가락에게 물어보면 다 알거야.

감자 : 난 아기를 낳은 참이야.

사과나무 : (배나무와 마주 바라보고 있다) 그건 너의 배다, 너의 배, 너의 배...내가 낳고 싶은 건 너의 배다.

### 포도밭

모든 그루가 다 지주(支柱)를 동반한 무기휴대의 부동자세이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나? 올해에는 포도알이 아직 나오지 않으리라. 그리고 포도 잎은 입상(立像)에 밖엔 쓰이지 않고,

### 새앙쥐

남쪽불 밑에서 하루 뭇의 글을 쓰고 있으려니까 바삭바삭 소리가 들려온다. 펜을 멈추니 그 소리도 멈춘다. 내가 종이 위에 굵어 쓰기 시작하니 그 소리가 다시 들린다.

새앙쥐가 자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하녀가 걸레랑 솔을 넣어두는 어두운 구멍 언저리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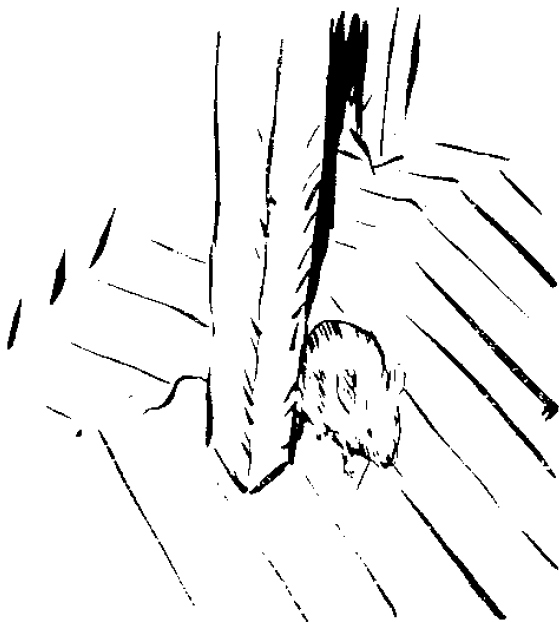
그 새앙쥐는 땅바닥에 뛰어내려 부엌의 타일 위를 뛰어다닌다. 그리고 나서 벽로 근처 개수통 밑으로 옮겨 접시 속에 기어든다. 차츰 더 멀리 정찰을 하면서 점차 나에게로 다가온다.

내가 펜을 내려놓을 때마다 그 고요가 그를 불안하게 한다. 내가 또 펜을 쓰기 시작하면 아마 언저리에 다른 자기 족속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안심을 한다.

그리고 나서 그는 보이지 않는다. 테이블 밑에 들어가 내 두 발 사이에 있는 것이다. 그는 의자 다리에서 다른 다리로 뻗는다. 그는 내 나막신을 스쳐가다가, 살살 깨물어 보다가 대답하듯 그 위에 올라앉는다.

이쯤 되고 보면, 내가 발을 움직일 수도 없고 숨을 크게 쉴 수도 없다. 그놈이 도망칠 터이니 말이다.

그러나 나는 계속 글을 써야만 한다. 그리고 그에게 버림받아 홀로 있는 지루함이 두려워 구두점(句讀點)을 찍어보기도 하고, 선을 좀 그어보기도 하고, 조금씩 마치 그가 물건을 깨물 듯이 글을 써가는 것이다.



## 원숭이



원숭이를 가서 보시오(빌어먹을 망나니들이다. 바짓가랑이를 몽땅 찢어버렸다!). 기어오르고 신선한 햇볕에서 춤을 추고, 골부림을 하고, 몸을 굽고, 아무거나 마구 쥐어뜯고, 원시적인 맵시로 물을 마신다. 그러는 동안 그들의 눈은 가끔 흐리는 수도 있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않고 번쩍 번득이다가는 다시 흐려진다.

홍학(紅鶴)을 가서 보시오. 장밋빛 속치마 자락이 샘물에 젖을까봐 핀셋 위에 타고 걸어간다. 백조와 거드름 피우는 납(鉛)의 목. 타조와 그 병아리의 날개, 책임이 막중한 역장의 모자. 항상 어깨를 으쓱대는 황새(나중에는 아무런 뜻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 초라한 자켓을 입고 있는, 추위를 잘 타는 아프리카 두루미. 인버네스(소매 없는 외투)를 입고 있는 펭귄 새. 목도(木刀) 같은 부리를 버티고 있는 펠리칸, 그리고 가장 잘 길들여진 놈이라도 현재 그들의 문지기에게는 도저히 견줄 수 없는 앵무새. 그 문지기는 결국 우리 손에서 십 수우짜리 동전 한 닢을 말아먹고 만다.

무겁게 유사이전(有史以前)의 사상을 짊어지고 있는 야크(犏牛)를 가서 보시오. 철

책의 창살 위로 창끝에 꽃아 놓은 듯한 머리를 내미는 기린. 허리를 굽히고 코끝을 늘어뜨리면서 문 앞에서 무도화(舞蹈靴)를 끌고 다니는 코끼리. 그의 몸매는 반바지를 지나치게 추켜 올린 듯한 푸대 속에 숨어버리고 뒤에는 가느다란 끈 끝이 매달려 있다.

펜대를 몸에 지니고 있는 고슴도치도 가서 보시오. 그 펜대는 그에게도 그의 여자 친구에게도 정말 거추장스럽다. 얼룩말, 이것은 다른 모든 얼룩말의 투명체(透明體)의 표본이다. 침대 밑에 내려가 앉은 표범. 사람을 즐겁게 해 주면서 자기는 즐겁지 않은 곰. 자기도 하품하고 남도 하품이 나게 하는 사자.

#### 납엽기(納獵期)

음산하고 짧은, 마치 양쪽 끝이 잘린 듯한 시들한 하루이다.

점심때쯤 무뚝뚝한 태양이 안개 틈바귀로 얼굴을 내밀고 흐릿한 눈을 떴으나 금시 다시 감아버린다.

나는 무턱대고 걸어간다. 총도 소용없다. 여느 때 같으면 정신없이 내대던 개도 내 곁을 떠나지 않는다.

시냇물은 너무나 맑아 건널 수 없을 정도이다. 그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는다면 우리 조각처럼 깨질 것 같다. 그러터기 발 속에서 한 발 한 발 내딛을 때마다 맥 빠진 종달새 한 마리가 튀어 나온다. 그들은 모두 한 덩어리가 되어 맴돈다. 그리고 그들의 날개치기도 얼어붙은 공기를 어지럽게 하지는 못한다.

저쪽에서는 까마귀 수도회원(修道會員)들이 가을에 뿌린 종자를 부리로 파헤치고 있다.

세 마리의 자고새가 목장 속에서 솟아오른다. 깨끗이 깎인 목장의 목초는 이미 그들의 모습을 숨겨주지 않는다. 자고새들도 참 많이 컸다! 이제 훌륭한 부인들이다. 그들은 귀를 기울이고 있다. 불안스러운 모양이다. 나는 그들을 똑똑히 보았다. 그대로 놔두고 지나가 버린다. 그리고 어디에선가 아마 부들부들 떨고 있던 토끼 한

마리가 안심하고 굴집에서 코를 내밀 것이다.

이 울타리를 따라가자니(여기저기 마지막 낙엽 한 닢이 발목을 잡힌 새처럼 풀럭 거린다) 티티새 한 마리가, 내가 접근할 적마다 도망쳐서 더 앞에 숨었다가 개 코 끝에서 또 푸드득 날아 이젠 위험이 없다고 우리를 놀린다.

차츰 안개가 짙어진다. 나는 길을 잃을 것 같다. 총도 이쯤 되면 폭발력을 지닌 단장에 불과하다. 도대체 어디서 들려오는 것일까? 저 아득한 소리, 저 양 우는 소리, 저 종소리, 저 사람이 외치는 소리는?

돌아가야 한다. 이미 불빛이 보이지 않는 길을 나는 마을로 돌아간다. 마을 이름은 마을만이 안다. 조출한 농부들이 거기에 살며 그 누구도 찾아가지 않는다. 이 나만을 빼놓고 말이다.

#### 달팽이



#### 1

그는 감기 들기 쉬운 계절에 죽치고 들어앉은 막힌 코처럼 부글부글 끓고 있다. 날씨가 좋으면 그는 돌아다닌다. 하지만 험로만 걸을 뿐이다.



2

나의 작은 친구 아벨은 달팽이와 논다.

그는 그것을 한 상자 가득 기르고 있으며 또한 그것들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그 껍질에 연필로 번호를 적어 놓는다.

지나치게 건조한 날이면 달팽이들은 상자 속에서 잠을 잔다. 비가 올 듯하면 아벨은 그들을 밖에 정렬시킨다. 그러다가 비가 빨리 오지 않으면 그는 위에서 물을 한 항아리 퍼부어 그들을 깨운다. 그러면 상자 속에서 알을 까려고 틀어박혀 있는 어미 달팽이라고 그는 말하지만, 그 달팽이를 빼놓고 모두 바르바아르라고 하는 개의 보호를 받으면서 어슬렁어슬렁 걸어간다. 바르바아르란 연판(鉛板)으로 만든 것으로, 그것을 손가락 끝으로 밀고 가는 것이다. 나는 그와 달팽이를 훈련하는 것이 상당히 힘든 일이라고 서로 말하면서 언뜻 쳐다보니, 그는 “그래” 하고 대답하면서도 “아아니” 하는 시늉을 하고 있다.

—너는 아벨, 하고 나는 그에게 말한다. 왜 너는 머리를 좌우로 흔들지?

—그저 내 설탕이야 하고 그가 말한다.

—무슨 설탕?

—자아, 이거 말이야.

팔다리로 벌벌 기면서 제8호가 떨어져 나가려는 것을 끌어들이는 중, 피부와 내의 사이에 각설탕이 한 개, 마치 메달처럼 끈에 달려 있는 것이 보인다.

—엄마가 이것을 달아매주었어, 하고 그가 말한다. 벌주려 할 때면 이렇게 하지.

—기분 잡치지?

—그저 몸에 긁히지?

—쓰라릴게다, 그지? 새빨강잖아!

—하지만 용서하시면 내 이걸 먹게 되거든, 하고 아벨이 말한다.

### 송충이



그녀는 터울 때 숨어 있던 수풀 속에서 기어 나온다. 꿈틀꿈틀 물결치면서 모랫길을 질러간다. 조심스럽게 중도에 멈추는 일이 없도록 하면서 정원사의 나막신 자국 속에서 한동안 길을 잃지 않았나 하고 망설인다.

말기 밭에 이르러서는 한숨 돌리고 코를 좌우로 내밀면서 냄새를 맡아본다. 그러고 나서 다시 출발하여 나뭇잎을 아래위로 기어 넘어 이번에는 자기가 갈 방향을 잡는다.

정말 얼마나 훌륭한 송충인가! 똥똥하고 복슬복슬하고 털이 두껍고 갈색의 몸에 황금빛 얼룩점이 있고 새까만 눈을 한 그녀는!

후각에 따라 그녀는 짙은 눈썹처럼 짹짹 늘어났다 움츠렸다 한다.

그는 한 그루 장미나무 아래서 멈춘다.

그 가느다란 걸쇠로 그녀는 꺼칠꺼칠한 나무껍질을 어루만져 보고, 갓 태어난 강

아지 같은 작은 머리를 흔들면서 기어오르기로 결심한다.

그래서 이번에는 길의 길이를 재며 목구멍에 쑤셔넣듯 힘들여 삼키는 것 같기도 하다. 장미나무 꼭대기에는 순진무구한 처녀빛깔의 한 장미꽃이 피어 있다. 그 아낌없이 뿌리는 향기에 그녀는 취해버린다. 꽃은 결코 아무도 경계하지 않는다. 어떤 송충이라도 오기만 하면 줄기를 타고 올라오게 내버려둔다. 선물을 받듯 맞아 들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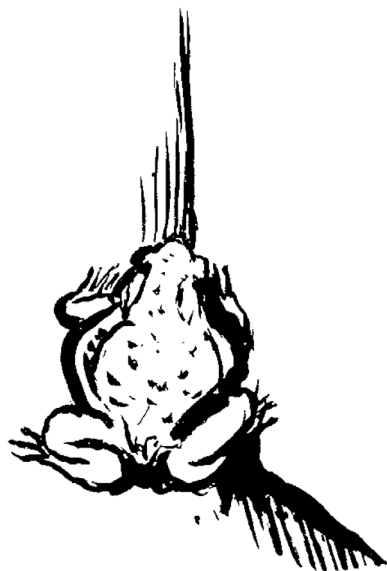
그리고 오늘밤은 춤쥔다고 느끼면서 기분 좋게 모피의 목도리를 목에 두른다.

### 나비



둘로 접은 이 편지 쪽지는 꽃에게 보내는 연애편지.

## 두꺼비



돌에서 태어난 그는 돌 밑에서 살며 돌 밑에 무덤을 팔 게다.

나는 그를 자주 찾아본다. 나는 그의 돌을 쳐들 때마다 그놈이 없었으면 좋았고 있었으면 좋았다.

그는 그곳에 있다.

이 건조하고 청결하고 좁은 굴속에 숨어서 그의 몸뚱이는 구멍 가득히 차지하고 구두쇠의 지갑처럼 불룩하다.

비가 와서 기어 나올 때면 그는 나를 맞아준다. 서너 번 벽찬 뛰기를 하고 나서 엉덩이를 땅바닥에 붙이고 붉은 눈으로 나를 바라본다.

부당한 세상 사람들이 그를 문둥이로 멸시한다 해도 나는 그에게 몸을 굽혀 나의 이 인간의 얼굴을 그의 얼굴에 갖다 대기를 서슴지 않는다.

그리고 좀 기분은 나쁘지만 꼭 참고 이 내 손으로 그를 애무해 주리라, 두꺼비야! 인간은 이 세상에서도 가장 끔찍한 것들을 삼키고 있다.

그러나 어제 나는 실수를 했다. 까닭인즉, 그가 움푹움푹한 무사마귀 같은 몸통이를 발효하는 것처럼 끈적끈적한 액체를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두꺼비야, 하고 나는 그에게 말한다. 너에게 괴로움을 주고 싶지는 않다마는 정말 너는 꼴이 흉하구나!

그는 그 순진하고 이 빠진 입을 벌리고 뜨거운 입김을 내뿜으면서 약간 영어식의 악센트로 대답한다.

—그럼 너는?

## 개구리

고리쇠가 풀리듯 그녀들은 뛰기 연습을 한다.

그녀들은 끓는 프라이 기름의 늑스리한 기름방울처럼 풀밭에서 뛰어오른다.

그녀들은 넓은 연잎 위에 청동의 서진(書鎭)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다.

한 마리는 목구멍 가득히 공기를 마시고 있다. 그 입으로 배의 저금통 속으로 동전 한 닢 넣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녀들은 수렁 속에서 한숨처럼 올라온다.

그녀들은 움직이지 않고 수면에 나타날 듯 말 듯한 큰 눈 같기도 하고, 흐린 늪의 종기 같기도 하다.

석수장이처럼 멍청히 앉아서 그녀들은 석양을 바라보며 하품을 한다.

그리고 나서 귀찮게 떠들어대는 노점 상인처럼 하루의 새로운 소식을, 목청을 높여 지껄인다.

오늘밤 그녀들 집에서 리셉션이 있나보다. 그녀들이 컵을 씻는 소리가 들리는가?

가끔 그녀들은 벌레를 답석 문다.

또 어떤 놈들은 오로지 사랑만 하고 있다.

그녀들은 모두 낚시꾼을 유혹한다.

나는 나뭇가지를 꺾어 힘들이지 않고 낚싯대를 만든다. 외투에 꽂혀있는 관을 구

부려 낚싯바늘을 만든다.

줄도 있다.

그러나 아직도 털실 조각과 아무거든 빨간 조각이 필요할 것 같다.

나는 내 몸을 뒤지고 아래 위를 찾아본다.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고 나는 서글프게 단추 구멍을 바라본다. 모든 준비가 갖추어진 그 단추 구멍은 별 불평도 없지만, 그렇게 빨리 붉은 리본(레지옹 도뇌르의 약칭)으로 장식해 줄 것 같지도 않다.



## 도요새

4월의 태양은 이미 저서, 막다른 데까지 다다른 것처럼 움직이지 않는 구름 위에 장미 빛의 미광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밤이 땅에서 솟아올라 차츰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는 마을 좁은 공지에서 도요새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 옆에 서 있었던 나는, 겨우 그의 얼굴을 분별할 뿐이었다. 나보다 더 큰 아버지에게는 내 얼굴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그리고 개도 우리 발밑에서 보이는 않지만 헉헉 숨쉬는 소리만을 냈다.

지빠귀새는 서둘러 숲 속으로 돌아가고 티티새는 그 목을 찢는 듯한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 말이 우는 듯한 소리는 모든 작은 새들에게 이제 입을 다물고 잠을 자라는 명령이기도 하다.

도요새는 오래지 않아 고엽(枯葉) 속의 은신처에서 날아 나올 것이다. 오늘밤처럼 날씨가 따뜻할 때면 들판에 가기 전에 늪장을 부린다. 그는 숲 위를 돌면서 길동무를 찾는다. 그의 흐릿한 부르는 소리로 가까이 오는 것인지 아니면 멀리 가버리는 것인지 알 수 있다. 그는 큰 떡갈나무 사이를 누벼 우둔하게 날아간다. 긴 부리가 아래로 늘어져 작은 단장을 짚고 공중을 산책하는 것 같다.

내가 사방을 바라보며 귀를 기울이고 있으려니까 아버지가 별안간 총을 쏘았다. 그러나 손살같이 뛰어나간 개의 뒤를 쫓지는 않았다.

—못 맞췄어요? 하고 내가 말했다.

—쏘지 않았어, 하고 아버지가 말했다. 총알이 그냥 뛰어나간 거지.

—저절로요?

—그래.

—아! 나뭇가지에라도 걸렸던 게지요, 아마?

—글쎄.

아버지가 빈 약포를 꺼내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떻게 그걸 쥐고 있었지요?

아버지는 무슨 말인지 모르셨을까?

—즉 충구가 어느 쪽을 향하고 있었느냐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무 말이 없었으므로 나는 그 이상 더 물어볼 용기가 없었다.

마침내 내가 말했다.

—하마터면 개가 맞을 뻔했지요.

—자아, 가자, 하고 아버지가 말했다.

## 거미

새까맣고 털북숭이의 조그만 손. 머리카락을 붙들고 안달을 하고 있다.

밤새도록 달의 이름으로 그녀는 봉인(封印)을 붙이고 있다.





## 까마귀



꾸아(Quoi 뭐야)? 꾸아(Quoi 뭐야)? 꾸아(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 자고새

자고새와 농부는, 한 편은 쟁기 뒤에서 다른 편은 근처 개자리 풀 속에서 서로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거리를 두고 평화롭게 살고 있다. 자고새는 농부의 목소리를 알고 있다. 소리치고 욕설을 퍼부어도 겁내지 않는다.

쟁기가 빼격거려도, 소가 기침을 해도, 나귀가 울기 시작해도, 별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이 평화는 내가 가서 횡방을 놓을 때까지 지속된다.

그러나 내가 오니 자고새가 날아간다. 농부도 평온치 않다. 소도 나귀도 그렇다. 나는 총을 쏜다. 성가신 자의 총소리에 모든 자연이 혼란에 빠진다.

이 자고새들을, 나는 우선 그루터기 속에서, 개자리 풀밭에서 몰아낸다. 그리고 목장에서 울타리를 따라 몰아내고 숲 어귀에서 몰아낸다. 그리고…….

별안간 땀을 흠뻑 흘리고 나는 머물러서 소리친다.

—아! 죽일 놈, 사람을 이토록 뛰게 해!

저 멀리 목장 한복판 한 그루 나무 아래 무엇인지 보인다.

나는 울타리로 가까이 가 그 위에서 바라본다.

아무래도 나무 그늘에 새 목이 하나 우뚝 서 있는 것만 같다. 금시 심장의 고동이 심하게 발동한다. 이 풀밭에 자고새가 없을 수 있나. 어미 새가 내 소리를 듣고 자기들의 신호를 해서 새끼 새를 낳작 엮드리게 하고 자기도 몸을 수그리고 있는 게다. 목만을 킁킁하게 세우고 감시하고 있는 게다. 그러나 나는 망설인다. 왜냐하면, 그 목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속아서 나무 뿌리라도 쏘면 해서이다.

여기저기 나무 언저리에 노란 반점이 있다. 자고새인지 흙덩어린지 내 눈은 완전히 아리송하다.

정말 자고새를 몰아쳐내면 나뭇가지가 방해가 되어 나는 걸 쓸 수는 없을 게다. 그 보다는 지상(地上)에 있는 것을 쏘아 진짜 사냥꾼들이 소위 '살인'이라고 하는 것을 해치우는 게 더 나을 게다. 그러나 내가 자고새(鶴鴣)의 목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전히 움직이지를 않는다.

오랫동안 나는 엿본다.

과연 그것이 자고새라면, 그 꼼짝 않기로나 그 조심성은 정말 경탄할 만하다. 또한 탄 놈들도 그의 말을 잘 들어 이 보호자에 못지않은 훌륭한 솜씨라 하겠다. 한 놈도 움직이지 않는다. 나는 속임수를 써보기로 한다. 나는 완전히 울타리 뒤에 숨어 바라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쪽에서 보고 있는 동안은 그 쪽에서도 나를 보고 있을 터이니까.

이제 어느 쪽도 다 보이지 않는다. 죽음의 침묵이 계속된다.

그리고 나서 나는 다시 바라본다.

오! 이번에는 확실하다! 자고새는 내가 사라진 줄 알았을 게다. 목이 먼저보다 더 높아졌다가 그것을 급히 움츠리는 동작이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다.

나는 서서히 개머리판을 어깨에 갖다 댄다…….

저녁에는 피곤하고 배가 부르다. 수확이 많았던 기쁜 잠을 이루기 전에 나는 온종일 따라다녔던 자고새 생각을 한다. 그리고 그들 또한 어떻게 이 밤을 보낼 것인가 하고 상상해 본다.

그들은 미치다시피 되었을 게다.

어째서 점호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어째서 괴로워하는 자가 있는 것일까? 그리고 부리로 상처를 쪼면서 안절부절 하는 자가 있는 것일까?

또한 어째서 모두를 두렵게 하는 짓을 하기 시작하는 것일까?

이제 겨우 쉬려는 참인데 파수 보는 자가 경보를 내린다. 다시 또 떠나야 한다. 풀밭이나 그루터기를 떠나야 한다.

그들은 도망치기만 한다. 익숙한 소리에도 놀라는 것이다.

그들은 이미 뛰놀 수가 없다. 먹을 수도 잠잘 수도 없다.

그들은 무엇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부상한 자고새의 깃털이 떨어져 저절로 이 자랑스러운 사냥꾼의 모자에 꽂힌다 해도, 나는 그것이 지나친 일이라고 생각지는 않으리라.

비가 너무 오거나 한발이 너무 계속되거나 하여 개가 냄새를 못 맡고 총이 제 구실을 못하여 자고새 가까이 접근할 수 없게 될 때, 나는 정당방위의 권리라도 얻은 것 같은 기분이다.

존경받는 사냥꾼이면 상대하지 않는 새들이 있는데, 말하자면 까치랑 언치랑 티티새랑 지빠귀 등속이다. 나는 솜씨가 있다.

나는 자고새만을 상대한다.

그들은 정말 피가 많다.

그들의 껍란 멀리서 달아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잡아서 버릇을 가르쳐 준다.

그것은 또한 사냥꾼이 지나치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나 사냥꾼 뒤에서 너무나 일찍 날기 때문에 사냥꾼이 뒤돌아본다.



그것은 깊은 개자리 풀밭에 숨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냥꾼은 똑바로 그곳으로 간다.

그것은 날지 않고 기어서 달아난다는 것이다. 그들은 사람보다 더 빨리 달린다. 그러나 개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날 때 방향을 급히 바꾼다는 것이다. 그러나 것처럼 하면 간격이 좁혀진다. 그것은 갈라져서 달아날 때 서로 부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사냥꾼을 부르는 결과가 된다. 사냥꾼으로서 그들의 노래를 듣는다는 것보다 더 기분 좋은 일은 없다.



그 젊은 한 쌍은 벌써 어미를 떠나 새살림을 시작했다. 나는 저녁녘에 밭가에서 그들을 찾아냈다. 그들은 바싹 붙어서 그야말로 서로 날개를 얹싸안고 라는 식으로 다정하게 날아갔다. 그래서 그 한 놈을 죽인 총탄이, 그대로 또한 다른 놈까지 맞혀 떨어뜨렸다.

한 놈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다른 한 놈은 자기 친구가 죽는 것을 보고 그 옆에서 자기도 죽어가는 것을 느낄 만한 시간의 여유가 있었다.

이 두 마리의 자고새는 모두 지상의 같은 장소에 얼마간의 사랑과 피와 그리고 몇 개의 깃털을 남겨놓았다.

사냥꾼이여, 너는 한발의 총탄으로 멋지게 두 마리를 쏘아 떨어뜨렸다. 가서 가족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 주어야지.

작년에 그 늙은 두 마리의 어미 새, 한 배의 새끼를 잃은 어미 새, 그들도 젊은 새에 못지않게 서로 사랑하고 있었다. 언제 보아도 그들은 함께 있었다. 그들은 도망치는 데 선수였다. 그리고 나는 굳이 그들을 뒤쫓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 한 놈을 죽인 것도 우연이었다. 그리고 또 다른 놈을 찾았다. 불쌍해서 그놈 역시 죽여주려고!

이놈은 부러진 다리를 축 늘어뜨리고 마치 내가 끈으로 잡아매어 붙들고 있는 것 같은 꼴이다.

저놈은 우선 먼저 놈들의 뒤를 따라가지만 마침내 날개가 말을 듣지 않는다. 땅에 떨어진다. 개에 쫓겨 그래도 가볍게 반쯤 발고랑을 빠져나와 힘껏 달려본다.

또 어떤 놈은 머리에 납 탄환을 맞는다. 탄 놈들과 떨어져 나간다. 미친 듯이 하늘로 날아오른다. 나무보다도 높이, 교회의 종탑보다도 더 높이 태양을 향하여 솟아오른다. 그러면 사냥꾼은 몸이 달아오른다. 마침내 보이지 않게 된다. 그 때 새는 드디어 자기 머리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날개를 닫는다. 저 멀리 부리를 땅으로 향하고 화살같이 떨어진다.

또 어떤 놈은 “에이그!” 하는 소리도 없이 떨어진다. 마치 개를 훈련시킬 때 코끝에 던져주는 누더기처럼.

또 어떤 놈은 총탄을 쏘자마자 작은 배처럼 울렁울렁 흔들린다. 그리고 뒤집힌다.

또한 어떤 놈은 어째서 죽었는지 모를 정도로 상처가 날개 속에 깊이 묻혀 있다.

어떤 놈은 얼른 호주머니 속에 집어넣는다. 마치 사람에게도 내 자신에게도 보이지 않으려는 것처럼.

어떤 놈은 여간해서 죽지 않는다. 그래서 목을 졸라 죽여야 한다. 내 손가락 사이에서 그놈은 공중을 굽는다. 부리를 벌린다. 가느다란 혀가 꿈틀거린다. 호메로스의 말처럼 그의 눈 속에 죽음의 그림자가 내려온다.

저기 농부가 내 총소리를 듣고 머리를 쳐든다. 그리고 나를 바라본다.

그는 심판자이다. 이 일하는 사나이는. 그는 나에게 말하려 한다. 그리고 엄숙한 목소리로 나를 부끄럽게 만든다.

아니다. 그는 때로는 나처럼 사냥을 못하여 약이 올라 질투하고 있는 농부다. 또 때로는 내가 하고 있는 짓을 재미나게 바라볼 뿐더러, 자고새가 어디로 갔는지 알려주는 착한 농부다.

결코 의분에 불타오른 자연의 대변자는 아니다.

나는 오늘 아침 다섯 시간이나 걸어 돌아다닌 연후, 빈 사냥주머니를 걸치고 머리를 늘어뜨리며 무거운 총을 메고 돌아왔다. 소나기가 쏟아질 듯한 무더위다. 나의 개는 지쳐서 종종걸음으로 내 앞을 걸어가면서 사뭇 울타리를 따라간다. 그리고 몇 번이고 나무 그늘에 앉아 내가 오기를 기다린다.

싱싱한 개자리 풀밭을 질러가자니까, 별안간 개가 딱 멎는다 라기보다 납작 엎드린다. 그것은 늑름한 정지 태도이며 식물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단지 꼬리 끝만이 떨 뿐이다. 내 맹세코 말하지만 그의 코끝에 자고새가 몇 마리 있는 것이다. 바로 그곳에 서로 몸을 바짝 맞붙이고 바람과 햇빛을 피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개를 보고 있다. 나를 보고 있다. 내 얼굴을 알아볼지도 모를 일이다. 그래서 아주 지질어 붙어 날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무기력 상태에서 깨어나 나는 준비를 갖추고 대기한다.

개도 나도 우리가 먼저 움직이지는 않는다.

그러자 별안간 거의 동시에 자고새들이 날아나간다. 여전히 찰싹 달라붙어 한 덩어리가 되어 있다. 나는 그 덩어리 속에 주먹을 내휘두르듯 총알을 쏘아댄다. 그중의 한 마리가 멎있게 총알에 맞아 공중에서 맴돈다. 개가 달려든다. 그리고 피투성이의 누더기 같은 반쪽이 되어버린 자고새를 가지고 온다. 주먹이 나머지 반쪽을 쳐 날린 것이다.

자아, 우리는 실패한 게 아니다! 개가 깡충깡충 뛴다. 나도 의기양양해서 건들거린다.

아! 이 궁둥이에 총알을 한 방 쏘아붙여도 좋을 게다!

## 사슴



내가 그 샛길을 지나 숲에서 기다렸을 때, 바로 그 길 건너편 끝에서 그가 오고 있었다. 나는, 처음에는 어떤 모르는 사람이 머리에 나뭇가지라도 짊어지고 오는 줄 알았다. 그리고 나는 그 작은 나무가 잎사귀 없고 멋없이 벌어진 나뭇가지라 생각하였다. 마침내 뚜렷이 사슴의 모습이 나타나 우리는 둘이 다 멈추고 말았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가까이 온. 뭐 두려울 것 없어. 총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건 체면치레지, 숨 쉴만한 사람의 흉내를 냈을 뿐이야. 이런 걸 쓸 생각은 없어. 약포도 서랍에 넣어 둔 채이니까.



사슴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눈치를 챘다. 내가 입을 다물자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 한바탕 부는 바람에 나무줄기들이 서로 엮혔다 풀리듯 그의 다리가 움직였다. 그가 도망쳤다.

—아이 속상해라! 하고 내가 그에게 소리쳤다. 나는 벌써 둘이 함께 걸어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로 말하면, 네가 즐겨 먹는 풀을 손수 먹여주고 너는 산책이라도 하는 기분으로 내 충을 그 뿔가지에 걸고 가기만하면 되는데.

## 새매

그는 우선 마을 위에서 원을 그린다. 조금 전만 해도 그는 한 마리의 파리 그을음에 불과했었다.

그 모습이 점점 커짐에 따라 그가 그리는 원도 좁아진다.

가끔 그는 공중에서 꿈쩍 않고 머물러 있다. 닭들이 불안한 모습을 한다. 비둘기들이 지붕으로 돌아간다. 암탉 한 마리가 요란하게 외치면서 병아리들을 불러 모은다. 의심 많은 거위들이 가끔장에서 끼적끼적 울고 다니는 소리가 들린다.

새매는 머뭇거리면서 같은 고도에서 떠돌고 있다. 아마도 그는 교회당 종루의 수탉을 노리고 있는가보다.

마치 한 줄기 끈으로 하늘에 매달아 둔 것 같다.

뜻밖에 그 끈이 끊어져 새매가 떨어져 내려온다. 노릴 것이 결정된 것이다. 하계(下界)는 참극이 벌어진다.

하지만 모두 놀랍게도 마치 그의 무게가 모자랐던 거나 같이 지면에 다다르려는 순간에 다시 날개를 쳐 하늘로 쏙 올라가는 것이다.

그는 내가 문턱에서 등 뒤에 반짝이는 그 무엇인가를 숨기고는 그를 살펴보고 있는 것을 알아차린 것이다.



### 개양귀비

그들은 밀밭 속에서 작은 병사들의 대열같이 빛나고 있다. 그러나 더욱 예쁘고 빨간색으로 눈에 거슬리지도 않는다.

그들의 칼은 이삭이다.

바람이 불면 그들은 달린다. 그리고 하나하나가 그럴 생각만 나면 밭고랑에서 동향(同鄉) 친구 수레국화와 늦게까지 도란거린다.

## 나무들의 한 가족

태양이 내리쬐는 별판을 가로지르면 그들을 만날 수 있다.

그들은 길가에 살지 않는다. 시끄러운 소리 때문이다. 그들은 개간하지 않은 들판, 새만이 알고 있는 샘가에 살고 있다.

멀리서는 들어갈 틈도 있을 것 같지 않다. 그러나 가까이 가 보면 그들의 줄기는 험거워진다. 그들은 신중하게 나를 맞아준다. 나는 한숨 돌리고 서늘한 바람을 즐길 수 있지만, 그들은 나를 바라보면서 경계하는 것만 같다.

그들은 한 가족이 되어 살고 있다. 제일 만이를 한가운데 두고, 꼬마들, 겨우 태어난 갓난이 잎사귀들은 그냥 언저리에 모여 결코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다.

그들은 죽는 데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죽어서도 먼지가 되어 떨어져 나갈 때까지 서 있는 채 모두들 보살피 준다.

그들은 장님처럼 그 긴 가지로 서로 어루만지며 그들 모두가 거기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바람이 픽 붙어 그들을 뿌리째 뽑으려 들면 그들은 화가 나서 몸을 꿈틀거린다. 그러나 그들끼리는 다투는 일이 없다. 그들에게는 화합의 속삭임밖에 없다. 나는 그들이야말로 진짜 나의 가족이어야 할 거라고 생각한다. 또 하나의 다른 가족은 진작 잊어버릴 수 있을 게다. 이 나무들도 자차 나를 가족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나는 내가 알아야 할 것을 배우고 있다. 나는 이미 지나가는 구름을 바라볼 줄 안다.

또한 나는 한 곳에 꾸준히 버티고 있을 줄도 안다.

그리고 그의 입 다물기도 알고 있다.



## 르나르의 일기(日記)

1901년 1월~6월

1월 1일

제르므네의 노인들은 온종일 검은 무명 모자를 쓰고 있다.

그들은 매음부를 부인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다.

참새 떼는 나뭇가지 꼭대기에서 깃털을 부풀게 하여 엄청나게 크게 보인다.

자연은 종종 내 서재를 손상시킨다.

나는 숭고한 것을 음미하지만 진실만을 좋아한다.

불이 다 타버리고 나서 그래도 아주 꺼져 버렸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남아 있는 불을 필립은 “불의 영혼”이라고 한다.

‘박람회’ 때의 이야기지만, 어느 날 브르노는 파리에서 공화국 대통령 저택 앞을 지나갔다. 그러나 감히 들어가지는 못했다.

홍수. 온통 강이 뒤집혀졌다.

베네치아, 네, 압니다. 밤이면 리옹 역(驛)만큼이나 불빛이 휘황찬란한 곳이지요. 위제니 노는 샤텔로에서의 소녀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녀의 아버지는 농사꾼이었다. 바로 근처의 강에서는 ‘끝에 바늘을 달고’ 낚싯줄만 던지면 넓적다리만한 물고기가 잡히는 것이었다.

호의(好意)라는 것은, 어쩌면 인간을 나약하게 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호의라는 것을 공격할 때 인간이 말할 수 있는 가장 엄격한 말인 것이다.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생활을 영위해 나간다. 그런데 그 생활은 매년 한 권의 책도 쓰지 않는다.

파지의 모지에서. 하나의 무덤. 한 모퉁이에 여인의 석상(石像)이 아주 찌푸린 얼굴로 무릎을 꿇고 울고 있다. 그녀는 햇불의 불꽃을 땅바닥에 짓밟아 끄고 있다. 깨진 유골 단지도 있다. 모든 것이 있다. 그것은 추악하기도 하고 애처롭기도 하다. 그리고 그것은 이 시골의 조그마한 모지에서는 유일한 것이기도 하다.

짧은 바람이 전나무 숲에서 구슬프게 울어댄다.

평생 수프를 같은 대접으로 먹는다는 완전히 믿는 습관, 이것이 필립 부부의 화합의 상징이다.

이 ‘일기’가 나를 공허하게 한다. 이것은 작품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날이면 날마다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1월 8일

생명은 인간을 모든 것으로 인도한다. 단, 그것으로부터 다시 빠져나간다는 조건 하에.

—심각한 이야기, 그것은!

—그리고 어리석은 일이지! 모든 심각한 일이 그렇듯이 말일세. 지금 말한 것도 아무런 뜻이 없지 않나.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잃으면 이미 그 턱에는 ‘푸른 수염’의 털이 몇 개 난다.

그들은 그들의 희곡을 종이 위에 쓴다. 무대 위엔 인물도 배우도 보이지 않는다. 각본을 공중(空中)에 쓰는 것이다. 장소도 인물도 문제 삼지 않고 대화를 쓴다. 카뮈의 대화는 가장 재치 있는 신문기자의 대화에 불과하다.

삼 막짜리 훌륭한 각본은 짧게 되어 있다. 예르비외는 짝막하게 끊는 성실성이 있다.

베르네 씨는 양리의 출발을 그 누구보다도 괴롭게 여기고 있다. 하지만 그는 양리를 만류할 수는 없다.

—나는 잘 알고 있어, 하고 그는 말한다. 자네가 두 주일만 더 여기 남아 있다면 나는 코퀴(오쟁이 진 남편)가 될 거야.

나는, 하고 트리스탕이 말한다. 나는 장님인 동시에 중풍이라는 사나이의 생각이 떠올랐는데, 그 자가 예의 우화(寓話)와 다른 점은 이 이중의 불구(不具)에서 아무런 이익도 얻지 않고 있다는 점이지.

우리는 한두 여자에게 사랑을, 두세 친구에게 우정을, 단 하나의 적에게 증오를, 대여섯의 가난한 사람에게 연민의 정을 느낀다. 기타의 사람들은 아무래도 좋다.

1월 10일

어제 데스파르베스 부인의 장례식. 내 앞에는 온통 흰 옷을 감은 로그냥, 레옹 도

데, 녹색의 바둑판 무늬 바지와 괴상한 모직 외투를 입은 바레스. 한 사나이가 데스파르베스에게 입을 맞추며 “자네도 참 불행한 사람이야!” 하고 그에게 말한다. 한 몸집이 작은 여배우가 숨 막힐 듯이 그를 보고 두 팔을 벌리며 달려온다. 어떤 노인은 그의 뺨을 가볍게 두드린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길을 내준다. 죽음은 통행 허가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객차 속의 관(棺). 그렇다! 이것은 진정 여행이다. 위대한 시발(始發)이다.

#### 1월 11일

코메디 프랑세즈. <오라스>(호라티우스, 라신느의 희곡 작품명). 장소의 일치는 거 추장스럽다기보다 오히려 편리할 것이다. 한 막마다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낼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오라스>. 누이를 죽이는 수사가(修辭家).

#### 1월 16일

빅토르 위고. 어젯밤 <신(神)>을 읽었다. 이것은 아름다운 시구(詩句)의 눈보라를 하늘에서 내던지는 신 자신의 모습이다.

그는 저녁식사를 하러 온다. 또한 그는 밤 내내 설사를 하였다. 무엇을 먹어도 반지를 앓는다. 밤사이에 서너 번 일어난다. 공동변소라곤 모르는 게 없을 정도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식욕도 날 게다!

빅토르 위고는 모든 것의 중심에 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이 되도록 노력하라. 자기 자신의 중심에 있도록 하라. 자신의 내면생활과 일상생활의 빅토르 위고가 돼라. 제목 —‘아버지’. 내가 견문(見聞)한 것, 그리고 알아맞힌 것, 또한 내가 만들어 내는 것.

폴은 실편백나무의 모습, 알프레드는 수의(壽衣)의 모습이다.

그리고 질르는 뤼시앙이 옆에 없으면 쓸쓸하다는 표정이다.

거리에서 소상복(小喪服) 차림의 두 아가씨 자매가 미친 듯이 웃어대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꼴불견이다.



그의 약혼녀가 그에게 말했다. “전 당신을 죽도록 사랑해요. 그러기에 지금 예산을 짜봤는데 1년에 1만 8천 5백 프랑이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을 거예요.” 그의 장모는 멋쟁이고 아직 젊지만 시들어 보여, 그는 그녀를 “양치는 할망구”라고 부른다. 그는 약혼녀와 달콤한 이야기를 주고받았음에 틀림없다. 그는 나에게 보증인이 되어 달라고 한다. 틀림없이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으리라. “재미있는 녀석을 보증인으로 삼겠어”라고. 어느날 마차 속에서 단 둘이 있었던 좋은 기회에 그가 감기 들었다는 구실로 그녀에게 입맞춰 주지 않았다고 그녀는 한바탕 소란을 피웠다. 그 때문에 그녀를 더 한층 사랑하게 되었어야 했을 터인데, 그는 그녀를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

무엇이었던지 잘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어떤 감상적인 말이 나왔을 때에 그는 나에게 손을 내민다. 나는 내 손을 내놓지 않는다. 그가 장난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는 한사코 내민다. 마침내 나도 그럴 생각이 든다. 그러나 이미 그의 손은 들어가 버린 연후였다. 나만큼 굳지 못한 그는 다시 손을 내민다. 내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다행한 일이었다.

#### 1월 18일

생명이 내 손에서 빠져나간다. 나는 그 작은 부분밖에 잡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 1월 20일

앙투안 극장, ‘소교구(小敎區)’. 도데와 에닉크. 레옹 도데는 기분 좋게 산책한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와 관계없으며, 연습에 참가하지도 않았고 흥미조차 없다고 말한다. 제1막에서는 막을 다시 올리지 않는다. 도데는 매력 있는 삽화가이다. 그러나 그가 그리는 삽화는 누구나 그릴 수 있는 것이다.

가끔 낯쇠 줄기에 잡아맨 진짜 꽃 같은 것이 있다.

#### 1월 23일

사람들은 로댕의 청동 제품을 앙투안에게 증여한다. 잠자고 있는 남자와 여자가

다. 나는 이러한 생명 없는 장난감에 대하여 공감을 가질 수 없다. 칼과 흉당무만 있으면 이런 것은……하는 기분이다. 연설은 필요 없다. 양투안이 몇 마디 한다. 사람들은 샴페인을 마시고, 쿠르틀린만이 여전히 맥주를 마신다.

외투에 훈장을 단 것은 나뿐이다. 판 사람들은 보다 용감하다. 저고리 단추 구멍을 보이기 위하여 폐렴에 걸리는 것도 무릅쓰고 거침없이 외투의 단추를 끄른다.

어제 22일은 모리스의 일주기(一周忌). 나는 거의 이 일을 생각하지 않았다. 나의 기억력은 형편없다. 그 구실인즉, 중대한 일에 대하여 점점 더 진지해지는 경멸감이다. 무엇이든 다 엉터리이다.

가끔 말만 더듬는 뒤죽박죽의 객설 사이에 트리스탕이 나에게 일을 하라고 권유한다.

—자넨 너무 책을 읽는군, 하고 그가 나에게 말한다. 노트도 지나치게 열심히 하고, 자네가 쓰는 것은 모든 방면에 있어서 너무나 진기한 것뿐이야. 자넨 통속소설도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자네가 드라마에 대하여 멋진 비평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는 자네라는 사람을 알고 있으니 나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일을 하리라고는 바랄 수 없을지언정 자네가 쓴다면 어떤 것이건 좋은 것을 쓸 수 있을 게고, 게다가 자네의 독자의 범위가 넓어지리라는 것도 확실하지. 자네도 자신 속에서 잠자고 있는 모든 것, 기억에 남아 있는 것을 활용하지 않았어.

—그건 그렇지, 하고 나는 말한다. 하지만 그런 것을 내가 쓰고 싶다 할 동기가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어. 그럴 욕망이 있다면 별문제가지만 그렇질 못해. 필요, 이것은 아무래도 머지않아 있을 성실기도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저 그래. 나는 자신이 찾아낸 것에서 무엇이건 끌어낸다는 것에 집착하지 않아. 노트만으로서 충분하지. 더욱이 나는 자신의 작품의 양(量)에 대해서는 별관심이 없어. 생각해 보게, 나에게겐 앞으로 20년이란 세월이 기다리고 있네. 그리고 내가 희망하건 희망하지 않건 아무래도 나의 책이 나의 책 위에 첨가되어가는 것이야. 게다가 책을 읽어야지. 또한 알아두어야 할 것이 산더미처럼 있단 말일세.

1월 24일

레이노가 나에게 나의 보호자, 즉 표면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프랑스인가, 르메트르인가, 로스탕인가?). 그 사람이 도처에서 나를 좋게 말해 주고, 도처에서 선창(先唱)을 불러주고, 그 사람 덕분에 1년쯤은 신문을 펴기만 하면 “어째서 쥘 르나르에게 훈장을 주지 않는가?”라는 기사를 읽게 되고, 그 사람의 진력(盡力)으로 예컨대 문학에는 별로 밝지 못한 프티 줘르날 지(紙) 등이 《홍당무》를 칭찬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어처구니없어 나는 대답한다.

—내 일신상에 일어난 모든 것은 세 가지 이유에서 연유하는 거야. 나에게서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 내 자신이 한 번도 그것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것,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그러하지만, 나의 경우에도 얼마간의 부화뇌동(附和雷同)과 행운의 덕분도 있는 것이지.

그의 말에 의하면 성공을 하려면 완전한 하나의 조직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시라노>의 경우도 우연히 그렇게 성공한 것이 아니고, 테스파르베스도 아로쿠르의 일당(一黨)에 가입 했다는 등 이러쿵저러쿵 말한다. 그는 순수한 라마르틴인 모레아스의 천분을 칭찬한다. 그는 마침내 그 천분이 비범(非凡)한 것은 아니라고 털어놓는다. 단지 모레아스에 있어서는 단순한 표현이 항상 단순한 사상과 같은 뜻을 지니고 있다는 자기주장에 찬성해 달라는 것이다.

1월 27일

만일 어쩌다가 나처럼 가련한 사나이, 가정과 서재에서만 사는 사나이에게도 한 여인에게 홀딱 반하는 수가 있다면 나는 그 심정을 어떻게 그 여인에게 말해야 할지, 또한 어떠한 징후(徵候)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아도 좋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을지 분간하지 못하리라.

—그래요, 잘 해보셔요, 멋있는 가면(假面) 씨! 좀 도와드릴까요?

—오, 뭐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난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 안 됐군요, 하고 그녀가 말한다.

1월 28일

핑이라니, 그건 저택의 수탑이지, 하고 바이가 말한다.

‘청동’이라는 말이 미술품을 의미한다는 따위의 취미인(趣味人)의 한 사람이다.

그녀와 그는 지갑 고리쇠의 두 덩어리처럼 얼싸안고 있다.

—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시기를 빕니다.

— 감사합니다. 그것이 소원이 되도록 애써 보겠습니다.

나는 발작과 반대되는 것을 말해보겠다. 글을 쓰다니, 그럴 시간이 있나! 나는 관찰을 하는 것이다.

서로 스쳐가는 두 사람의 레지옹 도뇌르 훈장 소지자의 적의(敵意). 뭐라고! 그 자도 훈장을 땀단 말이야?

베르네 씨, 그를 극히 희극적인 타입, 분별은 있지만 용기가 없고 성실하지만 단단치 못하며, 감각은 잘하지만 우스꽝스러운 일종의 스가나렐(몰리에르의 희극 중의 이름, 오쟁이 진 남편을 뜻함)로 만들기.

지나치게 압축된 문체. 독자는 숨 막힌다.

빅토르 위고, 그 눈사태와 같은 시구(詩句).

물결 모양의 큰 하프 뒤에, 우리 속에 들어 있는 소녀. 그 우리의 창살을 손가락으로 긁고 있다.

내 꿈에 떠오른 시. 잠에서 깨어나 이성(理性)을 되찾으니 태양을 만난 이슬처럼 되어버린다.

브린은 칠리앙의 테라스에서 홀로 한겨울인데도 모자도 쓰지 않고 실크해트를 멀리 집어던지고 압생트 주(酒)를 마시면서 신문을 읽고 있다. 이것이 연극인이다.

빅토르 위고는 우리에게 아주 섬세하다는 것 이상으로 독창성을 허용치 않는다.

무엇이고 다 본다는 신(神)은 얼마나 재미있을까!

장미꽃은 순결의 빛깔이 있다. 하지만 거짓의 빛깔도 있다.

— 난 자네에게 이러한 좌우명(座右銘)을 주었지, 하고 앙데스가 말한다. “저마다 자기 일을.”

1월 31일

16세기. 사망에서 싹트는 말. 말 많은 봄. 푸릇푸릇하다. 잡동사니다. 위험하다. 그러나 좋다.

국회에는, 하고 레옹 블뤼이 말한다. 국회에는 두 사람의 달변가밖에 없다. 조레스와 클레망소이다. 조레스는 순진한 사람이다. 산문으로는 빅토르 위고 못지않다. 그는 밀르랑에게 대신이 되지 말라고 간청했다. 그러나 밀르랑이 일단 대신이 되어버리니까 그를 지지했다. 그는 무사무욕(無私無欲)하다. 그가 고심하는 것은 사회주의자들의 우둔함뿐이다. 그가 행한 어떤 연설에서 세목(細目)을 비판받았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말한 것을 기억할 수 있나?”라고. 자유인이란 자기의 이성(理性)을 두려움 없이 끝까지 관찰하는 사람이다. 비비아니는 함정에 빠지기 쉬운 인물로서 무욕한 사람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바르투는 브리송 내각 붕괴의 책임을 짊어졌다. 브리송은 청렴강직한 융통성이 없는 사나이다. 그러나 그의 몇몇 생각은 나도 호의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나에게서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발데크 루소는 총명한 사람이다. 그러나 말하자면 프레이시네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는 없다. 클레망소는 연단에 서서 20분쯤은 반박자로서는 비길 데 없는 인물이다.

나는 <르뤼 블랑슈(白色評論)>에서 ‘광인(狂人)의 회상’ 마지막 장을 읽는다. 플로베르는 모파상이 다다른 막다른 골목, 즉 위대한 평범에서 시작했다. 그것은 <물 위에서>를 상기시킨다. 하지만 시기가 너무 빠르다. <물 위에서>처럼 한 인간의 생애가 없다.

2월 4일

나는 트리스탕에게 빅토르 위고는 서른 넷에 익명으로 여행을 했는데, 여러 교회 의 담벼락에 자기의 이름이 씌어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해 준다.

—그래, 두 번째 여행에서는, 하고 트리스탕이 말한다.

2월 5일

성홍열(猩紅熱), 백일해, 국소성늑막염(局所性肋膜炎)에 이어 이번에는 또 무슨 병에 걸렸단 말인가? 이 아가씨는? 이제는 모르겠다는 의사의 표정. 열이 이처럼 계속되고서야……, 그는 마침내 이렇게 말한다.

—나로서는 별로 불안하지는 않지만 위티넬을 찾아볼 생각입니다.

그 이름을 듣고서 나는 목에 작은 덩어리가 걸린 것같이 느껴진다. 그것은 이전에 부쉬 박사가 팡테르를 “이것은 크루프성(性) 후두염이요”라고 했을 때 느꼈던 것과 같은 것이다.

그는 청진한다. 바이는 그 때문에 숨도 쉬지 못한다. 그는 간장이 커졌다고 느낀다. 늑막의 환부(患部)는 커지지 않았지만 작아지지도 않았다.

—나로서는 별로 불안하지는 않지만, 하고 그가 말한다. 하지만 이 전체의 증세가 나로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마리네트와 나는 이미 말할 용기도, 서로 바라볼 용기도 없다. 왜냐하면, 눈이 너무도 잘 말해 주기 때문이다. 이 자그마한 존재가 죽는다는 것은 쉽사리 상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짧고 빠른 순결, 이것이 생명인 것이다. 어찌하여 그것이 불안간 멈추는 일이 없겠는가?

그리고 한없는 나의 에고이즘은 이렇게 생각하게 한다. 나는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했다. 형의 죽음을 목격했다. 그리고 아마 그것도 역시 목격해야겠지. 에고이스트이긴 하지만 나는 기꺼이 대역(代役)을 해 주리라. 그녀를 살아남게 하기 위하여 내 자신이 이 세상을 하직하는 것이다. 물론 매우 흥분할 때의 이야기이지만.

나는 평생을 에고이스트로 살아갈지도 모른다. 그러나 에고이즘에도 그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한때는 그것을 포기하는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내일 올 것같이 생각되는 그 사나이, 즉 신(神), 불의에 우리의 호흡을 습격하고 아마도 되는 대로 지킬이고, 그래도 자기가 말한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나이. 밤 11시, 여전히 이 40도라는 열, 이 타오르는 자그마한 몸통이, 하나의 작은 영혼을 게걸스럽게 먹어 치우는 이 내부의 화룡이, 불꽃의 반사가 하나의 위에서 갈라진다. 그녀는 눈을 감고 자고 있는 것일까? 너 자니? 다시 눈을 뜬다.

눈꺼풀만이 대답할 힘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엄마. 그녀는 비록 그럴 적마다 온 몸으로 괴로워해야만 할지라도 한 방울, 한 방울 자기의 생명을 떨어뜨려 줄 것이다. 그녀의 마음에 비하면 한 문학자의 마음 따위가 다 무엇이란 말인가!

2월 6일

밤이 새서 나는 자신도 모를 일을 떠들어대도, 그래도 나보다 틀림없지 아니할 그 러한 사나이가 무어라 하건 두렵지 않다. 그리고 처음에는 위티넬이 나를 하인으로 알고 인사도 하지 않는다. 나의 서재에서 그와 콜라슈 사이의 최초의 밀담. 긴 밀담이다.

그가 올라온다. 딸자식의 평상시 상태와 유년시절에 대한 질문. 그리고 양친은? 나는 나의 양친 이야기간 생각한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들, 내 이야기인 것이다. —신경질은 아닙니까?

오! 신경질이고 말고. 혀(舌), 눈 속, 배, 청진.

콜라슈에게 무언지 분명치 못한 말을 한 마디. 아마도 그것이 유일한 진담일 게다. 그는 몸을 일으켜 안심시키려는 두세 마디를 하고 콜라슈와 함께 다시 내 서재로 내려간다. 견디기 어려운 순간. 그들이 또 올라온다.

—그런데 부인, 참말은 이렇습니다. 현재로선 전혀 위험은 없습니다. 늑막염은 이 이상 더 악화하지는 않을 게고요. 열도 내릴 겁니다. 회복기에 가장 경계하셔야 합니다. 말씀드릴 것은 이것뿐입니다.

처방. 절식(絶食)을 중지하고 영양식을 할 것. 점적약(點滴藥) 몇 방울. 가슴을 탈지면의 코르셋으로 쌀 것. 회복기에는, 처음에는 시골, 이어 여름에는 스위스에서 한 달 완전한 휴양. 작은 동물의 생활.

—그러면 로스탕이 가있는 곳은?

—안됩니다.

그랑세에 대한 적의(敵意).

—로스탕의 폐렴을 발견한 것은 집니다, 하고 위티넬이 말한다.

2월 7일

카푸스. 그 나름의 기지(機智).

—이 이발소에서 헤어 드레스를 해야지(헤어 드레서), 하고 그가 말한다. 그가 거기서 나온다. 그리고 불만스러운 듯 이렇게 말한다.

—두 번 다시 이런 데 머리털을 넣는가 봐라.

16세기. 철자법(綴字法). 그들은 그 아름다운 말을 덤불 속의 새집처럼 문자 밑에 감춘다.

진실이라는 것은 수년 동안 그것을 발견하지 않고 지낼 만한 가치가 있다.

자기 시(詩)를 그에게 읽어주는 몽테스키외에게 블루아는 말한다.

—자네는 나에게 돈을 치러야 할 걸세.

팡테크. 그가 그것에 합당한 인간이 될 때 이 일기를 읽도록.

2월 8일

기트리는 파괴자다. 그렇지만 그는 장소를 가로막는 방해물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는 스스로 진창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하여는 가차 없이 경멸을 던진다.

그는 <인간 혐오자>(몰리에르의 희극)에서 금년에 최초의 무대에 나서기로 되어 있어. 나에게 묻는다.

—그리고 다음에는?

—다음에는 내가 나가야지. <여인의 학교>는 나에겐 힘들지만 만 것은 하고 싶지 않아, 그는 배우로서는 무섭게도 합당한 말을 한다. 왜 그는 아주 부유한 대귀족이 아니었던가?

—틀림없이 당신은, 하고 브랑데스가 말한다. <인간 혐오자>의 역에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많이 들을 거예요.

—이러쿵저러쿵 이요! 하고 기트리가 외친다. 여기저기서 얼빠진 녀석 셋이 모여 내 이야기를 해보았겠자 나에게 무엇이란 말이야!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르나르. 사람들이 자네를 두고 이러쿵저러쿵 한다고 생각하면 말이지?

이런 말을 하면서 그는 입술을, 코를, 눈을, 경멸하는 뜻으로 꿈틀거린다. 그는 멀



시로 부글부글 끓어오른다.

모리스의 옛 친구의 방문. 리갈 선생의 제자이다. 오오! 음산한 사나이! 이 인간이 무엇에 쓰일까? 소용이 된다면 물건을 끄는 말과 같은 존재일 것이다.

자신이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돌연 그 가련한 사나이라는 존재와, 자기라는 눈곱만한 가치가 있는 인간 사이에 하나의 섬연(深淵)이 가로놓인 것을 본다. 발테크 루소와 같은 사나이는 이러한 자들을 몇 백명이고 받아들이는다고 생각된다.

그는 “나는……이 생각된다”라고 말한다.

—나를 알아보시지 못한다고요! 하지만 모두들 나를 잘 알고 있는데.

그를 만류한다. 그를 기억했기 때문이다.

그는 옛 동료로 성공하지 못한 자들을 무척이나 멸시한다. 그는 일 년에 2만에서 3만 프랑의 돈을 버는 ‘멋진 인간들’을 알고 있다.

무진 애를 쓴다. 그의 감정을 상하게 할까봐서이다.

그래도 그는 파탄에까지 몰고 가지 않고 이처럼 말하면서 떠난다. “다시 봅시다. 르나르 군.”

—당신의 연극이 상연됐지요? 하고 그가 말한다.

—3년 전이에요, 네.

—아! 그래요?

—생 라자르 가(街)의 조그마한 극장에서였지요.

—그렇겠군요. 기억이 안나니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자기 이야기를 할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만큼 헛수고이니까.

—나도 여러 가지 일은 했지요, 하고 그가 말한다. 놀기도 많이 놀고요. 그래도 육 년 동안 만 프랑을 모아 놓았습니다.

그들과 우리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일을 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는 확신이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일이지? 그들은 관리(官吏)를 경멸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나는 독립했어. 그러나 무척 고생을 했지.”

—아무래도 당신을 알아볼 수 없군요. 하고 나는 말한다.

그는 두드러지게 기분 나쁜 표정이다. 까닭인즉 그도 또한 사람이 자기를 알아본다는 것, 자기도 하나의 인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소소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변명한다. 수염은 기르고 머리는 깎고 “게다가 그 당시, 당신은 나보다 더 키가 컸지요. 그래서 나는, 당신을 밑에서 위로 쳐올려 보는 습관이 있었습시다”라고 마침내 나는 그 당시의 젊었던 그의 웃는 얼굴의 주름살을 생각해내는 것이었다.

—부이예를 찾아보시오, 그 약제사말입니다, 하고 그가 나에게 말한다. 아주 친절 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별난 사람이지요. 웃길 겁니다.

나는 찾아보겠다고 하는 대신, 외출하는 성품이 아니라고 대답한다.

—에, 어째서요?

그리하여 나는 설명해야 하고 우물쭈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또한 내가, 나의 작은팔이 병에 걸렸노라고 하니까 장티푸스 때문에 열이틀 만에 죽어버린 어떤 사나이의 이야기를 한다. “1월 22일, 그렇습니다. 틀림없이 22일입니다.” 그런데 그 자는 그 장사로 이미 3, 40만 프랑의 거래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는 <홍당무>의 포스터를 바라본다.

—아아! 이것도 당신의 것이지요, 이 연극도?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네, 네. 그런데 벨르빌르 형제는? 벨르빌르의 두 형제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내가 화제를 돌려도 꿈쩍도 하지 않는다.

## 2월 9일

기트리는 앙리의 가게에서 포랭과 폴 로베르의 정면에서 저녁식사를 한다. 그들은 도자기로 만든 개처럼 식사를 하고 있다. 포랭과 기트리는 궁색했던 시절의 친구였다. 오늘날에는 이 두 사나이가 많은 돈을 벌어서 25프랑짜리 저녁식사를 하게 되

었지만 드레퓔스 사건이라는 구실이 있었음을 기화로 인사도 하지 않고 서로 경멸하는 입장이다.

나도 인사를 하지 않는다. 하기는 먼저 눈을 내리고 고개를 돌린 것은 내 자신이었다.

2월 11일

부인, 냉담한 대접을 감사합니다.

2월 12일

기트리는 레이그 내각의 수상 폴 느베에게 나를 소개한다. 느베는 서너 번이나 나를 만나서 기쁘다고 말한다. 그는 큰 사나이로 끊임없이 또한 어김없이 머리털 속에 손을 집어넣는다. 그도 역시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준다. 이야기인즉, 시골에서 죽는 것은 지극히 간단한데 파리에서는 몹시 귀찮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2월 13일

바이, 갑자기 열이 내린다. 속내의가 다 타버린 것처럼. 체온표(體溫表)에 열의 종루(鐘樓)가 그려진다.

강물에 빠진 자가 기도를 올리기 위해 손을 모으면 이미 가망 없는 게 아닐까? 그렇다면 끝까지 헤엄쳐야지.

2월 15일

바이. 위티넬은 바이의 용태가 좋아졌다고 생각한다. 물을 빼낸다면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행할 터이니 그리 알라는 것이다. 바이가 이제 우유에 싫증을 낸다고 한다. 그러자 그는 즉석에서 〈타르튀프〉를 인용한다.

—상대가 하늘이라면 타협의 길은 있습니다. 여전히 우유를 먹이세요. 하지만 속여서 말입니다. 싱거운 맛을 없애서 치즈처럼 해도 좋고요. 그렇군, 생각이 납니

다, 하고 내가 그 아이를 알기라도 하듯 나를 가리키며 말한다. 쥘르 시몽의 꼬마 따님이지요, 그 아이에게 스위스 산 치즈를 준 적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 아이는 지금쯤 결혼을 했을 겁니다. 잘게 토막을 낸 닭고기를 수프에 넣은 것이라든가, 과일 일을 익힌 것이라든가 자두와 버찌의 설탕절임 따위를 먹이도록 하십시오. 줄곧 바이의 머리 너머로 <홍당무>의 포스터를 바라보면서 그는 정신없이 멍하니 꿈꾸고 있는 것 같다.

의술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확실한 것이란 거짓된 희망뿐이다.

위티넬. 그의 부사(副詞). —세균학적으로.

청진할 때 자기 손가락을 살살 두드려 소리가 확실히 다른 곳을 찾아내면 그는 피아니스트처럼 한 손가락을 높이 쳐든다. 그는 등을 북쪽으로 돌린다. 궁둥이에 댄 손가락은 열기로 오글오글해진다.

뚱뚱한 몸을 프록코트로 감고 있지만 그 프록코트의 열린 부분이 엉덩이가 튀어나 오는 바람에 멋진 종루형(鐘樓形)을 이루고 있다.

“우리들의 건강상태는” 하고 그들은 마치 그들 둘이서 온 파리와 프랑스를 책임지고 있는 것처럼 말한다.

## 2월 18일

몰리에르. 그가 가장 멋진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의 혀(舌)이다. <수전노>의 아버지와 자식의 장면처럼 극적인 것은 없다. 수전노의 독백(獨白)은 좀 배우를 위한 독백 같기도 하다. 쿠포의 소위 알콜 중독에 의한 섬망증(譫妄症)이다. 그것은 구경꾼을 열광시키지만 좀 거짓스러운 점도 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연애장면! 쿠르틀린이라면 그것이 몰리에르의 연극을 엉망으로 했다고 말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상쾌한 휴식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말(言語)은 자고새처럼 불려난다.

바이는 자기가 계속 병에 걸려 평생 병석에 눕게 될지도 모른다고 예상하고 그것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아직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리라는 것은 예상하지도 못한다. 그녀는 그곳 병상에 홀로 누워 죽음을 생각해보지도 않는다.

그녀의 빼빼한 손의 짧고 가냘픈 맥박.

풀(糊)병처럼 언제나 비스듬히 모자를 쓴다.

신(神)을 욕하거나 쓰거나 할 때 느끼는 일종의 오뇌(懊惱).

재치를 가지려는 노력은 그다지 있지도 않은 재치조차 망치고 만다, 라고 기트리가 말한다.

문병을 갔다가 자기가 그 병에 걸리거나 남이 걸리는 경우를 보아온 그러한 모든 질병 이야기를 한다.

나는 일찍이 나중에 큰 사고를 일으킨 기차를 놓쳐본 그러한 행운조차 가져본 일이 없다.

나는 아침마다 넉넉히 한 시간은 웃는 연습을 한다. 사람들이 친절하게도 나에게 준 유머 작가라는 훌륭한 이름에 합당한 인간이 되려고.

—난 내 장난감을 줄 수도 있어, 하고 그 아이가 말한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어. 이건 내 것이니까.

아아! 어째서 나도 역시 태어나자 모체(母體)의 생명을 뺏지 않았던가!

〈홍당무〉의 전 생애를 쓰는 것. 하지만 꾸미지 않고 적나라하게 쓸 것. 이것은 오히려 르포르쉴 씨를 그린 책일 게다. 모든 것을 그 속에 넣어 둘 것. 오오! 그로부터 그 예쁘고 불결한 꼬마 아가씨에 대하여 여러 가지 고백을 들었을 때 나는 얼마나 난처했던가! 때때로 나는 내가 그의 아들이 아니라고 알려주고 싶어진다. 나는 그것이 재미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내가 그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기. 아주 내어놓은 시이즘으로 모든 것을 말하기.

그가 죽은 뒤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여 짙막하게 끊은 송가(頌歌)와 같은 것으로 끝마치기. 울부짖게 하고 울게 하는 책.

나는 나의 작은 누이를 위하여 쓰지 않는다.

나는 이미 이 글을 썼는데 마땅치 않다. 나는 그것을 다시 시작한다.

때로는 그가 나에게 자기의 생애를 말해 줄 것이며, 또 때로는 내가 그것을 예측하리라.

그는 특하면 예수를 인용한다. 휴가. 역마차. 그는 부대 자루를 가지고 있다.

그의 여러 가지 사진.

나는 한 사나이로서 이 책의 이야기를 쓴다.

—르피크 부인은 싱싱한 여자였다. 나는 그녀를 사랑하지도 않았는데 함께 갔다. 그러나 막상 싫지는 않았다. 그리고 글을 쓰는 동안 나는 마음이 녹는 것을 느낀다.

그는 나에게 절약하라는 충고를 주곤 했다.

마리는 그에게 추파를 던지곤 했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노파가 항상 마당 문으로 돌아오기 때문이었다.

왜 이 책을 쓰기에 주저할까보나. 내가 묘사하는 인물의 반은 이미 죽어 있다. 판 인물들도 내일이나 모레쯤은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내 책 때문은 아니다.

맨 먼저 그는 아가씨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만일 내가 싫어져도 그렇다는 사실을 말하지 마오.”

—좀 빨리 그녀를 보려고 계단을 뛰어 올라갔었지.

—그럼 나는?

—오오, 너는 내가 바라지도 않았는데 태어났지.

—그래도 나는 기분이 상하지 않았지.

나는 그가 일하는 것을 한 번밖에 보지 않았다.

—그 녀석들은, 하고 그는 대신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었다.

그는 내가 여자들에게 빠지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나를 경멸한다. 그의 외설스러운 말을 듣고 있자니 그보다도 오히려 이쪽이 더 어색해진다. 나는 얼굴을 돌린다. 웃기 위해서가 아니라 얼굴을 붉히기 위해서이다.

사냥. 그와 모리스와 나 사이에 벌어지는 질투의 장면. 셋이서 주먹다짐을 한 것 같은 기분.

바이는 어항 속에 든 고래가 갖고 싶단다.

어항 속에 든 금붕어를 주시오. 그러면 나는 당신들의 동방(東方)을 꿈꾸리라.

하나의 걸작품이 첫눈에 완전히 알려진다는 것은 좋지 못하다. 뒤따라 올 각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할 여유를 남겨 두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흠을

찾아낸다.

알고 있는 아이에 대하여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대단치는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이야기는 그만두세요”라는 뜻이다.

르피크 씨, 그는 이 작은 계집아이에 대한 자기의 애정을 몹시 강조한다. 아마도 그는 나를 또한 그 정도로 사랑하고 있겠지만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는다.

—그 후로는 모든 게 그저 그렇지, 하고 그가 말한다.

둘이서 형을 혈투를 때에 느끼는 나의 야릇한 쾌감.

형제에 관한 그의 학설.

이거 좀 음란하군, ‘자연(自然)’부인은.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느끼는 이 돌연한, 목욕탕 속에 들어앉은 것 같은 뜨거운 기분.

2월 20일

르피크 씨, 때때로 나는 그에게 욕설을 얻어먹고 싶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어떤 일로?

위티넬, 위대한 의사이다. 귀엽고 작은 환자들은 그 병상에서 그를 위하여 예쁘게 화장을 한다.

한 여배우와 함께 자기 위해서 오막의 운문극(韻文劇)을 쓰기란 이 젊은 시인들로서는 식은 죽 먹기다.

자기 자신에게도 말을 할 용기가 나지 않는 진실을 남에게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가 있다면!

2월 21일

르피크 씨, 그렇게 말하고 난 뒤에 나는 결혼하기로 작정한다. 그의 태도는 몸을 녹이고 있다. 음악이 시작되자 그는 “좋아!”라고 한다. “이제 그만!”하는 말은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그 소리로 알 수 있다.

—자네들은 나에게 상의도 없이 모든 것을 해버렸으니까…….

1870년에 그는 비스마르크와 통신을 하였다고 고소를 당했다.

나는 그를 어린이의 눈으로 본다. 그리고 나서 젊은이의 눈으로 보고, 다음에는 어른의 눈으로 본다. 그의 죽음.

그가 코퀴라는 것, 그리고 내가 그의 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 재미있을 것이다. 그것은 나에게 많은 일을 설명해 주리라. 하지만 나에게만은,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내 집안을 변형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생각하는 것의 반대되는 일만 하면 될 게다. 그의 성직자에 대한 증오심.

나는 그들을 이혼시키려고 애쓴다. 외양간에서의 그와 나 사이의 대화. 그러나 르피크 부인이 문턱에서 엿듣고 말았다.

가끔 나는 그에게 머리를 맞거나 정면으로 충격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질 때가 있다.

기트리는 꽃무늬의 긴 실내옷을 입고, '부르주아 장띠오르'를 꼭 닮았다. 게다가 그는 이 '부르주아 장띠오르'의 일부를 멋지게 읽어준다.

근본을 파헤쳐 보면, 우리들은 얼마간 부알로, 몰리에르, 라신과 라퐁텐 등 네 친구의 교우(交友)를 꾸미고 있는 게다. 다만 누가 몰리에르가 되고 누가 라퐁텐이 되느냐는 문제는 애매하게 남겨 두기로 한다. 우리는 모두 우아하고 섬세하다.

브랑데스는 간호부로서 매우 아름답다. 최근 숙모를 잃고 상복을 입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트리스탕. 자기의 구두끈을 풀어 줄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확신을 더욱 더 굳히고 있음에 틀림이 없다. 왜냐하면, 그의 구두끈이 매여 있었던 일이 결코 없었으니까.

그렇다. 자연은 아름답다. 그래도 암소를 보고 너무 측은해져서는 아니된다. 암소들도 세상 사람들과 매한가지이니깐.

2월 25일

오, 오! 여전히 같은 시각이 되면 상승하는 이 부정(不正)이 없는 체온계. 이놈이



사람을 열나게 하는군.

그리고 이런 것만 없다면 아마 아무런 걱정도 없이 지낼 수 있을 게고, 그리고 시골에서 라면 이정도로 열이 있는 어린이는 길거리에서 뛰어놀 것이라고 생각하니 정말 못 견딜 지경이다.

나는 그녀의 머리맡으로 다가간다. 침대 살에 머리를 기대고 그녀는 이미 잠들어 있다. 나는 그녀에게 편히 누워있도록 다정하고 간단한 안녕이라는 말을 던지고 기다린다.

그러나 그녀는 우리 속에서 코를 곤다. 배가 고프지 않은 게다.

여자. 큰 슬픔을 겪은 뒤에는 관자놀이에 분을 바르고 자기 머리털이 희어졌다고 믿게 하려 들 것이다.

나도 역시 옆에 놓아둘 돈은 있다. 하지만 그 옆에 라는 것이 좋은 옆이 아닐 뿐이다.

뭘세, 보다 자연적인 맛이 있는 로스탕. 그러나 그는 언제나 젊은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사람일 것이다. 삼십대의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이해하지 못한다. 지루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리고 밤에는 시인이 야비하기 이를 데 없이 뮤즈(詩神)에게 대답하기를 거부한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이 용감무쌍한 시라는 것이다.

깃털장식이라면 무엇인들 무관하다. 그들은 중도에서 고장 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결벽(潔癖)—조차 없다.

그리고 시인의 이 기계와도 같은 풍부함! 얼마나 많은 시이라! 때로는 “그저 참 좋군!”이라고 하게 하기 위하여 이 얼마나 많은 시이라!

2월 27일

어제 기트리는 거의 수줍은 듯이 나에게 말했다.

—하여튼 나의 각본중의 제1막을 자네에게 읽어달랄 셈일세. 대사를 말이야. 내 자신도 진절머리가 나는 그 대사까지도.

그리고 그는 봉투를 하나 가지고 온다. 봉투 위에 ‘종이쪽지’라는 낱말이 씌어 있

다. 숙연 정말 종이쪽지가 들어 있다.

그는 읽는다. 그리고 그것은 상당히 좋다. ‘도네’라는 것이다. 나쁘지 않다. 발굴된 배우도 있고 해서.

어느 간통(姦通) 이야기인데 추잡하지 않다는 독창적인 면이 있다. 어찌할 바 모르는 오쟁이 진 남편, 공감이가 가는 태도로 우세한 입장에 있는 애인. 그와 아내가 함께 있는 것을 본 남편이 옆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중얼거리고 있는 동안 그는 당구를 치고 있다.

## 2월 28일

알세스트는 사교계에서 성공 못한 사람에 불과하다. 태연했더라면 그는 더욱 아름다웠으리라. 그러나 인간 혐오자로서는 흥미가 덜 가는 사람이 되었겠지만.

만일 국왕이 “우리 둘이서”라고 했더라면, 만일 샬리멘이 처음부터 그에게 입 맞추었더라면, 만일 오롱트가 그에게 “당신이 훌륭한 시를 쓰신다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라고 했더라면.

우리의 미덕은, 우리가 악덕을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 없다는 무력의 덕택이다.

〈행운〉을 우리가 상연하게 해 주시오, 하고 사뮈엘이 카뮈스에게 말한다.

—〈행운〉은 우리가 지금 ‘프랑스 좌’에서 상연할 예정인데, 혹 기트리가 원한다면, 그쪽으로 돌려도 좋지, 하고 카뮈스가 대답한다.

—클라르시만 좋다면 내가 해도 좋아, 하고 기트리가 말한다.

—나는 각본을 돌려줘도 좋아, 하고 클라르시가 기트리에게 말한다. 자네에게 휴가를 줘도 좋고, 하지만 딱 각본을 다룬다면 말일세.

그라니에가 레이그 대신(大臣)에게 클라르시와 중재시켜 달라고 부탁하러 간다.

—좋아, 하고 대신이 말한다.

그러나 기트리가 클라르시에게 편지를 쓴다. “나는 그 운동에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이미 알세스트로 출연하기 위해서 의상을 맞추고 반지를 찾는 중이다. 사실은 이 때문에 그는 난처한 입장이다. 카뮈스는 것처럼 기트리에게 부탁한 것이 난

쳐하다. 그라니에 또한 그 각본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면 대신을 만났다는 것에 고  
민하리라. 그리고 사뮈엘도 카뫼스에게 “굳게 약속했습니다” 하고 말한 것을 괴로  
워하리라.

그런데 모두들 그럴 모양이니 그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하여 그리 신경을 쓰지 않는  
다.

### 3월 1일

나는 기트리에게 물어본다.

—자네는 숙명론자인가? 미신을 믿는가? 때로는 라브뤼에르처럼 신을 생각하는  
가? 그는 머리 위에 집이 무너질 정도로 큰 소리로 웃으면서 대답한다.

—아니! 결코 안 그렇지!

13살 때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배우 몽로즈가 그를 콩세르바투아르(연극학  
교)에 입학시킨 것이다. 코메디 프랑세즈와 계약했다. 짐나즈 좌(座)로 옮겨 그 때  
문에 1만 프랑의 위약금(違約金)을 치른다. 다음엔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옮겨 4만  
프랑을 벌여 엉망진창으로 놀아나기 때문에 불량제만큼이나 인기를 얻는다. 그래  
서 결혼하고 이혼한다. 그는 이미 1백만 프랑 이상을 써버렸지만 돈에 집착하지 않  
는다. 사뮈엘은 〈행운〉의 출연조로 5백 프랑 내지 6백 프랑을 그에게 제안하였다.  
서명 단계에서,

—5백 프랑으로 참아주시겠소? 하고 사뮈엘이 말한다.

—좋을 대로 하시오, 하고 내 앞에서 좀 부끄러운 듯 기트리가 대답한다.

그는 자기가 하는 것을 경멸하는 체한다. 훌륭한 배우가 된다는 것보다 쉬운 일은  
없다.

—내가 하는 일은 일당 1백 프랑의 값어치도 안 돼, 하고 그가 말한다. 하지만 주  
위의 사정이 나를 뛰어난 인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5백 프랑을 치러주는 것이지.  
알레가 말한다.

—나는 이제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 없어. 마누라는 와병중이고 게  
다가 벌써 1주일 전부터 의사를 불러오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날마다 그걸 잊으니

말이지.

지극히 풍부한 천분을 가지고 있는 기트리. 그의 옆에 있으면 누구나 자신의 빈곤함을 느끼게 된다.

그는 질투하고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의 재능에 대하여 지나치게 칭찬하지 않는다는 요령을 터득하고 있다.

그는 사람이 좀 난처해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난처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마음씨가 곱다.

그는 어느 희극 배우의 이 이야기를 한다. 이 배우는 어떤 성당을 구경하러 가서 구석구석 수위의 안내를 받고 나서 나갈 때 “참 훌륭하오. 하지만 금연(禁煙)을 당하고 좋은 맥주를 대접받지 못했으니 한 폰도 줄 수 없소”라고 말한다.

취미, 일종의 치명적인 특질.

우리는 상대방에게 참을 말하도록 계락을 쓴다. 그러나 동시에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자신을 드러내놓지는 않는다.

바이, 신선한 그림물감으로 다시 채색한 그녀의 얼굴.

행복이라는 것은 사람을 선량하게 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람이 남의 행복에 관하여 행하는 관찰이다.

경멸처럼 가장하기 쉬운 것은 없다.

### 3월 4일

〈프와리에 씨의 사위〉. 잘 꾸며지고 지나치게 상스럽지만 그래도 역시 재미있는 각본의 전형(典型).

의학사전을 들춰보는 것만큼 삶에 혐오증을 일으키는 것도 없다.

### 3월 5일

독창적인 특질로 대중의 마음에 든다는 것, 모든 문제는 여기에 있다. 비위에 거슬릴 정도로 대담하게 한다면 그보다 쉬운 일도 없다.

3월 7일

카뮈스는 〈행운〉에 도취되어 있다.

—저 기트리라는 자는 정말 감탄할 만 해, 하고 그가 말한다.

—기트리는 또 자네 각본이 좋다고 하던데.

—그래, 그럴 거야, 두 가지 이유로 말이야. 그 첫째는, 기트리가 그 각본에서 배우로서 볼 수 있는 것이 그것이고, 그 다음에 기트리가 그곳에서 보지 못하는 것, 즉 내 각본을 오늘날의 습관에 결부시켜 주는 것이 그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이유가 과연 무대에 통용 되는가 어떤가가 문제이지. 그러나 그것은 전혀 수수께끼야. 대답해야지. 모든 것이 바로 그거야. 나는 내 각본을 다시 읽어봤어. 나는 어떤 장면을 감히 찢어보지 못했지. 지금에 와서는 나는 그런 곳을 찢르고 있어. 그리고 여기서 아마도 멈춰야만 할 지점에 다다른 거야. 대답한 점이 오히려 어리석음을 우려도 있지.

그리고 유태인이라는 것의 정의(定義). 그것은 무모한 정의다.

—유태인은 기다릴 줄 모른다. 즉석의 이익을 바라는 것이다. 자기의 대단치도 않은 일이 요란한 수입을 가져오기를 바라는 게지.

현재 이 매력적인 중심사상이 무어나 하면, 베르농에게 자기를 위하여 베란다를 짓게 하는 것이다.

3월 11일

그는 나와 팔짱을 끼려 든다. 나는 보도의 줄나무가 항상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있도록 마음을 쓴다.

극작가 협회에서 에르비외를 만난다.

—훌륭한 사람들만 모여 있습니다, 하고 내가 그에게 말한다.

—그렇소, 하고 에르비외가 말한다. 내가 아카데미에서 당신 이름을 말해 두었지요. 상금을 청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수여될 상금에 대해서 말입니다.

—무턱대고 청구해야만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게다가 꼭 말씀드려야겠습니다만 당신의 이름이 압도적으로 받

아들여진다는 법도 없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데 소렐은…….

그리고 그는 또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낸다.

—확실히 나는 청구하지 않았어야 했을 겁니다, 하고 나는 말한다. 하지만 5백 프랑이라면 싫지 않거든요.

—아니 상금은 더 큰 돈입니다. 아카데미는 청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상금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빼올 수 없었던 겁니다.

—감사합니다……. 송구스럽습니다.

—별말씀 다 하십니다. 당신을 위해서 몇 마디 한다는 것은 그렇게 불쾌한 일이 아니니까요. 당신의 생활이랑 재능이랑 대중에 대한 무관심 따위에 대하여 말하자면 고상하고 훌륭한 말 밖에는 있을 수 없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하여 무엇이나 복구해 준다는 것도 싫은 일은 아니구요. 상금이라든가 훈장이라든가, 혹은 그저 자리만이라도.

나는 피곤하지 않다든가 앓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다든가 하는 대답만은 하지 않았다.

자야! 그대의 소심함이 자주성(自主性)으로 보여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또한 그대의 자주성이 술책이 되어서도 안되고, 일부러 하는 짓은 아니라 해도, 너는 남을 도와줌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을 위하여 에르비외도 말하듯 보호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것을 이용하려 들지 말라. 너는 부지중에 행운의 사나이가 되었어. 그 행운을 점잖게 멀리 하라. 그리고 자기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손을 잡아도 반가워하지 않는 그러한 손으로 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도록 하라.

### 3월 14일

그녀의 가련한 눈은 1년 내내 그 얼굴 위에 비를 뿌렸다.

타르튀프(몰리에르의 작품 속 주인공, 구두쇠)를 마을의 주임사제(主任司祭)로 삼을 것.

르피크 씨, 그는 나의 아버지였다. 우리는 오랫동안 함께 살았다. 서로 의종게 살아 왔다. 그는 죽었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로부터 탭탭하고 뜨겁고 맛있는 수프를 애호한다는 취미를 상속받았다.

나는, 올해에는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하리라. 나는 옮겨올에 얼어붙었다.

레옹 블뤼의 집에서.

—〈괴테와 엑케르만〉의 새로운 대화에 서명해야 할 것인가요? 하고 그가 말한다.

즉 괴테의 이름이 있는 표지 위에 내 이름을 올려놓느냐 마느냐 말입니다.

—왜 안돼? 하고 내가 말한다. 대답한 것은 이 책에 자기 이름을 낸다는 것이 아니야. 그런 책을 내놓을 생각을 했다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나의 머리를 더욱 혼란케 합니다.

—물병 속의 완전히 식어버린 끓인 물.

—오늘날 작가들은 동의어(同意語)로써만 글을 쓰고 있어, 하고 불랑제가 말한다.

—솔직한 비평은, 하고 블뤼이 말한다. 익명의 비평밖에 있을 수 없어, 이제 완전히 영국식 저널리즘이 되어버렸지.

3월 15일

신(神). 그대는 하늘의 빵떡모자 아래 신의 이마를 보았는가?

저녁때 나는 시내에 가서 식사를 할 거야 하고 카뮈스가 말한다.

로스탕은 내가 그와 아주 밀접했었을 때 나보다 세살 밀이었다. 그 후 이 격차는 늘어났음에 틀림없다. 그래서 지금쯤은 나보다 대여섯은 적어졌으리라.

아아, 게다가 내가 좀 더 바보가 되어 있다면!

3월 16일

예술가가 되자. 돈 문제도, 면회의원(面會議員)이 되는 문제도, 인권옹호연맹의 분과위원이 되는 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하자. 우리 아버지들은 돈 벌 생각만 했다. 혹 충분히 벌여준다면 다행한 일이다. 고마운 일이다. 우리는 돈을 쓰자. 만일 충분한 돈을 안 벌여 주었다면 그건 그들의 잘못이었던 게다. 그들은 죄인이다.

충명한 인간의 잔재주라든가 실사회의 인간들과의 교섭 때문에 훌륭한 시(詩)와 훌륭한 글을 쓸 기회를 잃지 말라.

일을 하지 말라. 이 형편없는 각본은 2만 프랑의 수입을 올리게 할 게다. 그렇다. 그러나 너는 걸작이 되었을지도 모를 하나의 《박물지》를 잃은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죽는다고 할 건가? 아니다. 모든 것이 잘된다. 유산을 상속받고, 복권에 당첨되고, 어떤 영국인이 너의 팬대를 사준다. 그래도 죽어야 한다고? 그렇다면 죽어야지 별도로 있나! 너의 죽음은 예술이 아닐 바에야 죽는 편이 더 좋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줄 게다.

### 3월 18일

카뮈스는 이제 발이 땅에 붙지 않는다. 적어도 지상 10센티 위를 걷고 있다. 그는 미소를 위하여 〈행운〉의 상연 열흘 뒤에 상연될 각본을 쓰고 있다. 그는 인생의 모든 경우에 대하여 그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더욱이 전투적이고 정복적인 기질이 있다.

그가 들어온다.

—그래, 마리, 하고 그가 말한다. 저녁은 먹었어. 하지만 수프와 고기와 야채, 게다가 디저트쯤 나온다면 기꺼이 식탁에 앉을 용의는 있어. 소문에 의하면 그가 시골 별장에서 시킨 일이 아주 잘 되었다는 이야기다.

5, 6년 뒤면 그는 앤드르에루아르의 상원의원이 될 것이다.

한 농부가 그에게 투르로 가는 길을 물으니 그는 이렇게 말한다. “글쎄, 여보시오! 오른쪽으로 둘째 번 도시지요. 그러고 나서 그는 농부를 위하여 3등 기차 값을 치렀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바리에테 좌(座)의 무대감독을 만나러 간다. 무대감독실이라는 너무 더운 조그마한 장소. 그곳에서 생긴 괴물 같은 꽃이요, 열매인 그 무대감독. 그는 매일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은 편지를 쓴다. 그는 체제하면서 명령을 한다. 그리고 문학적인 문구를 사용하여 상인에게 정확하게 하라고 잔소리를 한다. 그는 늙은 배우이지만, 아마 그에게도 화려했던 시절이 있었으리라.

짐나즈 극장의 프랑크의 방에서.

—〈살림살이의 빵〉에서 5, 6천 프랑은 받아내야지, 하고 카뮈스가 나에게 말한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카뮈스가 한 통의 편지를 구술(口述)한다. 그것에 의하면, 프랑크는 지금부터 6월에 걸쳐서 50회나 나의 각본을 상연하기로 약속하는 셈이 된다. 나는 꿈을 꾸는 것 같다.

—나는 무엇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하고 나는 메가르에게 말한다.

카뮈스가 내 외투를 잡아당긴다.

프랑크 노앵은 파랗게 질린다. 자기의 각본이 상연될지 어떨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느 때와 같이 정확한 인간이 되려고 절망적인 노력을 한다. 프랑크는 그를 돌려보낸다.

—자네는 실패하지 않아, 하고 나는 카뮈스에게 말한다. 겨우 그 정도의 수고로 성공했으니 말이지. 덕택에 적어도 1년간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셈이고, 그동안 나는 자네가 당대 유일의 극작가로, 극본도 모두 걸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3월 19일

〈홍당무〉. 바레 극단의 순회공연. 강에서 르피크 부인 배역을 맡은 그라소 부인이, 자기는 20년 이래로 파리에 있노라고 말한다.

—꽤 오래된 이야기군요.

—오오! 나는 지금 할 말이라고는 항상 옛 이야기뿐인 걸요, 하고 그녀가 말한다. 부유하고 행복하게 사는, 헤프지 않은 여자라고도 할 수 있을 아름다운 여자가 있다. 그런데 그 여자는 10프랑이나 5프랑만 주면 안네트의 역을 하러 시골로 내려간다.

일종의 가구가 갖춰진 집에서 연습을 한다. 모든 문짝을 두드려 봐야 진짜 문을 찾아낼 수 있다. 물건 하나가 난로 위에 놓여 있다.

프랑크는 주임사제(主任司祭)에 의한 결혼이 의무적이라고 생각한다. 필시 병역(兵役)과 혼동하고 있는 것일 게다.

나는 나의 기호(嗜好)에 대하여 확실한 것을 말할 수 없지만 싫은 것에 관해서는 극히 확실하다.

3월 21일

이 정숙한 여자는 거의 노처녀라 할 수 있는 45세의 여자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는 일이 없다. 그녀는 화덕 앞에서 생각한다. 이제 아버지도 어머니도 많이 늙으셨다. 머지않아 돌아가시리라. 자식은 내년에 입대할 게고, 그리고 그놈이 불행해지지는 않을까, 또한 그놈은 결혼하리라. 그러면 며느리와 뜻이 잘 맞을까 하고 생각해 본다. 그리고 이처럼 생각하면서 가스에 불을 붙이고 완전히 꺼지지 않은 성냥을 모퉁이에 버린다. 그녀는 지하실로 내려간다. 다시 올라와 보니 부엌은 연기로 자욱하다. 행주가 타고 있다. 그리고 이미 불꽃이 천장의 흰 나무를 넘실거리고 있다.

—무엇을 생각하고 있소!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녀는 생각하고 있다…….

기트리의 집에서. 마리가 농담을 퍼붓는다. 미묘하게 우리를 식객(食客) 취급을 한다. 그녀는 우리에게 말한다.

—그러면 전보를 받지 못하셨어요? 바깥양반이 외식(外食)하는 것을 모르시나요? 이 얼마나 우스운 말인가?

그 가련한 술은 이미 관(棺)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데려갈 수 없어, 하고 카펫스가 말한다.

백 번쯤 상연되기를 기대하는 각본 속의 배역을 한 여배우에게 맡길 때, 우선 그녀가 임신했는가 여부를 확인하기.

나의 꿈. 가두 매점에서 희극을 상연하게 하기.

애인이 되어 보지도 않고 여자를 안다는 것은 낚시질하는 사람이 강 위에 낚시줄을 내 흔들기만 함으로써 물고기를 안다고 자처하는 거나 매한가지이다.

그녀는 행복이 초인종을 누르기만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나의 어구(語句)를 잘 장전(裝填)하고 잘 겨냥하여 과녁을 명중시키기.

—저 사나이를 보게. 그는 성실한 남편일세.

—그래, 하지만 이 지상에 그렇게 초라한 사나이도 없지.

3월 22일

나는 그녀에게 물어본다.

—인생에서 제일 좋은 게 무엇이지요?

—사랑이지요, 하고 그녀가 대답한다.

두 사람의 아내와 두 사람의 남편 사이의 대화. 비록 마리네트는 입을 다물고 있지만.

연애라는 것. 그것은 이미 무엇인지 알 수 없다. 그 정체는 말의 범람 속에 휩쓸려 사라졌다. 그 현실은 틀림없이 단순하고 명백한 것에 틀림없겠지만 그것을 찾아낼 수가 없다.

정치와 매한가지로, 우정이라는 것도 말의 밥(희생물)이 되어버렸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것은 운 좋게도 매물을 면했다. 선견지명이 있는 사람이, 연애보다도 우정을 택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다. 만일 사람이 그에게 “하지만 사랑이라는 것이 훨씬 더 좋지. 그건 무언지 비상한 거야” 하고 말한다면, 그는 알고고도 하지 않을 게다. 그는 이러한 모든 막연한 것으로 부풀어 오른 이 말을 하기 위해 필요한 말에, 몸짓에, 눈초리에 경계를 할 게다. 그것은 우주 전체의 기구(氣球)이다.

—상대에게 사랑을 받지도 못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여자, 나를 괴롭게 하고 나로 하여금 “나는 사랑의 포로이다”라고 말하게 하는 여자. 아니, 그런 여자는 아직 주형(鑄型)에 찍혀 나오지 않았다, 하고 나는 말한다.

나도 어린 시절엔 일기를 썼었어, 하고 그녀가 말한다.

그녀는 말이 자유자재이고 목소리가 부드럽다. 그래서 심각한 일을 막연하게 말할 때도 정확한 말을 하는 것같이 보일 수가 있다.

나의 화술. 어둡고 무겁고 침침하지만 때로 섬광이 깃든다.

그녀는 연애와 절대라는 것밖에 생각지 않는다.

여자에게는 엄격한 말을 섞어서 치하를 해야 한다. 그것은 여자를 약화하고 녹이고 감명을 주는 예비 공작이다.

나는 사람들이 자기 명예를 위하여 결투하는 것을 기꺼이 인정한다. 단, 그들에게

명예가 있다면 말이다.

그는 재단사의 쇼에 연미복으로 참석한다.

—그렇게 하면 예술가들이 좋아하니 말아야, 하고 그가 말한다.

건조하고 보드라운 피부, 흰 나무 같은 피부.

### 3월 23일

연애는 총명을 잡아먹는다. 뇌수와 심장은 모래시계의 두 개의 부분, 한쪽이 가득 차면 다른 쪽은 반드시 텅 빈다.

### 3월 30일

쇼모로의 사흘간의 여행.

탕파(湯婆)는 귀뚜라미처럼 울고 피꼬리처럼 노래한다. 어느 정거장에서 한 사나이가 올라탄다. 화물은 가지고 있지 않다. 원뿔대 모자를 쓰고 노란 외투에 구겨진 바지를 입고 가난이 줄줄 흐르는 모습이다. 그는 한 모퉁이에 몸을 던지고 앞자락이 잘 맞지 않는 외투 주머니에 손을 넣고 졸고 있다. 입술은 두툼하고 평범한 얼굴에 숨결은 불결하다. 마침 눈을 사르르 뜨고 나를 바라본다. 나도 눈을 크게 뜬다. 자객(刺客)일까?

그가 잠자고 있는 동안, 나는 비상벨이 머리 위에 있어, 팔만 용수철처럼 내밀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늘어진 외투 주머니에 넣은 손은 흥기를 쥐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런데 탕파로 말하자면 두개 다 내발 밑에 있고 또한 그의 발밑에 있다. 그와 내가 서로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기 때문이다. 별안간—그리고 그의 졸음과 이 동작 사이에는 전혀 간격이 없다—그는 호주머니에서 한 장의 종이쪽지를 꺼낸다. 노름쟁이일까? 화투를 한 판 치자는 것일까? 그는 최초의 노란종이 한 장을 펼친다. 그리고 두 번째 종이를 펼치고 한 자루의 가위와 거의 창칼만한 식칼을 꺼낸다. 가위가 잘 움직이는 것과 식칼의 날이 아주 날카롭다는 것을 확인한다. 그는 그것을 전부 한 장의 종이로 싸서 그 싼 것을 다시 호주머니 속에 넣는다. 기차가 멈춘다. 멈추자 2, 3분 만에 그 사나이는 잠에서 깨어날 여유도 없이 기차

에서 내려 승강구 문을 닫는다.

홀로 남게 되자 맘이 놓인다. 어쨌든 어떤 위험에서 벗어난 듯한 마음에서이다.

짚더미. 어떤 것은 무너져 있고, 또 탄 것은 거의 없어졌다. 사람들은 옮겨올에 그 것을 많이도 먹어 치웠다.

민들레를 찾고 있는 노파들. 햇별이 쨍쨍 쬘어서 그녀들은 머리 위에 신문지를 한 장씩 올려놓고 있다. 그것도 작년에 쓰던 신문지이다.

지나가는 우수(憂愁)의 결별(訣別), 파란 슬픔. 파리에 남아 있는 것은 미치광이뿐이다. 흐릿한 태양. 멀리 연기같이 보이는 가는 나무 숲. 곱게 채색한 밭. 씨 뿌리는 사람은 그 동작을 되풀이하면서 자기가 위풍당당하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한다. 그는 작년과 매 한가지로 씨를 뿌린다. 바로 그럴 시기이기 때문이다. 새로 강렬한 녹색 또는 자극적인 붉은 색을 칠한 농기구. 그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나와 자연을 빼놓고는.

시원한 자연 위에 부드러운 태양이 빛나고 있다.

말은 돌아다니고 쟁기는 그 뒤를 따른다.

쟁기 끄는 말은 밭고랑 끝에 다다르면 한숨 쉰다.

꽃이라고는 전주(電柱)의 은방울밖엔 없다.

땅에 묻어버리지 않은 낙엽.

가벼운 공기. 한 잔의 크림과 같은 하루. 그 하루가 옛적 그것을 생각나게 한다. 만반의 준비는 되어 있었는데 노는 것을 잊었었다. 이미 꿈꾸는 듯했었다. 그만큼 손을 호주머니 속에 집어넣고 햇별을 쬌는 게 기분 좋았었다.

포도밭. 투명한 선영(線影). 이미 한 사나이가 웅크리고 포도 수확을 생각하고 있다.

가지를 쳐낸 나무의 생생한 상처. 혈색이 좋은 버들.

하나의 전나무. 온 겨울 동안 사뭇 파랗다.

지도 위에서처럼 뚜렷한 길.

최초의 꽃이 모자 위에서 피어난다. 물둑병이 부름뜰 눈처럼 반사를 던진다.

이 나무는 한 발로 언덕을 올라간다. 목까지 물속에 잠긴 버드나무.

3월 31일

카뮈스의 〈행운〉. 4막짜리 가벼운 희극의 걸작. 하나의 몽상극. 나오는 인물들에게 모두 정감이 간다. 진정 행운이다. 기트리는 훌륭하다. 그라니에는 몹시 감동하고 있다. 우리가 그녀의 불안을 씻어주어 기뻐하고 있다.

—아시겠어요? 하고 그녀가 말한다. 자기 화폭 앞에 서 있는 화가 같은 것이지요. 마침내는 아무것도 모르게 되어버립니다.

정치가와 실업가에 대한 평범한 풍자가 있다. 그러나 기분 좋은 낙천주의다. 재미 있는 대화. 감정이 아니다. 관능이 말하게 하는 대화다. 도네 식의 것이지만 그처럼 여성적은 아니다. 카뮈스의 작품에는 많은 낭비가 있다. 훌륭한 작가는 아니다. 그러나 좀 유례가 없는 재치의 소유자이다.

이것은 힘찬 작품도 아니며 매우 단단한 작품도 아니다. 하지만 저녁식사 후 심심풀이로 읽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것이다. 그 자유분방한 기세, 기지, 만족함, 자유로운 분위기 등에 있어서 〈행운〉은 단 작품과는 비길 데 없이 카뮈스가 쓴 가장 훌륭한 것이다.

—나는 단막짜리가 아니면 걸작을 쓸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자네는 4막짜리 걸작을 썼단 말이야, 하고 나는 그에게 말한다.

—글쎄? 하고 그가 겸손하게 말한다. 상당히 힘들었다고는 생각하지만, 베르나르와 나는 그의 아내에게 키스를 한다. 그래서 그녀의 모자를 밀쳐버린다.

문학가협회. 국가주의의 얼굴들이 나란히 있다. 성당지기의 코페, 양피지(羊皮紙) 얼굴의 로슈포르, 쥐새끼 같은 르메트르, 육식조(肉食鳥) 같은 바레스. 또한 눈곱만한 새 방달.

그리고 노동자 부티크도 있다. 군인이 있다. 그리고 참을 수 없는 비베르가 있다. 그는 자신의 입후보 철회의 이유를 설명하려 든다. 그것은 기록된다. 그는 한 사람의 신사를 나의 작은 친구라고 부른다. 그러나 그 신사는 단호히 받아넘긴다. “나는 당신의 작은 친구가 아니요.”

금요일의 준비 위원회에서 드쿠르셀이 말했다. “위원회를 향하여 국가주의자 식의 더러운 것을 쓴 놈의 이름을 대시오. 내 그놈의 뺨을 때려주겠소.” 아무도 대답이

없다.

친절에 힘입어 나는 에스토니아에게 손을 내민다. 그는 목사처럼 야윈 모습이다.

그는 아무리 애써도 소용없다. 그는 아직도 짙은 자국이 남아 있는 것이다.

이 또한 얼마나 많은 여자들인가! 그녀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니! 그리고 그녀들의 식모가 “마님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라고 대답하다니! 그녀들은 빠짐없이 추녀들이다. 그리고 좋은 냄새도 나지 않으리라.

#### 4월 1일

낡은 우산에 대하여 우리는 그것을 한 친구에게서 빌린 것이라 말한다.

우리들의 결점이 스스로에게 가장 뚜렷이 알게 되는 것은 유태인의 집에 갔을 때이다.

로스탕의 감탄할 만한 점은 다음과 같다. 즉 그에게는 무수한 찬미가 있는데도 아무도 만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스탕달은 우리에게 ‘아양떨다’라는 말을 만들어 주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희롱거리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종자매(從姊妹) 나네트가 내 의자에 자기 의자를 가까이 하면서,

—혹 누군가가 ‘자녀에게 세례를 받게 하세요. 그러면 고쳐드리지요’라고 한다면 오빠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놈의 어깨를 거머쥐고 저 계단 아래로 던져 버렸겠지.

말을 꺼내는 것은 그녀다. 그리고 계속 끊임없이 말하다가, 마침내 울음을 터뜨릴 듯 말한다. “이제 그만!”

—그러면 당신은 의무를 다 못하는 계지요. 나를 개종하도록 애써야지, 하고 나는 말한다.

그녀는 내가 선(善)을 행하려 하기를 바란다.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만한 여자요, 하고 내가 그녀에게 말한다.

—그러면 오빠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나요? 세례를 제정한 것이 예수님이 아니었던가요?

—아니지, 그것은 요한이지. 난쳐해졌나보군. 예? 그것조차 모르는군.

—책이 눈앞에 없으니까요, 하고 그녀가 말한다.

—내 책은 여기 있지, 하고 나는 나의 이마를 만지면서 말한다. 자! 당신이 또 나한테 졌지요?

신경질적인 진흙 싸움. 그녀는 계속 고집한다. 나도 앞서 나간 것도 아니다. 나는 가끔 무종교라는 주름에 다리미질을 해야 할 것이다.

#### 4월 2일

〈행운〉. 그라니에와 기트리가 말하는 모든 것을 내가 쓴다면 아마도 그만한 기지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보다 더 진실한 것이 있으리라는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꼭두각시를 쓸 생각이 어찌 날 것인가? 그리고 거짓말과 같이 하기 쉬운 이 모든 배합! 그러니 나는 3막짜리 각본을 결코 쓰지 않을 생각이다. 카뮈의 각본에는, 나 같으면 쓰지 않겠다고 생각되는 곳이 4분의 1은 있다. 그런데 그 4분의 1이 그가 2백 번이나 상연하게 하는 것이다.

어제 알레 부인이 보도에서 나를 불러 멈추게 하고 바이의 용태를 물어본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그녀가 우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녀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노라고 자청한다. 그녀의 집은 여기서 백 보가량이다.

—감사해요, 하고 그녀가 말한다. 제가 선생님을 불러 멈추게 한 것이 그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천만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깨를 나란히 걸어간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 나의 구두가 흠뻑 젖는다. 그녀도 무릎까지 젖었음에 틀림없다. 내가 우산을 제대로 받쳐주지 않으니 말이다.

사람들이 대문 아래에서 비를 피하고 있다. 아마도 그들 중에 우리를 아는 누군가가 있어 생각하리라. “저 봐! 저 봐! 이상한데.”

그리고 여전히 그녀의 얼굴에 깃들어 있는 이 붉은 빛. 그녀는 무척 예쁘다. 그녀는 빨리 말한다. 나도 그렇다. 그래서 둘이 다 자신이 무어라 하는지 잘 모른다.

—하지만 이렇게 멀리까지 바래다주셔서 미안해요.



확실히 우리는 그녀의 남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만의 일이라도 별안간 그가  
삐 마차 속에 숨어 우리와 스쳐 지나갔다고 하면? 그건 그에게 심상치 않은 일이  
리라.

—택의 문전까지 바래다 드리고 싶습니다. 각별히 섬기게 되어 매우 기쁘군요.

게다가 바로 거기다.

—안녕, 여러분께 안부를 부탁드립니다. 하고 장갑을 낀 자그마한 손을 내밀면서 그녀  
가 말한다.

—뵙게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진부한 문구를 여차여차한 식으로 늘어놓은 것일까? 바로 그런 것이었  
나!

삶은 달같이진 반숙 달같이진 라코트는 그것을 물에 담가 두는 시간에 관심이 없  
다. 불이 빛난다. 그들은 캐비지를 먹는다. 필립은 그것이 너무 달다고 생각한다.

—수프는 흰 그릇으로 먹는 게 더 좋지, 하고 그가 말한다.

겨울을 넘긴 소금은 ‘늑지근’하다.

라코트는 침대 위에서 모자를 쓰고 있다. 기왓장으로 덮은 우유 항아리. 수녀처럼  
모자를 씌운 부집계. 평보(平步)로 걸어가는 쾌중시계. 구두는 여기 한 짝, 저기 한  
짝 제멋대로 침대 밑을 산책하고 있다.

—인생에는 좋은 시기가 있는 법이지! 하고 지쳐버린 베르네가 말한다.

비밀. 의혹. 이 가련한 사나이는 자기가 코퀴인지 어떤지 도통 모르고 있다. 양리  
의 출발조차 아무 소용없다.

행복이란 그렇게 싸구려가 아니다.

코르비니의 호텔에서의 필립. 처음에 그는 모자를 쓴 채 식탁 앞에 앉는다. 그리고  
나서 판 사람들이 모자를 쓰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일어나서 모자를  
걸러 간다.

—모자를 벗어야 하는군, 하고 그가 말한다. 마치 성당에 들어가는 것 같구먼.

문학이 어떤 것이든 그것은 여전히 인생보다는 아름답다.

—파리에서는 어디로 갑니까?

—새 동우리를 찾으러 다니지, 하고 그가 말한다.

#### 4월 3일

〈행운〉, 초일(初日), 나의 놀람. 토요일의 25명의 인간을 위하여 상연된 멋진 무대 연습 때의 나의 인상은 거의 되찾아볼 수 없다. 그것은 내가 관중과 결코 의견의 일치를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제일의 특질이라 할 수 있는 진정 총사적(銃士的)인 면이 흐려져 버렸다. 진부한 것, 인습적인 것, 두 가지 뜻으로 쓰일 수 있는 말, 그러한 것들만 제일선에 부각되고 있다. 정말 대단한 성공이다. 그러나 그것은 판 각본에 합당한 것이다.

아아! 기지(機智)라는 문제에 있어서 까다로운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세상 모든 사람’ 씨이다. 기지의 말이라면 무엇이건 스스로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황금을 버리는 것이나 매한가지이다. 오오! 이 관중이라는 것은! 매우 훌륭한 것이 옆에 있는데도 평범한 것을 고르는 것을 보니 애지중지 자랐음에 틀림없다. 이처럼 해서 나는 친구의 성공을 방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성공이 내 취미에 맞는 것이 되었으면 한다.

브랑데스의 집에서 야식회가 벌어진다. 카뮈스는 최근의 노동자 차림의 옷을 입고 있다. 올해는 사람들이 그를 밀어주는 해이다. 내년에는 사람들이 그를 비판하리라. 2년 뒤엔 그가 몰락해도 아무도 그를 일으켜주지 않으리라.

—그건 아무래도 좋아, 하고 그가 말한다.

—이건 오늘 하루의 결론이지, 하고 내가 말한다.

—자네는 그것으로 결론을 찾아낸 셈인가? 포렐이 말하더군. “그래, 그래! 그 각본 이라면 알고 있지. 김빠진 거지, 김빠진 거야”라고.

그들은 직업적인 사람들이다. 그들의 짓은 글 쓰는 책상이 아니고 바느질하는 책상이다.

자네는 천재가 될 수 없다면 현자(賢者)가 되라. 더구나 그것이 더 편리하다고 할 수도 없다.

라 글로리에트에서 아침 5시에 돌아온다. 눈이 오고 비가 온다. 테아트르프랑세

광장. 한 사나이가 정거장에서 나를 태우고 온 마차에 소리친다. 잘 보니 몹시 큰 몸집, 에나멜의 반장화, 견어 올린 바지, 세워 올린 외투의 깃, 실크헤트, 백발 등이 보인다. 그건 보에르이다. 그걸 보고 웃음을 터뜨린다. 마치 그가, 목소리가 다다르지 않는 마차를 부르면서 영원히 그 진창 속을 헤매는 것 같아서.

4월 14일

11시부터 1시까지 그녀는 탄복할 만큼 풍부하고 정확하게, 더욱이 재능까지 보이면서 수다를 떠다.

그녀는 27세이다. 그러니 그러그러한 낭만도 있을 법하다. 그녀는 자기를 버린 그의 이야기를 한다.

—영터리 배우에 불과해요, 하고 그녀가 말한다. 신사라고는 할 수 없어요, 신사가 됩니까? 익명의 편지를 믿으니 말이지요. 신사란 그런 편지를 받으면 코를 쥐고 손가락 끝으로 열어보는 게지요. 그리고 보고 난 뒤에는 불 속에 던져 버리지요. 그는 근사한 식당에서 식사를 할 줄도, 음식을 주문할 줄도 모릅니다. 그는 사환 아이에게 “여보게, 친구” 하고 부르기도 하고, 내가 식탁 밑에서 발길질이라도 하지 않으면 먹고 남은 뼈를 능히 땅바닥에 던지고도 남지요. 실크헤트를 쓰는 방법도, 연미복을 입는 식도 모르니 말이에요.

“그는 손을 깨끗이 하지 않아요. 손톱은 더럽구. 아내와 자녀들에게는 상스럽게 대하구요. 하지만 다 지나간 일이지요. 그동안 나의 친구였던 그 사람이 병에 걸려 6년 전부터 이미 애인 관계가 끊어졌지만, 그래도 1년에 8만 프랑에서 10만 프랑가량 나에게 바쳐오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 말이에요.

“하기야 나도 그를 무척 사랑했었지요. 그렇지 않다면 나로서도 변명할 여지가 없지요. 그 사나이는 나에게 흔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저녁에 식사합시다’라고요. 그리고 보면 가지 않을 수 없었지요. 만일 안 간다면……. 그리고 새벽 2, 3시쯤, 나는 우리들의 방을 빠져나가곤 했지요. 그러는 동안 그 사나이는 기분 좋아하며 따뜻한 방에 남아 있는 것이에요. 나는 정말 살인자에게 쫓기는 듯한 기분으로 그 더러운 거리를 거쳐 돌아오곤 했어요. 어찌나 무섭던지!”

“누구나 하듯 나도 심술궂은 말은 하지요. 하지만 더러운 짓은 안 합니다. 나는 내 우산을 쓰고 스스로 만족하면서 거리를 걸어갑니다.”

“그 사나이가 따라오게 버려둡니다. 그는 하루에 10프랑을 써야지요. 틀림없이 로 세 가(街) 끝에 탐정이 한 사람 있을 거예요.” (그녀는 창밖을 내다본다.)

“그 사나이는 아무것도 모른답니다. 편지 하나 못 쓰니까요. 내가 오히려 그보다는 몇 배나 더 재치가 있습니다.”

“내 식모는 의상(衣裳)까지 담당하고 있지만 오히려 나의 말벗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만사에 능통하던 말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마님은 필경 후회하실 게고 하실 거예요’라고. 하기는 나에게 그를 끄는 그 무엇이 있는 동안은 모르지만…….”

“참, 그는 나에게 무척 후한 사람이었어요. 돈은 결코 주지 않았지만 보석이란 자 질구레한 장식품이란 내가 말만 하면 주었습니다.”

내가 “좀 앉으시오” 하고 아무리 말해야 소용없다. 그녀는 선 채로 말한다. 그래야 힘이 나는 모양이다.

#### 4월 15일

태양이 서산에 넘어가려 할 때 입회(立會)할 것.

—집이 유물(遺物)이 되어버렸어요, 하고 바이가 말한다.

#### 4월 17일

짐나즈 극장에서 〈살림살이의 빵〉. 음산한 사건. 메가르 집에서 점심식사 때 그리 나쁘지 않았다. 저녁 5시 짐나즈 극장에서 상연할 때면 그야말로 우울해진다.

—자아! 하고 나는 말한다. 내 방해하지 않겠어. 다만 당신들이 어느 정도인지 보고 싶을 뿐이야.

바로 걸려든다. 공석(空席). 마리네트와 나, 그 뒤에 정체불명의 신사 한 사람. 무시시할 정도의 침묵이다. 메가르는 이 무거운 분위기에 억눌려 혈떡인다.

—안돼요, 하고 그녀가 말한다. 듣고 계셨어요? 이제 목소리가 안 나와요. 정말 내

일도 그러면 그야말로 큰 이변(異變)이지, 하고 내가 그녀에게 말한다.

—내일은 나갈 수 없어요, 하고 그녀가 말한다. 이 목소리로선 도저히 할 수 없지요.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두기로 합시다.

4월 18일

내가 제미에에게, 그가 좀 지나치게 신문에 신경을 쓰지 않는 체한다고 말하니까 그가 대답한다.

—자네가 배우와 함께 산다는 것은 잘 알고 있어! 자네는 나라는 인간을 모르고 있지.

메가르는 뽀루통하다. 내가 자신의 각본을 집어치우겠노라고 그녀에게 말한 것이 못마땅한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제 다 됐어. 별수 있나! 게다가 아무래도 내 말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람에게 또한 저 사람에게 라는 식으로, 그 사람이 듣고 좋아할 듯한 말을 하지만 모든 것이 서로가 모순된다.

총연습 때 〈2만의 영혼〉이 막을 올리자 아르킬에르가 앞서 나와서 말한다. “메가르 양의 실성(失聲) 때문에 〈살림살이의 빵〉의 연습이 연기되었습니다”라고. 사람들은 그것을 ‘광증’이라고 잘못 들었다. 메가르가 정면 좌석에 앉아 있어 모두들 그녀를 돌아다본다. 일시에 웃음이 터져 나온다. 손뼉을 친다. 일종의 성공이다. 그녀는 처음에는 웃는다. 그리고 나서 등을 돌린다. 분명코 뜻하지 않던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 이쯤 해서 멈추지 않으면 사태는 험악해지리라.

—어떻습니까, 하고 나는 그녀에게 말한다. 이것도 하나의 성공이 아닐까요.

—그렇고 말구요, 하고 그녀가 말한다. 연극에서도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는 없을 거예요.

—당신은 참 상냥합니다.

—종류가 좀 다를 뿐이에요.

너무나 늦었다! 늦었다! 이제는 가망이 없다.

정말로 기트리는 암전하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이처럼 애착을 느껴본 적이 없다.

그는 나에게 미르보의 편지를 하나 읽어준다. 그 편지를 보니, 이 두 사람은 예절을 다 하여 우정으로 싸우고 있다.

그는 어제 로스차일드 일문의 어떤 집에서 점심식사를 했노라고 말한다. 달걀과 아이들이 먹는 커틀릿과 먹을 만큼의 음식이 나왔다. 시장기는 가실 만한 음식이었지만 남을 정도는 아니다. 더욱이 그것은 전대미문일 정도로 엄청나게 차려놓은 상황에서도이다. 이러한 풍족(豐足)이란 방안에 뜰을 만들기 위해 사방의 벽을 넓힐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의 풍족인 것이다. 한 노동자가 대들보 위에 올라가 이 부유한 자를 바라보았으나 그리 부러워하지는 않았다.

차 끓이는 토기가 꺾련을 피운다.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어지간히 좋은 일이다. 그 이상 더 나쁜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나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하지만 기분이 나쁘지는 않다.

#### 4월 20일

마지막 연습. 메가르는 몹시 피로한 모양이다. 목소리 쉰 것을 치료하기 위해 몹시 위장을 해쳤다.

—헛! 맛이 좋을 겁니다, 하고 내가 그녀에게 말한다.

그들은 서투르지 않았다. 한 배우가 실수를 하면 관중은 때에 따라 친절할 정도로 “우리가 여기 있소”라고 할 듯 힘을 준다.

야! 이제 다 틀렸다는, 점점 더하리라는, 승산이 있다는 막연한 확신!

그리고 이 사람아! 자넨 성공할 자격이 있나? 그것이 좋은 작품인지 어떤지, 훌륭히 연기해낼지 어떨지가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자네에게 그럴 자격이 있나 어떤가를 안다는 것이다. 모든 것은 그곳에 있다. 행운이란 없다. 정도(正道)만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자네는 자신이 아무런 자격도 없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잘 알고 있다. 고마운 일로는 비겁한 자가 된다는 그러한 여지는 아직 남아 있다. 비겁한 자

가 되자!

그리고 장비에 드 라 코트는 낭독할 예정인 자기 원고를 가지고 온다. 그것은 한 장의 신문지로 싸서 색이 낡은 끈으로 묶여 있다. 그는 그것을 어깨에 메고 있다. 마치 그리스도의 못 박힌 상(像)이다.

—오오! 당신은 또 하나의 성공을 기대하게 됐군. 정말 운이 좋았어. 멋진 무대에서 첫 출연을 하다니. 이처럼 누구나 다 마치 굉장한 것이라도 있는 것처럼 부러워한다.

—프랑크 노앵은 귀여운 사나이이지, 하고 카뮈스가 말한다. 하지만 그 실패는 당연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지. 뭐라고! 우리들은 몇 날 몇 밤을 걸려 한 인물을 등장시키기에 골몰하지. 그런데 이 젊은이들은 그런 걱정은 아랑곳없단 말이지. 그들은 연극에서 가장 어려운 것, 즉 잘 짜여진 각본을 제쳐놓는다. 그리고 “안 돼! 안 돼! 우선 자네의 일을 배워야 하네”라는 말을 듣고 의외라 생각한다. 게다가 3막짜리 큰 연극에서 한 번 겨루어 볼 생각도 못하지.

카뮈스는 친밀한 대화와 악수 속에서 녹아날 것만 같다. 사뮈엘 카뮈스, 라발리에르 기타 융합된 한 무리이다. 모두 서로 “여보게” 하고 부른다. 모두 성공에 지쳐 버렸다. 큰 거리를 점령하고, 파리를, 전세계를 점령하고 있다. 그대로 땅바닥에 여자도 남자도 한 덩어리가 되어 누워 잘 것만 같다.

무대감독만이 유독 아직 얼마간의 위엄을 유지하고 있다. 그는 명성이 높은 사무원들을 항상 자기 지휘 하에 놓기에 몰두하고 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을 자애로운 연민의 정으로 맞아준다. 그들을 빼놓은 나머지 인간들은 그 얼마나 가련한 자들인가!

카뮈스, 우리는 기트리의 집에서 우울하게 코냑을 마셨다. 나는 서로 팔을 끼고 그를 짐나즈 극장에 데리고 간다. 그는 마누라를 생명보험 수취인(受取人)으로 삼고자 하는 생각만으로 마음이 설레고 있다. 우리는 연극의 평균과 인생의 평균에 관하여 말한다.

—오십 세까지는 나도 무언가 욕망을 가질 수도 있지, 그러나 그 뒤로는 그만이야, 하고 그가 말한다. 그런데 자네는 아직 사십도 안됐어.

—그래, 그렇지만 나는 그 연배의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어.

—그건 그래, 하고 그가 기분 좋게 말한다.

그는 에르비외에 대하여 재치 있는 말을 늘어놓는다. 그 에르비외에게 아로쿠르는 탄복 하고 있는데, 그것은 라루메가 자기만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던 라틴어의 시를 에르비외가 인용했기 때문이다. 사실을 말하자면 <햇불 달리기>의 평가 높은 성공으로 카뤼스는 지겨워졌다. 그는 자기에게 그만한 무게가 없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다. 사뮈엘이 신음한다. 그들은 아마 오늘밤에 8천 프랑을 올리지 못하리라.

<살림살이의 빵>. 오전 공연. 자리가 텅 비었다. 4백 프랑을 올린다. 그러나 메가르와 제미에는 만족하고 있다. 그들은, 그것으로 사람들이 감동하고 자기들도 감동하고 있다고 느낀다.

첫날은 그렇지도 않았다. 무대 뒤에서는 웃음의 효과밖에 들리지 않는다. 여느 때의 박수 소리는 나지 않았다. 세심하고 미소를 머금은 얼굴들. 그 속에서 못생긴 여자의 끔찍하게 큰 하품. 메가르는 병에 걸려 겁에 질려 있다. 그들은 두 번이나 열렬한 박수를 받아 불러 나온다. 그들은 이 성공에 놀라서 무대에서 나온다. 제미에는 이런 결과를 얻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달빛 효과를 내기 위한 전지의 신경을 자극하는 딱딱딱 소리.

만 각본의 남자 배우와 여자 배우들이 돌아다니면서 짓궂은 모습으로 귀를 기울인다. 아니 그리 잘 되어가지 않는군.

—댁의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혼자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영국인 의사가 말한다. 며칠 뒤에 이 위대한 의사를 완전히 믿었던 그녀는 그에게 와서 말한다.

—제 남편은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의 집은 유리집이다. 나는 사람들에게 목소리가 들릴까봐 카펫을 몇 장 걸어놓았다.

—아마도 내가 자네에게는, 굉장히 거만한 놈으로 보일지도 모르지만, 하고 기르리가 말한다. 이 연극 사회에서는 친구라고는 단 한 사람도 없단 말이야.



위레는 라블레를 전혀 모르겠다고 털어놓는다. 그리고 자기 무식을 위장하기 위하여 몽테뉴가 온 세기를 통하여 가장 위대한 작가라고 말한다.

레옹 블뤼은 눈먼 자기 조모를 모시고 이탈리아를 돌아다니고 있다.

—환상선(環狀線)을 타고 데리고 다니면 정말 편할 텐데, 하고 트리스탕이 말한다. 정거장마다 플로렌스라든가 베네치아라는 역명을 부르게 해놓고 말이야.

소(牛). 그 빨은 두 개의 아름다운 사상처럼 이마에 돌아난다.

올타리 옆에 있는 한 마리의 소. 하기는 소가 올타리를 위하여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다.

베레니스를 놓아주고 난 뒤 티투스는 이렇게 말했었을 거야, 하고 트리스탕이 말한다. “자아! 집(朕)은 오늘 하루를 잃지 않았노라”라고.

말들이 목장을 달리고 있다. 푸른 바다를 떠다니는 해마(海馬)들.

## 5월 1일

라 글로리에트 암소. 터질 듯한 유방을 갖고 올타리에서 기다리고 있다. 빨을 포크 같이 날카롭게 하고 풀을 뜯어먹고 있다. 암소는 뺨으로 먹는다.

정다운 엄마는 정월 초하룻날 죽었다.

—그것이 엄마의 설빔이야, 하고 바이가 말한다.

한 마리의 소가 멈춰서 읽는다. “기차에 조심” 그리고 멀리 가버린다.

25수우짜리 나막신을 한 켄레 얻기 위하여 피에르는 술통을 하나 정거장까지 끌고 간다.

그의 말은 장님이기 때문에 전날 강물에 빠졌다. 그 말은 앞의 두 다리를 강가에 걸치고 뒷다리 둘로 강바닥을 짚고 일어섰다. 하지만 피에르가 손을 쓰지 않았더라면 결코 거기서 헤어나지 못했으리라.

5월 2일

만발한 복숭아나무의 귀여운 빨간 눈.

한 쌍의 날개 같은 친구들.

신출내기 조그마한 비둘기의 섬세한 채색(彩色).

통통 불은 젖통이를 하고 암소는 송아지를 부른다. 그런데 온 것은 농가의 아낙네.

수소는 이마에 짚과 가죽 끈을 두르고 멍에 밑에 있다.

암소와 흰 나무의 송아지.

죽은 사람들의 대화.

—여전히 자는가?

—그래, 자네는?

—나도 자고 있지.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아침에 눈이 안 뜨인단 말이야.

5월 3일

눈에 차갑지 않은 수프.

〈베르네 씨〉. 그것은 ‘기우(杞憂)가 위험을 막는다’이다.

5월 4일

연극에서의 행위라면 그들은 사람을 나오게 하고 들어가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아아! 저 연기! 만일 내가 저 집의 지붕을 파이껍질처럼 벗길 수만 있다면, 냄비 위에 몸을 기울이고 있는 한 여자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남편은 어두운 모통이에서 생각에 잠겨 수프가 다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5월 5일

어제 저녁 10시. 풍경. 물처럼 밝은 하늘에 홀로, 쓸쓸히 있는 달. 드문드문 보이는 별. 배경으로 연한 푸른색의 모르방 산(山)이 바다의 곡선처럼 희미하게 지평선에 부각되고 있다.

달에서부터 검고 큰 덩어리가 되어, 잠들고 있는 성곽까지 강 위로 통하는 폭넓은 한 가닥, 흰 안개의 길, 서로 화답하는 청개구리와 새소리, 그리고 두꺼비 우는 소리 한 방울.

유령같이 서 있는 포플러나무들, 또한 유령처럼 보이는 목장의 말 떼, 한 줄기 길고 검은 무늬, 그것은 목장의 담벼락이다.

희끄무레한 안개의 가벼운 양탄자에 실려 달은 마치 성을 향하여 오려는 듯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재미있는 것은 이 노트를, 내가 우리 집 돌의 담장에 올라가 초롱불 빛으로 썼다는 사실이다.

사람이 조언(助言)을 청하는 것은, 오직 자신의 걱정거리를 말하고 싶어서이다.

—아아! 책을 읽고 계셨군요, 하고 그녀가 나에게 말한다.

그들은 끊임없이 먹고 있는 돼지의 코처럼 일한다.

풍류, 마을의 시인, 그는 한 뭉치의 책을 나에게 가져온다. 그는 발자크에 대하여 그릇된 관념을 기르고 있었다. 그의 많은 소설의 반이라도 읽을 용기를 가져야 한다. 그러면 모든 것이 저절로 잘 되어간다. 정말 훌륭하다. 그는 봄이 되면 여전히 얼굴에 여드름이 난다는 것만 빼놓으면 건강한 셈이다.

그는 그와 당나귀에 관하여 말할 때면 “실례지만” 하고 말머리를 꺼낸다. 하지만 당나귀는 돼지가 아니다.

그는 8마리의 가축을 가지고 있다. 그는 자기 혼자서 12정보(11,9헥타르)가량의 토지를 경작한다. 그는 말 한 마리만 가졌으면 한다. 그러면 당나귀를 그 앞에 매어 밭을 갈 수 있으리라. 특히 그는 나에게서 ‘나오는’ 책을 읽고 싶다고 생각한다. 〈에코 드 파리〉라든가 〈쥘리날〉이라는 신문은 너무나 길다. 6페이지나 되니! 그에 게는 〈프티 파리장〉과 같은 작은 신문이 필요하다. 우선 읽기에 편하고 다음으로 밭에 나가기에 편리하다.

사람들에게 부랑자 취급을 받고 몹시 화가 났다. 그는 급진주의자에 불과하다. 그는 또 한 사제(司祭)에게 급여되는 2백 프랑의 보조금의 폐지를 요구하려 하고 있다.

—택에서는 전망이 좋군요, 하고 그가 말한다. 시작(詩作)하기에 좋은 고장입니

다. 뮤즈의 여신이 멀리까지 비치고 있습니다. 그는 논적(論敵)인 샤를르 드 브레가 자기에게 필봉을 돌리기를 바라고 있다. 몇몇 지방 신문에 발표한 논문에 대하여 이처럼 말한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칭찬합니다. 적어도 표면상으로만이라도 뒤에서는 무어라 하는지 물론 모를 일이지요.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잘뤼조에게 도전하기보다 자기 발이라도 경작하는 것이 더 나을 거야’라고요. 그러나 그의 토지는 가볼만 하다. 그는 멋이 있다. 그의 토지는 이웃사람들의 토지와 매 한가지로 손질이 잘 되어 있지만, 그래도 문학을 사랑할 만한 시간을 남겨 놓고 있다.

그의 형은 레스에서 우편국 직원으로 자기 처의 지참금은 별도로 하더라도 5, 6천 프랑의 수입이 있는 지위에 있다. 그래서 그는 그 형을 좀 멀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꼬마 독수리>도 좋아하지만 <시라노>를 더 좋아한다. 그러나 그것은 폴 머리스의 <스트뤼앙세>(그는 프뤼앙세라고 발음한다)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기는 그것을 쓴 것은 머리스가 처음은 아니지만.

그는 베랑제의 상송을 전부 읽었다. 애국자이지만 국가주의자를 증오한다.

—때때로, 하고 그는 말한다. 일부러 하는 것은 아니지만 책에서 읽은 말을 씹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내가 잘난 체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프랑스 말입니다. 그것을 사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아무런 야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쓰는 글은 혐오의 씨앗만 뿌립니다.

데카르트가 정신을 위해서 한 일을, 우리는 마음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이다. 즉 백지로 돌아가서 독창적인 건설을 하기.

저녁. 새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필립의 말에 따르면 그것은 꾀꼬리이다. 수로와 강을 따라 넘쳐흐를 듯이 울고 있다.

새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나는 그 우는 소리를 듣고 새를 구별하지 못한다. 나에게 는, 우는 새는 다 그제 그것이다.

꾀꼬리 소리는 오히려 빈약하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만 종류이거나 혹은 꾀꼬리라는 것이 과대평가된 것이다.

입. 목소리의 이 귀여운 보금자리.

—아니, 벌써 10시야, 하고 라코트가 말한다. 이제 12시 반이나 1시까지에는 집에 돌아가 간식을 먹지 못하게 됐군.

—그러면 빵을 한 조각 상자에 넣어두시오.

—정말, 그래 볼까. 가끔 자네한테 그러지 않는다고 야단을 맞으니 말이야. 오늘은…….

—그리고 고기도 좀.

—아니! 필요 없어.

—집어, 이 사람아!

—그럼…….

밤중에 필립이 이따금 일어나서 창가에 선다. 그러나 그것은 별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다. 이가 아파서이다.

무릎이 너무 굽어(머리만은 훌륭하고 예쁘고 완벽하다) 허리가 지나치게 짧아 보이는 한 달짜리 망아지. 사람들은 그 망아지가 아직 ‘정장’하지 않았노라고 한다.

## 5월 8일

마리네트라는 글자는 ‘마랭’이라는 말에서 온 것이다. 이것은 나침반의 옛 말이다.

소 치는 사람처럼 무겁고 느린 짐수레.

우리가 읽는 책은 각기 짝이 트는 하나의 씨앗을 남겨 놓는다.

3월의 소나기가 5월에 쏟아진다.

누군가가 소맷자락으로 구름을 닦으려는 것같이 보이는 뭉게구름이 낀 하늘.

바람의 큰 전율이 들판 위를 스친다.

카뮤프스는 자기가 쓰는 글을 충분히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작은 배나무 잎이 살랑대는 것을 바라본다. 배나무는 움직이지 않는다.

제비. 공중에 흩어진 눈썹. 악상 시르콩플렉스(^자 표시의 악센트)는 글자의 제비이다.

제비 떼는 날 때 주둥이에서 주둥이로 그들의 자그마한 부르짖음을 서로 주고받는다.

그 검은 전나무 숲으로 보호받고 있는 성곽.

내가 새라면 구름 속에서만 자리라.

5월 13일

〈베르네 씨〉. 그는 자기가 ‘그렇지 않다’고 확신하면 냉혹해진다. 그리고 에르네 부인은 앙리를 비난한다. 시인으로서의 신분은 사라지고 부르주아로서 되돌아왔다. 우선 그들을 부르주아로서 내보여야 할 것이다. 크뤼즈 집안 사람들은, 그들이 변한 것을 보고 알아보지 못한다. 베르네 부인이 앙리에게 “정말 좋은 분이시요, 안 그래요?”

앙리 — “오오! 그렇구말구요.”

베르네 부인 — “날마다 서로 편지를 교환하지요. 그분이 하루라도 편지를 주지 않으면…….”

앙리 — “그렇다고 부인에게서 죽는 일은 없겠지요.”

베르네 부인 — “정말 슬플 것 같아요.”

앙리 — “그가 무슨 말을 부인에게 했지요?”

베르네 부인 —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건강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고 제 건강은 어떠한 것이었어요.”

앙리 — “그거 재미있군. 그리고 부인을 몹시 사랑한다는 말이었겠지요?”

베르네 부인 — “오오! 그야 그렇지요. ‘나의 귀여운 친구, 내 당신을 꼭 껴안아주지’라고요.”

앙리 — “아! 아! 별로 나쁠 건 없지요.”

베르네 부인 — “뭐라고 하셨지요?” 베르네 씨는 그들을 뒤따라 배를 타고 온다. 그는 벌써 기분이 매우 좋다. 베르네 부인은 밤마다 창 곁에 서 있다. 꿈꾸고 있다. “생각하고 있지요” 하고 말한다. 또한 이렇게도 말한다. “어머! 저 아가씨는 당신에게 합당치는 않아요.”

앙리 — “그렇게 생각합니까?”

베르네 부인 — “좀 이상해지는데요.”

양리—“이제 그런 이야기는 그만둡시다.”

필립. 나는 그가 지나치게 나의 이익을 생각해 준다는 것, 이웃 사람들이 내 집에 그들의 ‘찌꺼기’를 집어던진다는 것 경계선을 침범한다는 것 등등에 대하여 지나치게 생각해 주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한다.

술 취한 사나이가 집에 돌아와, 집안에 있는 물건들이 자기 언저리를 빙빙 도는 것을 바라본다. 아내가 그에게 말한다.

—자아, 잠자리에 안 드세요?

—침대가 이제 오면 그럴 생각이요, 하고 주정뱅이가 대답한다.

아마도 새 한 마리 앉아본 일이 없는 나뭇가지도 있을 것이다.

햇살이 구름 사이를, 바늘에 꿰인 털실처럼 꿰뚫고 있다.

오노린. 빈곤에 지쳐 멍청해졌다. 마리네트가 몇 푼 주어도 인사가 없다. 그녀는 두 팔을 번쩍 쳐들더니 다시 앞치마 위에 철썩 떨어뜨린다.

법률을 모른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20만 이상의 법률이 있는데도.

제비와 그 목사 같은 풍채.

역사란 정말 시시한 이야기짓거리에 불과하다.

양(羊)은 새둥지를 위해서 그 털이 덩불에 걸리는 것이다.

마리보. 〈유산(遺産)〉. 각본 전체가, 사람들이 말하기를 꺼리는 말(즉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로 버티고 있다. 허나 그것도 이제는 말해버린 것이다. 왜냐하면, 백작부인의 말처럼 “그렇지 않으면 한이 없을 것”이니까. 매한가지로, 인물로서 후작과 기사와 백작부인을 택한 것은 안성맞춤이었다. 칭호만으로도 관중은 그들의 성격을 알 수 있었다. 오늘 날에는 모든 사람이 서로 비슷하다. 우리는 그들을 구별하기 위하여 우선 개처럼 애쓴다. 시간과, 일의 낭비이다. 더욱이 그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하면서. 마리보의 희곡 중의 하나에, 그것이 우리 시대에 쓰이지 않았다는 느낌을 주는 낱말은 거의 한 오십 개에 불과하다.

두 마리의 까치가 희롱하고 있다. 그들이 서로 나는 모습은 넥타이를 맨 매듭처럼 매어졌다 풀렸다 한다.

풍뎅이는 떨어져도 그 날개를 정성껏 접지 않는다. 언제나 무언가 빠져나온다.

작은 오이. 작은 녹색의 돼지. 이 돼지를 소금에 절이려면 병 하나만 있으면 넉넉하다.

나무들은 거의 잎이 없어 물 위에 그 줄기밖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나머지 부분은 너무나 밝은 것이다.

5월 16일

그렇다! 그렇다! 나는 때로는 이렇고 또 때로는 저렇다. 사람은 경험이 필요하다. 비록 한 마리의 벌레라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짓밟았을 때 느끼는 스스러움.

5월 30일

그는 자기 이름도 옳게 못 쓴다. 그러나 구변은 좋아 줄줄 늘어놓는다. 면회의원(面會議員)을 사직했다. 그리고 영원히 면회의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는 학교에 오랫동안 남아 있지 않았다. 까닭인즉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학교에 보내지 말아요. 지긋지긋해요 나는 빨리 학과를 습득하니까요. 머리가 터질 것만 같구.”

상속. 죽음은 우리들 손에서 육친을 앗아간다. 그러나 죽음은 그 대가를 치른다. 그리고 죽음이 우리의 용서를 얻기 위하여 많은 돈이 필요하지는 않다.

흰 머리털. 시간의 먼지.

그는 뱀 같은 머리를 하고 있다. 그는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끌어당긴다.

—저것은 그대로 남겨 두겠어요, 하고 그녀가 말한다.

그녀의 낙수 홈통 주둥이는 계단 위에 물을 토해낸다. 계단의 디딤판 사이가 벌어져 있다. 그녀는 결코 홈통을 뒤로 물리려 하지 않았다.

그들의 산만한 생활.

그들은 손수건만한 뜰을 위해 엄청나게 큰 담장을 쌓는다.

—왜 이렇게 넓은 담을 쌓지요?

—화분을 엮어 놓으려고요.

그들은 화분을 가꾸어본 적이 없다. 그녀는 아주 자상하다. 그러면서도 자기의 포



도발을 마침 이제부터 제일 잘 될 거라는 바로 그 전해에 팔아넘겼다. 그녀는 꼼꼼하다. 그러나 장 속에 낡은 서류가 가득히 들어 있다. 그런데 그것을 아무도 만지지 못한다.

잡화가게 아주머니는 팡테크가 1수우짜리 공을 단번에 24개나 사는 것을 보고 몹시 놀라서 임대차 계약을 연기하자고 제의한다.

암소가 새끼를 낳으려고 한다. 하지만 황소는 그런 것은 아랑곳없다.

오늘밤 나는 구름의 넓은 내의가 달의 창백한 입술 위를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나의 종소리만 듣는 자는 한 소리밖에 모른다”라는 것은 호박 같은 열간이의 생각이다.

싸락눈이 내린다. 이 무슨 이변이냐! 그러나 싸락눈이 녹으면 농부는 자기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기조차 하지 않는다. 그는 다시 일을 시작한다.

관찰자의 상상력이 위축된다. 그것은 소용없는 기관(器官)이다.

나는 나막신을 신고 천국에 가리라.

숲. 그곳에는 한 번도 마을에 와본 일이 없는 새가 있다.

빌로드 푸르푸앵(허리에 꼭 끼이는 남자의 윗옷)을 입고 있는 산봉우리, 허영심 많은 에스파냐 사람.

산사나무. 오늘 아침 모든 생울타리가 결혼식이다.

그들의 습관. 그들의 우물물은 퇴비 냄새가 난다.

—나는 자네들보다 더 잘 먹는다. 그건 사실이지만 자네들보다 건강하지 못하다.

내가 좀 더 똥똥한가? 아마도 나는 자네들보다 더 오래 살지 못할게다. “그렇습니다” 하고 그들이 말한다. “하지만 우리는 먹는다는 기쁨이 없습니다.”

이 경치는 장님의 눈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필립의 반바지는 같은 단추가 두 개도 없다.

경마 기수처럼 옷을 입힌 방울새.

뼈꾸기는 Q자를 독일식으로 발음한다.

6월 7일

마리보의 아주 작은 각본에서도 엿볼 수 있는 감정의 요동.

훈장을 받고 나서, 나는 레스토랑에서 특별한 요리를 주문하지 않는다. 정식(定食)으로 충분하다.

6월 8일

폭풍우. 지는 번갯불. 긴 번개, 간격을 둔 번개, 더러운 번개, 마치 불의 거미 같다.

제비 떼는 한 구름 아래서 높이 맴돌고 있다. 나는 꼼짝 않고 벼락을 기다리는 포플러나무를 바라보고 있다. 붉은 빗방울이 뇌우가, 몰아치려는 타오른 지면에 우선 우두둑 자국을 찍는다. 그러나 뇌우는 생각을 다시 한다. 티뜨리지 않는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아내들이 미사에 가게 놔둔다. 자기들의 임종(臨終)의 마당에 성직자가 올 때 아내들을 구실로 삼으려는 심산인 것이다.

그들은 아내들이 하나님을 믿건, 편협한 신자가 되건, 또한 자녀들을 오냐오냐 기르건 내버려둔다. 하지만 금고의 열쇠만은 결코 넘겨주지 않는다.

나는 이 작은 마을에서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생각해보고 싶었다.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형편없이 교육받은 학교 교사는, 그들을 무지한 상태 그대로 놓아두는 것만이 목표이다. 그는 남의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만의 하잘 것 없는 이익을 도모한다. 그래도 그는 민중의 편이다. 그는 자녀를 아용해 먹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는 경험에 있다. 쇼모의 사람들은 딴 사람들 같지 않다.

—혹 당신이 그들에게 진정을 말하고자 한다면, 혹 당신이 하잘 것 없는 뜻밖의 지출을 그들에게 숨긴다는 권리를 남겨두지 않고자 한다면(그도 한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 말하자면 60프랑의 호구조사 수당 같은 것이다. “하지만 나는 숨기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고 그는 말한다), 당신은 여드레도 면장 직에 머물러 있지 못할 겁니다, 르나르씨.

그는 나에게 기름을 친다.

—당신은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당신은 탄 고장 사람이니까요……그들은 당신이 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와 그의 아내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다.

—그렇습니다, 하고 나는 말한다. 우리는 누구나 각자 조그마한 약점이 있습니다. 필립은 내가 부탁한 일을 하고 나로부터 “고맙소”라는 말을 듣고 웃음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다.

달(月)에 관한 시화집(詩畵集)을 만들기.

딱총나무와 그 꽃의 모든 조그마한 모자.

장미꽃의 죽음의 향기.

혼장을 달고 있노라면 나는 정식을 먹는 자리에서는 사령관님이 되고 거리에서는 경찰서장님이 된다.

시인 풍유가 점심식사를 하러 온다. 그는 그의 작은 광주리에서 1리터짜리 병을 꺼낸다. 그것은 그의 아류(我流)의 3년 묵은 술통과 매실(梅實)의 혼합물이다. 그는 또한 그 광주리 속에서 내가 빌려준 한 권의 책과 시 원고를 꺼낸다.

그가 단추를 잠그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마침내 나는 주의를 준다. 그는 윗저고리의 단추를 잠근다.

—아니, 바지 말아야, 하고 나는 말한다.

—참, 그렇군요, 하고 그가 말한다. 하지만 여기엔 단추가 없어요.

그는 말을 선택하려고 애쓴다. 그의 마을 소지주들의 악의(惡意) 덕분에 길거리의 생울타리는 ‘무정부 상태’라고 그는 말한다.

“건강을 위하여!” 하고 술 마실 때 그가 말한다. 바이는 웃지 않는다. 주는 것은 무엇이든 넘실넘실 잘 받는 주제에.

—나는 대식가가 아닙니다, 하고 그가 말한다.

그는 자기 자녀들의 ‘경쟁심’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아카데미 문화혼장을 타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 수여되는 것인가를 알게 되자, 이제 필요 없다는 듯이 꾸미고 있다. 그는 강베타의 363명의 당원(黨員)처럼, 교권반대

주의자(敎權反對主義者)이며 공화주의자이지만 때때로 친구를 만나기 위해 미사에 간다.

어느 초라한 신문쟁이에 대하여 어퍼어퍼한 날 “그의 재능이 폭로됐습니다” 하고 그는 말한다.

—우리는 돼지 새끼를 죽입니다, 하고 그가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이렇게 소리치고 싶다. “돼지 어미야, 돼지 어미!”

—지금 저의 논문을 쓰는 것이 당신이라고들 합니다, 하고 그가 말한다. 단추가 없는 내의, 어린이용 작은 밀짚모자 그리고 그 냄새는!……그는 음식을 자기 접시에 옮겨놓을 때 언제나 포크를 떨어뜨리고 사과를 하고 그것을 집으려 한다. 서로 몸이 부딪친다. 그칠 날이 없다.

여기저기 벽난로의 장작 받침쇠에서 그을린 마을의 고양이 머리 같은 그의 얼굴. 〈프티 파리장〉지에서 그는 메루텔의 연재소설을 읽고 있다. “내 생각으로는, 이 사람은 글쓰기를 포기하는 게 좋을 성싶습니다.” 피에르 살르와 에밀르 리슈부르, “이건 가장 내 마음에 드는 자입니다. 유창한 문체이지요,” 아노아에게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는 마구상(馬具商)으로 〈백색평론(白色評論)〉에 글 쓰는 것을 뽐내고 있다. 그는, 여름에는 해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일한다고 말한다.

그는 사교(司敎)를 “사교 씨”라고 부른다.

그는 한 장의 신문지로 덮여썩은 공책에 삭제한 흔적도 없이 정서한 두어 줄의 형편없는 거짓 시를 쓰고 있다.

그녀에 있어서 신심(信心)은 일종의 신경병과 같은 것이다.

그녀는 너무나 빨리 미사에 달려가기 때문에 마을의 암탉들이 질겁하여 달아난다. 그녀의 스커트는 길 위를 난다. 그녀는 모든 여자들을 앞지른다. 나무에 가렸나하면 거의 질주하다시피 달려간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겨우 ‘알레아시옹’ 시간에 대가는 게 고작이다.

왕벌이 날아와서 내 컵에 앉는다. 필립이 칼을 꺼내어 그 왕벌을 두 동강 낸다. 그러나 두 동강이 난 몸통이는 여전히 살아 있다. 심오 분쯤 뒤에 그 배때기를 누르니 그 바늘이 흰 방울 투명한 액체와 더불어 나온다.

그래도 나는 감히 그 바늘을 만지지 못했으리라.

나는 나의 추억을 심는다.

작은 병아리들 중에도 ‘홍당무’가 있다. 지금도 내 눈앞에 그런 것이 한 마리 있는데, 어미닭의 날개 밑에서 쫓겨나 마구 부리로 찍히고 있다. 아마도 그 어미의 마음에 거슬리는 곳에 검은 점이라도 있는 것이라.

도내(道內)의 신문조차 전혀 터치하지 않는 마을들. 그곳에서는 절대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마을들. 그곳에서는 절대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 범죄는 있을 수도 없고, 나는 자신 속에 또한 어떤 소심한 마음을 만들고 싶어 시골로 돌아온다.

6월 11일

암소, 사람들은 오늘밤 그 암소로부터 송아지를 떼어 그것을 기르기로 되어있는 레이몽에게 넘겼다. 끈적끈적한 자기의 새끼를, 모성애로서라기보다 아마도 게걸스러운 천성 때문에, 아무리 훤히 직성이 풀리지 않는 이 선량한 어미는 도대체 어찌하란 말인가?

그녀가 외양간에 돌아올 때, 나는 거의 발작조차 기대하고 있었다. 그녀는 송아지가 잠자던 짚북데기를 냄새 맡아보고 조용히 운다. 송아지 냄새가 스며있는 짚을 조금 먹어본다.

그러나 꼴 시렁 문이 열린다. 비록 그녀는 목장에서 방금 돌아온 길이지만, 필립이 주는 건초를 게걸스럽게 먹는다. 그는 다시 새끼 송아지를 불러본다. 그러나 라코트가 젖을 짜내도 가만히 있다. 빵을 주면 한입에 삼켜버린다.

이틀만 지나면 그녀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할 게다. 남 보기에는 그렇게도 깊은 모정(母情)이 사라져 버린 것일까. 이미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마리네트. 묘지에서 그녀는 앉는다. 그리고 새겨진 이름 아래 손가락 끝으로, 흔적은 남지 않지만 우리 모두의 이름을 적어 놓는다.

그들의 이름은 모두 그곳에 남아 있다.

건초를 실은 마차. 지평선 상을 기어가고 있는 거대한 짐승.

6월 19일

집은 수녀들에게 빌려주고, 목장은 라토에게 빌려주기로 되었으니, 이제 그녀는 자기의 저축을 합치면 매일 30수우의 생활비가 생기는 셈이다.

—하지만, 하고 그녀가 말한다. 일당 30수우의 생활비를 얻게 되었어요. 길바닥에서 잔다는 조건하에서 말이예요.

언제나 멋있게 면도하고 있다. 그는 텅저리 큰 구레 사제(司祭)가 조그마한 보세 사제보다 더 마음에 든다. 흔히 구레에게 농을 걸지만 이 신부는 화내지 않았다.

그의 집 우물은 소위 사람들이 일컫는 두꺼비 우물인데, 조금만 소나기가 쏟아져도 넘치는 주체에 금시 말라붙는 것이다.

그는 가끔 이렇게 말한다. “사실입니다, 그것은!” 즉, 자기는 딴 일은 책임지지 않는다, 그것을 믿진 말진 사람의 마음대로라는 점을 강조하는 뜻이다.

그의 손. 털이 숭숭 난 흙덩어리.

소를 너무 빨리 목장에 풀어놓으면 안 된다. 그리하면 소는 목장에서 배불리 먹겠지만 진작 적기에, 즉 살찔 시기에는 벌써 풀이 고갈되고 만다. 올해에는 건초를 많이 마련하지 못한다. 짚이 적을 것이니 꽤 일찍부터 건초를 먹어야 할 게다.

인간들도 뽕 돋친 짐승만큼이나 불행하다.

완두콩은 껍질이 작대기 밑에서 목말라 쓰러져 있다.

6월 27일

그의 집의 작은 뜰의 담벼락은 그 마을의 나머지 전체와 격리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멀리서 보인다는 것이 아니고 이웃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자기 자녀들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들이 장성하면 그 집을 팔아 그들의 어머니 뭍을 빼앗아 갈 터이니까.

—이 집은 2천 프랑이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1천 프랑을 그들에게 주어야 한다면, 도대체 나는 어디서 그것을 벌충합니까? 그놈들은 나를 몰아낼 것입니다.

그는, 자녀들이 자기가 죽기도 전에 상속을 마치고 자기가 또한 부모로부터 상속 받은 포도밭까지 그 반을 내놓으라고 할지도 모를 일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에

게, 그 포도밭은 부부 공유의 재산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에게는 그것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말해 준다. 그 말은 그에게 위로가 된다.

그의 옆에서 그의 딸이 손가락으로 콧구멍을 찌시면서 히죽히죽 비웃고 있다. 금고를 쥐고 있는 것이 그녀이다. 손수건을 빨처럼 접어 께맨 속에 그녀는 20프랑짜리 금화를 넣어 두는 것이다. 그녀는 무엇에나 데데하다. 그녀는 교태를 부리고 지저분하다. 그리고 일등 ‘면허장’을 받았다고 거드름을 피운다.

어떤 종류의 의기소침은 죽음의 감미로움에 대하여 시원한 생각을 준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 줄 것. “오오! 내가 당신들처럼 촌스러운 사람들과 집에 드나들지 않는 것은 너무도 의젓하기 때문이다.”

지은이 소개 | **쥘 르나르** (1864~1910)

프랑스 소설가 · 극작가. 소년기에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해 어두운 시기를 보낸 경험을 소재로 《홍당무》(1894)를 써서 널리 알려졌다. <피가로>지에서 5년간 신문기자로 일하며 작품 활동을 했다. 상징주의 시인들과 주로 사귀며 시집 《장미》(1886), 소설 《부평초》(1891) 등으로 문단의 주목을 받았다. 《홍당무》 이후 《포도밭의 포도 재배자》(1894), 《박물지(博物誌)》(1896) 등의 명작을 잇따라 썼다. 특히 《박물지》는 '영상(映像)의 사냥꾼'으로서의 면모가 잘 드러나는 작품이다. 사후에 발표된 《일기》(1928)는 1887년 이후 24년에 걸친 것으로, 늘 세상을 관찰하고 문체를 연마하는 작가의 고된 생활을 솔직하게 묘사하여 그 문학성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

옮긴이 소개 | **손석린** (1925~2009)

충북 충주 출생. 성균관대 불어불문학과 졸업. 서울대 대학원과 프랑스 릴 대학교 대학원 수료. 이화여대, 충북대 불문과 교수와 한국불어불문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근대 불어 단편선> <불문법> 등이 있고, 역서로는 <법의 정신> <팡세> <수상록> <여자의 일생> <목로주점> <춘희> 외 다수가 있다.

## 박물지

©사단법인 올재

발행 | 2016년 5월 10일

펴낸이 | 홍정욱

기획 | 이상민 김지훈

편집 · 교열 | 황인정

표지제호 | 강병인

디자인 | 황인정

펴낸곳 | 사단법인 올재

출판등록 | 2011년 11월 4일 제300-2011-188호

주소 | 서울시 용산구 후암로 4길 10

전화 | 02-720-8278

팩스 | 02-773-0250

홈페이지 | [www.olje.or.kr](http://www.olje.or.kr)

\*표지 제호 저작권은 캘리그래퍼 강병인 님께 있습니다.